



5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5호

(루게 571)



◆◆◆◆◆◆◆◆◆◆

차 례

◆◆◆◆◆◆◆◆◆◆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자.....	4
우리의 조국	6
위대한 령도자의 형상창조와 작가의 새로운 창작적지향	7
통일의 영웅 김정일 원수님께 축하를 드리노라.....	12
명언	13
회령땅을 걸으며	13
백두산	14
어머니	21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22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놓은 불멸의 기치	23
장군님은 우리중대 찾아주셨네	26
건축의 대가	27
진달래답사단.....	30
당을 따라 나아가는 강력한 부대가 되여야 한다시며.....	32
이것이 시대의 서정이다	33
명당자리	35
탑을 세웁니다 (외 1 편).....	35
이어지는 마음	36
은혜로운 별빛은 멀리 남방에도	37
탑들이 무너지는 이 세월에... ..	37
백두산을 찾아서	38
조국은 올 때마다.....	41
청봉의 푸른 냇에 (외 1 편).....	42
언제나 어머님곁에	42
전사의 신념	43

떼목우에서	46
나는 그 할머니의 손녀	56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고... ..	57
감흥있는 노래를 안고	58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에로 창작을 적극 선도하겠습니다.....	58
연백벌 사람들	59
그대들을 자랑한다	64
생활은 아름다워라	65
꿈을 안은 처녀	67
칭찬에 앞서 자랑에 앞서.....	69
물아, 저 푸른 들로 가거든	69
그가 어찌 알수 있었으랴.....	70
눈보라	71
작품의 새맛과 주인공의 형상과제	76
연백벌의 5 월은	78
말해다오 처녀야	79
내 나라의 얼굴	80
농장벌의 5 월은 흥이더니.....	80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자

오늘 전당, 전민, 전군은 조선로동당창건 5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찬 걸음을 걷고있다.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철의 의지가 반영된 이 구호에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토록 높이 받들어 모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 혁명의 자랑찬 진군길우에 전례없이 거창하고 책임적인 과업들이 나서고있는 때에 시대성과 혁명성이 맥박치고있는 구호를 받아안게 된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과 영광이 아닐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따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많은 혁명적작품을 창작하여온 우리 작가들은 지금 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 또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아 안고 충성의 붓을 높이 들었다.

지금 우리 당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번영의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에 기초하여 전당, 전민, 전군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부르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찬 투쟁을 벌려 우리 조국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보다 더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는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으로 창작하며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현시대는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이다.

조성된 현정세는 모든 작가들로 하여금 혁명적으로 창작하고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구호에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혁명적유산을 재보로 하여 조선민족의 룡성변

영을 이룩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 건설자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철학적으로 심오히 형상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인민, 혁명무력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대한 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고 품위있게 창작하는것은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에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더없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언제나 당에 충성다하여온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시며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곧 우리 당이라는것을 작품에서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데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충신들의 형상을 폭넓게 잘 형상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작가들은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을 체질화하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김책형의 충신의 전형을 깊이있게 창조하여야 한다.

당창건 50돐을 맞으며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당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 작가들은 전당에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혁명전통만이 순결하게 차 넘치고 우리 당이 영원히 수령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그 참모습을 훌륭히 보여주어야 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을 위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데로 지향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라야 창작에서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억센 기개를 진실하고 심오하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이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부강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그 절대적인 진리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필승불패인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되는 3대혁명이 빛나게 수행되는 자랑찬 과정을 작가들은 모든 힘을 경주하여 폭넓고 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당중앙위원회 구호에 반영된 매우 중요한 사상이다.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면 나라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될것이며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소망은 빛나게 실현된다. 작가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특히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폭넓고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있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그날과제는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투쟁모습을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다양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군사적담보이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건설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군민일치

의 고상한 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이룩되고 있는 이 모든 성과들을 자기들이 창작하고있는 작품에 더 잘 형상하여야 한다.

당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이 벌리고있는 창작전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작가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사상적각오와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충성의 창작전투를 활발히 벌릴 때이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누구나 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의도하시는것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뛰어들어 기어이 관철하고야마는 참다운 일군이 되어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간다면 점령 못할 창작적요새란 있을수 없다.

작가들은 당의 신임과 기대를 잊지 말고 왕성한 정력과 일욕심을 가지고 혁명적구호관철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또 창작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당의 최대의 임무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다.

작가들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는 투쟁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고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형상창조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적리념이다.

우리 작가들은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며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실감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육성하신 당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창건후 50년,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근 70년동안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을 변함없이 고수해온 혁명적당은 우리 당뿐이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을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길이 있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모든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더 많이 훌륭하게 창작할 때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은 변함없이 고수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창작의 붓을 더 높이 추켜들어 실천적 성과로써 당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여야 한다.

우리의 조국

량덕모

선조의 뼈가 묻힌
소나무동산아래
걸음마 뎌 고향집을 먼저 생각하며
어머니를 찾듯 조국을 부르지 않노라

봉이봉이 산 푸르고
골개골개 물 맑은
금수강산을 먼저 그려보며
정에 겨워 조국을 노래하지 않노라

조국이여!
한번 불러도
조용히 노래해도
고마움의 이슬에 젖는 내 눈앞엔
환히 어려와라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 밝은 영상이

대해의 물방울같은 나에게도
세계를 휘어잡고 사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신분

돌이켜보면 나는
그이께서 가꿔주시는
사회주의 무성한 생활속에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삶의 길을 편 행운아

수수한 농민의 아들 이 가슴에도
조선아 너를 빛내리
통남산의 그 크나큰 맹세를 새겨주시고
성스런 백두의 혈통으로
내 심장의 피를 끓여주신 그이

수백만 인민의 한사람인
내가 공부한 교실
치료받은 입원실
땀을 바친 공장구내
어디 가나 인민을 하느님로 여기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햇빛
그늘 한점 없이 나를 품어주었나니

인민의 아버지
그이의 비범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펼쳐지는 크고작은 일들
나와 이어지지 않은것 있었던가
태어나는 기적의 새 속도
즐거운 새노래와 춤도
나를 떼어놓고 이루어진것은 없었다

하여 어려운 날 시련을 헤쳐가도
나는 인간의 존엄높이
가슴펴고 웃는 생활의 주인
붉은기를 들고 광활한 미래로
줄기차게 달려가는 혁명의 주인

그렇게 인민모두를
인간행복의 절정에 세워주신
그이 계시여
저 하늘도 당당한 우리의 하늘
이 땅도 뚝뚝한 우리의 땅
어린 시절 고향집도 아름다운 산천도
나날이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오, 순간도 떠나선 살수 없는 조국이여!
영명하신 그이의 사상과 의지로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영원히 우리 앞길 밝히며 타오르거니

나는 온 세상에 웨치노라!
오로지 인민을 위한 우리 식 사회주의
그 기치며 수호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가 바로
부르며 노래하며
인민의 천만심장 다 바쳐 지켜갈
무궁한 우리의 조국이라고

위대한 령도자의 형상창조와 작가의 새로운 창작적지향

김해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삶의 태양으로, 운명의 수호자로 받들어모시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그이를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불같은 맹세와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을 시대적 요구로 받아안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형상한 작품창작에 불타는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 귀중한 열매를 거두어들이고있다.

이 귀중한 열매속에는 창작사업에 널리 일반화해야 할 작가의 새로운 창작적지향이 깃들어있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령도자의 형상창조에서 새로운 창작적지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천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세계를 진감시키신 력사적사변들과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나래치는 현실세계에 대한 민감한 반영에서 표현되고있으며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려는 작가의 탐구정신에서 발현되고있다.

단편소설들인 《새벽》(최성진, 《조선문학》 1994년 2호)과 《한가정》(김석범, 《청년문학》 1994년 6호)은 우리 소설가들의 이러한 창작적지향과 탐구의 흔적을 엿볼수 있게 하는 우수한 작품들이다.

소설에 격동적인 사변들과 감동적인 현실생활을, 더우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력사적사변들을 통하여 천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인민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의 거룩하신 모습을 시도 아닌 소설에 그토록 민감하게 감동깊은 형상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은 사실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다.

단편소설 《새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국주의자들의 극도에 달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핵무기전과방직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시는 대응단을 내리심으로써 세계적인 경탄과 찬사를 불러일으킨 력사적사변을 담고있다. 단편소설 《한가정》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인덕정치로 온 나라가 혈연적뉴대로 이어져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현실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이 두 소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진행하신 최근의 혁명활동에 기초하여 창작된것으로 하여 실로 그 의의가 큰것이다.

이것은 우리 소설가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생활적으로 깊이 체험하면서 걸출한 령도자의 위대성을 소설화하는데 모든 창작적 지혜와 재능을 기울인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단편소설들인 《새벽》과 《한가정》은 그 양상과 형상수법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소설들이다.

단편소설 《새벽》은 정론성이 강한 소설로서 작품에 숭엄하고 격동적인 정서가 차넘친다면 단편소설 《한가정》은 소박하면서도 담담한 소설로서 작품에 따뜻하고 밝은 정서가 흘러넘치고있다.

두 단편소설은 형상수법에서도 서로 대조되고있다. 《새벽》에서는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격동적인 력사적사변을 그에 상응한 폭과 깊이를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감동깊게 보여주었다면 《한가정》에서는 사람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한 인간의 가슴속에 순간 비껴다 사라지는 자그마한 그늘마저도 가셔주시는 인민의 아버지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고있다.

하지만 이 두 소설은 하나같이 새로운 형상세계를 창조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탁월하고 비범한 령도풍모와 온 나라 인민의 친어버이로서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부각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사색의 폭과 깊이, 그 세계의 높이가 있다.

단편소설 《새벽》에서 작가의 새로운 창작적지향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수령과 전사사이에 맺어지는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 혁명의 엄혹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기 위하여 사색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통하여 보여 주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자면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면적체험세계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여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일부 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이 어딘가 시원하게 탁 트이지 못하고 범접할수 없는 경계와 울타리를 친듯한 감을 주는데 이것은 수령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판조적으로 그렸기때문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소설문학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작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인간적 품모를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생동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내면세계를 보다 대담하게 파고들으로써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이 소설의 형상적의의는 큰것이며 시사적인것이다.

단편소설 《새벽》에서 이야기된것처럼 적들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두개 군사대상에 대한 핵사찰을 강요하고 특별사찰을 받지 않는 경우 유엔안보리사회에 제기까지 하겠다고 위협해나섰다.

한편 놈들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로골적으로 벌려놓았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단편소설 《새벽》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 아니 인류의 평화가 경각에 다달은 이 시각 천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조국의 자주권과 세계평화를 지켜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감동깊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이께서 안아오신 그 력사의 위대한 승리의 새벽을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로 내세웠다.

소설의 기본사상주제적과제인 력사의 위대한 승리의 새벽, 그것은 이 땅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엄높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것이다.

기나긴 력사의 나날들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새벽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령도품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설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형상들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범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광폭의 사색을 펼치시는 위대한분이시며 그의 사색과 담력은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폭넓게 밝혔어야 하였다.

작가는 소설의 사상주제적특성으로부터 출발하

여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간관계에 이야기를 집중시키지 않고 주로 정론적개괄과 예술적일반화로 나가면서 인류사적견지에서 시대의 본질을 예리화하여 거대한 정치적사변이 가지는 의의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강조하는 한편 의의깊은 생활세부들을 탐구하여 위대한 령도자의 내면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물론 이 소설에도 다른 소설들에서 흔히 그렇게 하듯이 책임적인 일군의 시점 즉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인 한성민의 시점이 설정되어있다.

작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내면세계를 대담하게 직접 보여주는데 힘을 집중하면서도 이 시점을 그의 내면세계를 더욱 깊이 개방하도록 하는데 옳게 리용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품모가 더욱 다면적으로 생동하면서도 진실하게 안겨오게 하였다.

작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한성민과의 인간관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파고들어 문학적인 이야기를 펼쳐가도록 하거나 한성민의 개성화된 체험세계를 통하여 령도자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 창작적관심을 집중하지 않았다.

소설은 다만 엄혹한 사태를 수습할 방도를 찾지 못해 안타까이 모대기며 걱정애 싸여있던 한성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에 크게 감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것으로써 그의 위대성을 부각하였다.

구체적생활묘사가 아니라 정론적개괄로 이 사변의 중요성과 긴박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령도자와 등장인물사이에 인간관계를 맺어줄수 있는 사건과 생활을 그리지 않은 이 소설은 자칫하면 추장성을 띌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소설이 추상성을 극복하고 수령형상소설로서의 자기의 풍격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감동깊게 보여줄수 있는것은 그의 내면세계를 직접 보여줄수 있는 의의깊은 생동한 생활세부들을 탐구하고 뜻깊게 그려준데 있다.

작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사령부 한켠 벽쪽에 놓여있는 지구의를 드시는 생활세부와 탁상일력에 《3월 25일》이라는 날자를 적어놓은 생활세부, 그이께서 승용차를 타고가시는 생활세부와 붙여진 살림집 창문앞에 승용차를 세우시고 간간이 들려오는 악기소리를 들으시는 생활세부를 소설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 생활세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내면세계를 자연스럽게 펼쳐보일수 있게 계기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의 위대한 사색의 세기를 직접 생활적으로 섬세하게 보여주면서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작가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승용차를 타고가시며 사색하시는 생활세부에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면서도 이 세부가 그이께서 지구의를 보시는 생

활세부와 탁상일력에 《3월 25일》이라는 날자를 적어놓으신 생활세부에 이어지면서 그 생활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고 보충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깊은 밤 살림집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악기소리를 들으시는 생활세부로 소설의 사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단편소설 《새벽》에서 특히 감동적인 장면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구의앞에 서시여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는 장면이며 한성민이 그이께서 탁상일력에 써놓으신 《3월 25일》을 보고 크게 오인하고있던것이 풀리는 장면이다.

그이께서 최고사령부 한켠 벽쪽에 놓여있는 지구의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참 아름답거던! 우리의 행성이말이요.》라고 하시며 방을 거니시다가 또다시 지구의를 바라보시는 이 생활세부는 행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획책하는 놈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행성을 영원히 인류의것으로 만드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사색의 세계를 여운있게 안겨오게 하였다.

참으로 이 생활세부는 우리 조국의 운명만이 아닌 평화를 절절히 바라는 전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부각하는데서 작가의 탐구와 사색이 깃든 좋은 실례로 된다.

소설은 또한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놈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세에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무비의 담력과 철의 심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그이께서 탁상일력에 써놓으신 《3월 25일》이라는 생활세부로 잘 보여주고있다.

3월 25일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세계인류의 이목이 집중되는 날이었다.

적들이 《최후통첩》을 해온것으로 하여 어쩌면 이날에 《전쟁》이라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질수 있었기때문이다. 조선반도의 남단을 뒤덮으며 대양건너 본토기지들과 여러 군사기지들에서 날아든 적들의 초대형항공모함을 기함으로 하는 함선들과 최신형핵재전력 및 전투폭격기들, 악명높은 지상군부대들, 해병원정부대들... 그것들이 남조선전역에서 미친듯이 벌리는 광란적인 대규모적인 《시범상륙공격》연습과 실동단계에 들어선 대규모군사연습, 세계는 이날을 지구가 깨지는 날로 아우성치고있었다.

한성민은 그이께서 탁상일력에 활달한 필치로 써놓은 3월 25일을 평화냐 핵전쟁이냐 하는 역사적사변의 날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 탁상일력에 써놓으신 《3월 25일》은 유성탄광 고문지배인의 생일 일흔둘날이었다. 그이께서는 한생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온 로당원의 생일 일흔둘날을 잊지 않으시고 축하해주시려고 탁상일력에 적어놓으신것이다.

언제나 승리에 대하여 락관하고계시는 그이의 심중에는 놈들이 노리는 바로 그 《3월 25일》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작가는 이날을 바로 그이께서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조국을 해치려고 덤벼드는 호전분자들을 타승하는 날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며 남의 등을 쳐먹기 위해 만들어낸 놈들의 낡은 질서를 깨버리는 날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탁상일력에 쓰신 3월 25일은 적들의 《최후통첩》에는 비교도 할수 없는 더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사랑으로 이 땅에 삶을 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지켜가시는 그이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력사의 날로 되게 되었다.

작가는 이처럼 이 《3월 25일》을 력사적사변의 날인 동시에 소설의 기본사건으로 되고 그이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세부로도 되게 형상하면서 작품의 극적전인력을 보장하고있다.

단편소설 《새벽》은 또한 승용차 생활세부를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전인류의 지향과 요구를 그 누구보다 가장 깊이 체현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주시는 걸출한 사상가, 정치가이시고 군사의 대가이시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해주시는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살같이 달리는 승용차의 차창가에 언뜻 언뜻 비끼는 이른새벽의 거리풍경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의지와 생활감정, 생활분위기와 정서적 음향이 승용차안에 그대로 집중되게 하였다. 이것은 조국과 인류의 운명을 놓고 사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내면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동시에 그것은 그이의 사색의 숭고한 세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준다.

특히 려명이 완전한 모란봉은 우리 인민의 피눈물로 얼룩진 곡절많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돌이켜보게 하는 력사의 증견자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빛내여주신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을 지켜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굳은 각오와 강철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안겨오게 하였다.

한편 작가는 하나의 생활, 하나의 풍경, 미세한 음향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달리는 승용차에 모든 형상을 집중시켰다.

살같이 달리는 승용차, 바로 이 승용차에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의 세계, 그이를 끝없이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우리 인민의 일편단심, 수령, 당, 대중의 위대한 혼연일체, 이 모든것이 그대로 비끼게 했다. 또한 여기에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와 강위력한 국방력이 있는한 그 어떤 강적도 쳐 물리칠수 있다는 그이의 강철의 의지와 승리에 대한 확신,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어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결사옹위할 결의에 넘쳐있는 혁명의 로세대들과 새 세대들의 불굴의 의지와 충성의 맹세, 한마디로 우리 령도자,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의 기상이 그대로 어려있다.

하여 소설은 이 생활세부를 통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사색의 바다를 헤치시는 광복의 세계를 깊이 개방하여 보여준것으로 하여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단편소설 《새벽》에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풍모가 이처럼 위대하고 매혹적인 형상으로 안겨오는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에 기초하고있는 그이의 사색과 심혈을 형상적으로 깊이 보여준 이 작가의 높은 창작적지향과도 관련되어있다.

불켜진 창문앞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우시고 꿈결마냥 간간이 들려오는 타악기소리에 귀를 강구시는데 등반이에서 몸을 떼신 그이의 눈가에, 그이의 만면에 조용히 피여오르는 미소, 땡땡... 새벽의 방송개시와 함께 부드러운 타악기의 음향이 이 땅에 울려퍼지는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과 이어져 더욱 고조를 이루는 그 신비한 음향을 음미하시듯 기척이 없으시다가 누리가 밝아지도록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불빛의 바다로 환한 도시풍경을 바라보시면서 환희에 젖은 음성으로 《저것 보시오.》라 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김정일** 동지!

참으로 이 생활세부는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모습을 감동깊게 보여주는 기쁨진 화폭이다.

단편소설 《새벽》은 이처럼 생동한 생활세부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면세계를 깊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그이의 위대성을 다면적으로 감동깊게 보여주고있으며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하고 소설의 풍격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단편소설 《새벽》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소설로 될수 있는것은 작가의 새로운 창작적지향과 함께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을 다면적으로, 화폭적으로 안겨오게 하고 작품에 숨엄하고 격동적인 정서가 그대로 맥맥히 굽이치게 한 작가의 형상능력과도 관계된다.

소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유분방하게 교차시키면서 생활을 다면적으로 그리고있다.

특히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기전까지의 그이의 사색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몇달후에 있을 전승기념일까지의 생활도 앞당겨 형상하고있는것은 형상의 심오성과 소설의 사상성을 더욱 강조해준것으로 된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께서 안아오신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그이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욱 온몸으로 심장깊이 체험하고 탄복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있다.

소설에서 우리가 꼭 이긴다고, 오히려 로간부인 할아버지에게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당부하는 한성민의 손주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것처럼 아끼고 믿고계시는 유능한 지휘관인 박명철부대에 있는것으로 형상하고 또 경애하는 그이께서 한성민 손자의 대견스러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에 폭탄을 차고 놈들의 소굴에 날아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겠다고 충성의 편지를 올린 옛 공군지휘관이었던 전쟁로병 리학을 생각하는것으로 형상한것은 쇠소리나는 충신으로 자라나고있는 혁명의 3세, 4세들의 모습과 함께 전쟁로병들의 모습, 아니 충효일심으로 다져진 조선의 모습을 하나의 이야기속에 채치있게 보여준것으로 된다.

작가는 또한 소설에서 생활을 보다 많이 감성적으로 파악하고 한쪽의 조선화처럼 섬세하고 선명하게 그려놓음으로써 정론적일반화가 강한 이 작품에 정서가 짙게 흐르게 하고있으며 형상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음미하게 하고있다.

특히 이 소설의 절정장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안아오신 위대한 승리의 새벽을 가장 숭엄하고 격동적인 뜻깊은 력사의 순간으로 형상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였다.

...하늘의 별이 다 내려앉은듯 불빛으로 환한 도시, 그 불빛 한가운데로 달리는 승용차, 푸르게 열려가는, 온통 휘날리는 공화국기의 천지로 보이는 하늘, 온 우주로 퍼져가는듯 장중한 음악으로 울려퍼지는 애국가의 선율, 미구에 온 누리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솟아오를 찬란한 태양에 대한 예고, 샘물처럼 끓어오르는 생활의 음향, 승리의 전조인듯 열려진 차창가로 날아드는 무수한 생활의 음향이 습배인 3월의 부드러운 바람. 경애하는 그이의 만면에 아침노을처럼 피여오르는 미소...

소설은 이처럼 하나의 생활, 하나의 자연, 하나의 미세한 음향조차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융합되어 숭엄하고 격동적이고 장쾌한 생활화폭, 장중한 교향곡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하여 《그 어떤 제국주의도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수는 없소! 인류의 리성이 그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거요.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등을 쳐먹기 위해 만들어낸 낡은 질서는 깨버려야 하오!》라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모습은 가장 위대한 령도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깊이 아로새겨지게 하였다.

이처럼 단편소설 《새벽》은 높은 지성과 정서

적 체험으로 안받침된 작가의 새로운 창작적지향과 형상능력으로 거대한 역사적사변의 폭과 깊이, 그 의의를 힘있게 강조하고있으며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군사의 대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풍모를 형상적으로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새벽》이 세계적인 경탄과 찬사를 자아낸 위인의 천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무한한 공지와 흠모, 열화같은 걱정과 차넘치게 했다면 단편소설 《한가정》은 이 땅에 대하처럼 굵아치는 사랑이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서를 타고 사람들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들게 하고있다.

단편소설 《한가정》에서 작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 평범한 가정의 소박한 소원을 풀어주시는 덕성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 한없이 우월한 사회주의 내 나라 정치의 특징으로 되는 인덕정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보여주려는 창작적지향을 강하게 보여주고있으며 그것은 작품의 사상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가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 덕성을 그리면서 그것을 위대한 사상과 하나로 융합시키는것은 수령형상창조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상미학적과제의 하나이다.

이 량자의 결합이 예술적으로 훌륭히 실현될 때 그 덕성이 일면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가지고 뜨겁게 안겨올수 있게 되며 형상의 깊이를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된다.

단편소설 《한가정》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평범한 인간의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는 뜨거운 육친적배려를 사람들이 사회적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 가장 값높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이의 인덕정치와 훌륭히 결합시킴으로써 그 사상적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 소설에서 덕성과 사상의 유기적결합은 격동적인 사실이나 큰 사건에서 추구하지 않고있다.

소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나도 평범한 한 농장원의 결혼식에 리당비서를 참가시키는 내용을 통해 주제사상적내용을 깊이있게 실현하고 한창 바쁜 농사철에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저수지공사를 펼쳐놓은 리당비서가, 더우기 결혼식날 세상떠난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도록 잔치준비까지 잘해준 리당비서가 결혼식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탓할수도 없으며 누구나 너그럽게 이해할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리당비서가 결혼식에 참가하는 일을 중요한 저수지공사보다 더 중대한 일로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바쁜 현지도의 길을 앞에 두시고도 직접 그를 찾아가 낯알더미보다 인민대중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결혼식에 참가하도록 하여주신다.

단편소설은 아버지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듯이 보살펴주듯이 당이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그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 보호자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숭고한 인간미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리하여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의 생활력을 그대로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었으며 형상의 철확성을 담보할수 있었다.

이것은 작가가 감동적인 덕성이야기자체에 매달리지 않고 그이의 한없이 뜨거운 덕성속에 깃든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려는 진지한 탐구와 창조정신이 가져온 결실이다.

단편소설 《한가정》이 인민의 친어버이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것은 섬세한 필치로 인간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고든 작가의 형상능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 누구인가를 기다리며 안타까이 서있는 녀인의 모습, 이것은 흔히 누구나 무심히 스쳐지나보낼수 있는 범상한 일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누구나 무심히 스쳐보내는 이 일을 그냥 스쳐보내지 않으시였다.

무더운 여름철 휴식이 한창인 정오의 땀벌에 나들이웃까지 입고 안타까이 누구인가를 기다리는 이 녀인의 모습에서, 또 이 녀인의 얼굴에서 그 누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마음속 사연까지 헤아려주신분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소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로부터 그 녀인의 간절한 사연을 풀어줄데 대한 과업을 받은 일군은 녀인에게 리당비서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서 신랑이 상을 받게 하라고 설복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일을 그르치지 않고 잘 처리하는것으로, 더우기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리당비서를 기다리던 녀인까지도 이렇게 하는것이 사사로운 일을 내세우지 않고 아들은 물론 일가친척에게 미안하지도 않게 일을 잘 처리하는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기뻐까지 하였다.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누구나 무심히 스쳐지나는 일에서 동행하던 일군은 물론 리당비서를 애타게 기다리던 녀인까지도 잘 되였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한 인간의 가슴속에 간직된 간절한 소원과 순간 비꼰다 사라지는 마음의 그늘을 보신것이다.

또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으로부터 리당 비서가 잔치에 참가하여 그 집의 소원도 풀리고 결혼식도 잘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그가 가져온 사진을 가까이 보기도 하시고 멀리에서 보기도 하시면서 못내 흐뭇해하십니다.

단편소설 《한가정》은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사랑은 자식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친부모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한없이 뜨거운 세심하고도 열렬한 사랑이라는것을 구체적형상으로 파고들어 보여준것으로 하여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한없이 은혜로운 주체의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의 참모습을 깊이있게 보여주었으며 작품의 사상성을 더욱 강조해주고있다.

작가의 창작적 사색과 지향을 떠나서 작품의 예술적일반화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고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하여서도 기대할수 없다.

단편소설 《한가정》에서 작가의 창작적 사색과 지향은 하나의 작은 생활세부로 예술적일반화를 훌륭히 실현하고 극적인 화폭을 서정적으로 채색하여 작품의 형상적의미를 철학적으로 심화시켜 보여준데서 나타나고있다.

소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온 나라는 한가정》이라는 집단체조장면을 생활세부로 펼쳐보여주면서 결혼식장에서 한없는 감격과 격정속에 울려 퍼진 《한가정》

이라는 노래가 다시 이 집단체조의 기본주제가로 울려 퍼지게 하였다.

이것은 자그마한 생활세부를 통하여 예술적일반화를 실현하고 생활의 본질을 보여준것으로 되며 생활에 대한 련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작품의 사상감정을 깊은 여운속에 정서적으로 승화시킨것으로 된다.

단편소설 《한가정》은 이처럼 사람들속에서 널리 전해지고있는 평범한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당의 사랑과 믿음, 인덕정치의 위대한 생활력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사회주의 내 조국의 불패성을 훌륭하게 보여주었다.

이처럼 모든 작품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력대의 모든 위인과 장군을 초월한 빛나는 예지와 덕망,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지니고계시는 만고에 처음보는 백두산형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걸출한 품모를 빛나는 예술적형상으로 창조하는것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우리 작가들의 최대의 행복이며 영광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매혹을 가지고 깊은 사색과 탐구로 새로운 형상세계를 끝없이 강조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형상을 높이 모신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자.

통일의 영웅 김정일원수님께 축하를 드리노라

까르멜로 가르시아 페르난데스

하늘가의 무수한 별들도
감격의 환희로 반짝이며
젊으신 원수님의
두어깨우에 내려앉는 이른새벽

조용히 걸으시네
거룩하신 자옥 옮기실 때마다
위대한 구상 펼쳐지고
거창한 창조물 솟아난다네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 찬란한 해빛 나도 환희로이 받아안노라

조선과 쿠바
두 나라의 친선의 정을
수평선 저 멀리 누리에
자랑하노라

형제의 나라
사회주의쿠바인민은
최고사령관 그이의 영상을
흠모의 정 안고 우러르노라
하늘높이 날아예는 평화의 비둘기
한없이 정겹게 바라보시면서도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앞에선
그이의 안광 근엄하게 번뜩이시나니

조선과 쿠바는
자유롭고 억센 한쌍의 비둘기
침략자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곧 쿠바인민의 투쟁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김정일원수님이시여
길이 번영하라
정의의 나라 조선이여

(필자는 쿠바시인임)



《사상이 변하고 신념만 변하면 의리나 인정도 동시에 변하는 법이다. 지난날 죽자살자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사이에 틈이 생기고 인간적결렬이 생기게 되는것도 다 어느 한쪽의 사상이 변하는데서 오는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우정이나 동지적뉴대도 어느 일방이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금이 가기마련이다. 사상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의리나 친분관계도 지켜낼수가 없다는것이 그후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은 하나의 교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2)중에서-

회령땅을 걸으며

김정곤

회령땅
언덕을 올라도
기슭을 내려도
내 눈엔 보이지 않아라
해종일 종달바구니 끼고
김정숙어머니 어릴적 이삭주이하시던
흰서리 깔린 그 고달픈 이랑들은

보이지 않아라
샅빨래 눈물로 헤우신 여울목과
눈물속에 흐려진 고향산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신
그 구렁가에 초가마가리...

흔적조차 없구나
구름처럼 핀 백살구가지사이
흰 추녀들이 학처럼 날고
회령강기슭에
빨래하는 녀인들 웃음소리
여울처럼 넘쳐흘러가니
언덕을 올라도

언덕을 내려도
꽃속에 묻혀가는 걸음걸음

아아
무거이도 휘감긴 가난과 설음을
다시는 다시는
우리들이 밟지 못하게

다시는 다시는
그 싹조차 트지 못하게
행전 한번 풀새없이
그처럼 다 지리밟고 오셨구나
김정숙어머니

이 언덕을 내리시여
장군님따라 어머니님 안고오신 꽃천지
걸음걸음 웃으며
내가
그대가
오르네
어머니 사랑에 떠받들려

오늘 우리 나라처럼 명곡과 명시가 많은 나라는 없다.

격동하는 시대의 벽찬 숨결과 인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담은 시는 그 어느 시기에나 전장에 울리는 북소리와 진군의 나팔소리처럼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면서 우리 혁명에서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 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추억속에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고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들중에는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과 리수복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김철의 서정시 《어머니》도 있다.

편집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뜨거운 믿음과 배려에 의하여 이 작품들을 다시 편집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이 시들을 외우고 언제나 읊으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며 당창건 5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더 큰 혁신과 위훈을 세움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것이다.

-편집부-

장편서사시

백두산

조기천

머리시

×

삼천만아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백호》의 소리없는 웃음에도
격과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이 땅을 파물아치던 살풍에
마르고 탄 한가슴을 추기고
천년 이끼오른 바위를 버루돌 삼아
곰팡이 어렸던 이 붓끝을
육박의 창끝인듯 고루며
이땅의 이름없는 시인도
해방의 오늘 말하련다!

이제 항일의 의로운 전사들이
사선에 올랐던 이 나라에
재생의 백광 가져왔으니
해방사의 혁혁한 대로
두만강물결을 넘어왔고
백두의 주름주름 바로 꺾여
민주조선에 줄곧 뻗치노니
또 장백의 곡곡에 얼룩진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
력력하노니
내 오늘 맘놓고 여기에 올라
삼천리를 손금같이 굽어보노라!

×

×

침침 층암이 창공을 치뚫고
절벽에 눈뿌리 아득해지는 이곳
선녀들이 무지개 타고 내린다는 천지
안개도 오르기 주저하는 이 절정!
세월의 류수에
추억의 배 거슬러올라—
어느해 어느때에
이 나라 빨찌산들이 이곳에 올라
천심을 떠받으며
의분에 불질러
해방전의 마지막 봉화 일으켰느냐?

오오 조상의 땅아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의 선혈로 덩굴었느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몇만의 지사 맘길 더듬어
백두의 밀림 찾았느냐?
가랑잎에 쪽잠도 그리웠고
사지를 문턱인듯 넘나든이 그 뉘냐?
산아 조종의 산아 말하라—
해방된 이 땅에서
뉘가 인민을 위해 싸우느냐?

뒤가 민전의 첫머리에 썼느냐?

×

쉬-쉬-
바위우에 호랑이 나섰다
백두산호랑이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어 뻗치고
남쪽하늘 노려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친다
그 무엇 쳐부시련듯 톱을 들어
《따-웅-》
그리곤 휘파람속에 감추인다
바위 호을로 솟아
이끼에 바람만 스치여도
호랑이는 그 바위에 서고있는듯
내 정신 가다듬어 듣노라-
다시금 휘파람소리 들릴지,
산천을 뒤집어떨치는
그 노호소리 다시금 들릴지!

×

바위! 바위!
내 알리 없어라!
정녕코 그 바위일수도 있다
빨찌산초병이 원쑤를 노렸고
애국렬사 맹세의 칼 높이 들었던 그 바위
빨찌산용사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
장백에 솟은 이름모를 그 바위
또 내 가슴속에도 뿌리박고 솟았거니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 더듬으며
가난한 시상을 모으고 엮어
백두의 주인공 삼가 그리며
삼천만이며, 그대에게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가슴 헤쳐 마음대로 말하련다!

제 1 장

1

고개 뒤에 또 고개-
몇몇이나 있으련고?
넘어넘어 또 넘어도
기다린듯 다가만 서라!
한 골짜기 지나면
또 다른 골짜기-
이깎로 백화로 뒤엎겨 앞길 막노니
목도군이 고역에 노그라지듯
골짜기는 으스스히 휘늘어져있어라!
울림으로 뻗뻗하여 몇백리
백설로 아득하여 몇천리-
사나운 짐승도
발길 돌리기 서슴어하고

날새도 고적에 애태우다
날아 날아 떠나고야마는
장백의 중중심쳐 홍산골-

절벽사이 칼바람에 쌓인 눈우에
뚜렷이 그려진 이 발자욱,
어디론지 북으로 북으로 가버린
가없이 외로운 이 발자욱-
어느 뒤의 자취인가?
눈보라에 길 잃었던 포수
절망에 운명 맡긴 자취인가?
어느 뉘지 북으론 왜 갔느냐?
북에선 백두산이 백발을 휘날리며
한설을 안아 뒤뿌러치는데,
서리발로 한숨 쉬고있는데!

2

눈우에 뚜렷한 이 발자욱
눈여겨살피라-
그속엔 절망의 흔적 없으리,
지난밤 흰두루마기 사람들
설피 신고 이곳 꺾여 북으로 갔으니
사람은 몇백이나 되여도
발자욱은 하나만 남겨두고-
그런데 오늘은 이 발자욱 허물이며
수십의 왜놈의 무리

허리까지 눈무지에 빠지며
《토벌》의 큰볼 밀림에 지르려나
맨앞엔 군견 두마리 날뛰고
그뒤엔 안경이 번뜩이고
또 그뒤엔 서리 어린 총부리와 총부리-
《대체 한사람의 발자욱뿐-
모두 어디로 갔느냐말이야!》
절벽에 안경을 두리번두리번-
맨 앞놈의 중얼거림
《글쎄요... 신출귀몰은...》
열놈의 대답 끝나기도전에
《땅》-총소리
얼어든 대기를 깨뜨린다
《안경》이 눈에서 다리도 못뻗채
경례나 하듯이 꺼꾸러진다

3

그다음...
그담엔 홍산골이 터졌다-
총소리, 작탄소리, 기관총소리,
놈들의 아우성소리!
그담엔 절벽이 무너졌다
다닥치며 뛰치며 부서지며

바위들이 골짜기를 쳐부신다,
《만세!》, 《만세!》-골안을 떨치며
산비탈에 숨었던 흰두루마기들

나는듯이 달려내렸다
 여기서도 돌격의 《악!》
 저기서도 《악!》 《악!》
 설광과 마주치는 날창
 번개같이 서리찬 하늘을 찢는다
 《동무들!
 한놈도 놓치지 말라!》
 이것은 작렬되는 육박의 첫 구령소리,

4

산비탈 바위 우에
 청년 한분 버쩍 올라선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흰두루마기자락이
 대공으로 솟아오르려는
 거센 나태같이 퍼덕이는데
 온몸과 팔과 다리—
 모두다 약진의 서슬에 불붙고
 서리발 칼날의 시선으로

싸움터를 단번에 쪽—가르며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부르짖었다
 바른손 싸창을
 바위아래로 번쩍이자
 마지막 발악 쓰던 원쑤 두놈이
 미끄러지듯 허적여 뒤여진다—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재쳐 부르짖었다
 이는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치며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이는 장백을 쥐락펴락하는,
 큰산을 주름잡아 한손에 넣고
 동서에 번쩍!
 천리허의 대령도 단숨에 넘나드니
 축지법을 쓴다고—
 북천에 새별 하나이 솟아
 압록의 줄기줄기에
 그 유독한 채광을 베풀노니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났다고
 백두산두메에서 우러러떠드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5

육박의 불길 멎었을 때
 밀림의 주인공 빨찌산들
 주섬주섬 원쑤의 무기 거둔다
 몇놈이나 복수의 칼 맞았느냐?
 몇놈이나 빨찌산전법에
 《천황폐하》도 산산 줄달음에 팽개치고
 《무사도》도 갈데로 가라—
 도망치다 엎드려졌느냐?
 《한놈도 빼우지 않았습시다.》

철호의 보고
 《놈들은 이번에도
 무장 바치러 왔지!》
 김대장의 높은 말소리
 그리곤 호탕한 웃음소리—
 《하…하…하…》
 함박꽃인양 그 웃음소리
 떨기떨기 내려져 눈우에 꽃기는듯!

6

이날밤에 눈이 내렸다—
 하늘도 땅도 바위즈렁도
 홍산골싸움터도
 눈속에 묻히었다
 이깎발만 칠월의 꽃피는 삼발이 되고
 대부동 고목에도 때아닌 꽃이 피다
 이 밤 빨찌산부대
 나홀만에 천막에 들다!
 내굴냄새 왜 그리도 구수하고
 모닥불도 불꽃채로 품속에 꺼안을듯,
 이날밤 대장이 든 천막엔
 새벽까지 등불이 가물가물…
 하더니 아침엔 눈보라치는데
 정치공작원 철호 먼길 떠났다
 전송하는 대장의 말—
 《철호 조심하오! 민소!》
 덩썩 틀어쥐는 대장의 손길
 심장속에 해발을 일으켜라,
 해는 눈보라속에 숨어있어도
 추위는 박달같이 땅을 얼궜도—

7

눈보라… 눈보라…
 겨울이 마지막 악을 쓴다
 무엇이냐 찾는듯 골짜기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도
 잣술을 뒤잡아흔들며
 잉—잉 통곡치누나…
 자작나무 휘여잡고
 못살겠다 몸부림치다가도
 노한 짐승같이 절벽에 달려드누나…
 절벽에 달려들어서
 쳐부시고 덩굴고 물어뜯다가는
 산중에 올라 미친듯 아우성치며
 하늘도 땅도 휩쓸어가지고
 동남으로 줄달음치누나!
 눈보라… 눈보라…
 네야 산 넘고 골 지나 또 지나
 압록강까지 이르리라!
 너를 동무삼아
 철호 저 산 넘으리!
 압록을 건너 조상의 땅 밟으리!
 눈보라! 눈보라!
 듣느냐?

너는야 철호를 도와주거라—
 너도 장백의 눈보라 아니냐!
 철호는 멀리도 간단다
 국경선 H시도 그의 길에 놓였고
 성진 함흥도 가야만 되고
 너 장백의 눈보라야!
 불어 또 불어 철호를 감추라—
 왜놈들을 기절케 하라,
 불어 또 불어 철호를 건네우라
 압록강을 건네우라!

제 2 장

1

안개 내린다—
 산촌에 저녁안개 내린다
 어둠을 거느족이 이끌고
 길잡이도 없이 한자옥 두자옥
 화전골 오솔길을 더듬어
 저녁안개 두메로 내린다
 안개 내린다—
 흰 양의 떼인양 꿈틀거리며
 사발봉 츄렁바위에 쓰다듬다가
 남몰래 슬며시
 술발에 숨어들더니
 그래도 마을에 내려서
 밤이라든 편히나 쉬려는듯
 안개 내린다—
 백두산 안개 내린다!

2

《에그! 벌써 저무는데—》
 칙뿌리 캐는 꽃분이 말소리,
 저물어도 캐야만 될 그 칙뿌리
 저녁가마에 맨 물이 소품치려니,
 쌀독에 거미줄 친지도 벌써 그 며칠
 손꼽아 헤여서는 무엇하리!
 《에그! 벌써 저무는데!》
 그래도 캐야만 될 꽃분의 신세
 저녁도 아침도 칙뿌리로 비제비거니,
 어둠이 대지를 덮으려 한다
 날새도 술잎새로 날아든다
 마을이 안개에 잠기었다
 그래도 바구니는 채워야 될 꽃분이 신세—

3

아아 칙뿌리! 칙뿌리!
 이 나라의 산기슭에서
 봄이면 봄마다 어김도 없이
 꽃은 피고 나비는 넘나들어
 터질듯이 퐁퐁 부은 두다리 끄울며
 바구니 든 아낙네들이 왜 헤맸느냐?

백성이 한평생 칙닝쿨에 얹히었거니
 이 나라에 칙뿌리 많은 죄이드뇨?
 음식내에 치워 사람은 쓰러져도
 크나큰 창고, 넓다란 역장과 항구엔
 산더미같이 쌀이 쌓여
 현해탄을 바라고있었으니
 실어간놈 뉘며 먹은놈 그 뉘냐?
 아아, 칙뿌리! 칙뿌리!
 백성은 네게도 목숨 못단 때 많았거니
 이 나라에 네가 적은 죄이드뇨?

4

까마귀 날아지난다—
 까옥—까옥—
 꽃분이를 굶어보며—
 까옥—까옥—
 《에그! 가야지!》 꽃분이 일어선다
 한손으로 이슬에 적신 치마자락
 다른 손엔 어둠이 드러누운 바구니

안개 헤치며 오솔길을 내려온다,
 술발도 어둑어둑
 맘속도 무시무시
 이때 그림자인듯 언뜻—
 술발에서 사나이 나온다
 《에구! 웬 사람인가?》
 어느덧 꺼렇게 길 막는다
 도깨빈듯 꺼렇게 길 막는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5

《아가씨, 김운칠이라 아시는지?》
 가슴속엔 돌멩이 떨어진듯
 그래도 처녀의 시선은 빨랐으니
 해별에 타고탄 사나이의 낮
 처녀의 마음 꿰뚫는 그 시선—
 《김운칠? 저의 아버지인데...》
 의문에 질린 처녀의 기색
 《아, 그럼 당신은 꽃분이?》
 처녀의 빛나는 두눈동자
 《아, 이것도 천운이라 할가...》
 사나이 부르짖으며
 휘익 술발으로 돌아서더니

난데없는 뼈꼭소리 높았다—
 뼈 꼭—뼈 꼭—
 잠잠하던 술발도 기쁘게 화답한다—
 또 술발속에서 나오는 두 사나이

6

소나무뒤에 숨어앉은 네사람—
 한사람은 철호였으니—
 눈보라속에 먼먼길 떠나더니

어느때 어느곳에 갔다가
무슨 일 하다가
양지쪽 잔디 언덕마냥
파—란 꿈속에 포근하고
진달래아지에 봄 맺히는 이때
웬 짐작 짙어지고
술개골에 왔고?
산이면 몇이나 넘었고
밤길은 얼마나 걸었던고?
두어라, 물어선 무엇하리,
안물은들 모르랴!
다른 사람은 중로인—
이밤으로 약재 곁메고
홍산으로 갈 함홍 로동자—
홍산속엔 이름없는 세 마을 있다네
그 마을엔 병원도 있는데
병자도 의사도
《동무》라 서로 부른다네—
또 다른 사람은 철호의 련락원—
이 밤으로 H시로 가야 될
어느때나 웃음 잘 웃고 노래 잘하는
어느때나 《아리랑고개》 넘는다는
영남이란 열여섯의 소년,

7

《나는 박철호라 부르우,
얼마나 피로우시우?》
길 막던 사나이의 첫말,
술발은 어둑해져도
꽃분의 뺨엔 붉은 노을—
《아이고! 철호동무!》
가늘게 속삭일뿐
처녀는 면목도 모르며
한해나 그의 지도 받았나—
삐라도 찍어보내고
피복도 홍산으로 보내고

중년은 되리라 한 그—
그는 새파란 청년,
강직하고도 인자스런 모습
호협한 정열에 끓는 눈—
(스물셋이나 되었을가?)
머리속이는 처녀의 생각
떠날 동무들께 마지막 부탁하고
술개골에 머문다면서
《꽃분동무,
등사기 멀리 있수?》
철호의 묻는 말
《예, 녀려 마옵소!》
꽃분의 대답,
샘터 돌담불에 감춘 등사기
어두워지면 가져오리라—
꽃분이 생각한다
《자, 그러면 동무들!》
철호 일어서며 말한다

마을은 잠든듯
젖빛 숨을 막 쓰고
오로지 순사주재소 높다란 대문간만
우독이 상 찌프리고
마을을 훑어보는듯
어둠은 산촌을 누르며 막 들어서는데
화전골 술밭속엔

네사람의 말없는 리별
《자, 그러면…》
마음들이 엉성키는 그 악수
그리곤 심장의 벽을 툭 울리는
리별의 첫 발자취소리!
전우들의 악수—
그것은 싸움의 맹세였다,
승리의 신념이었다
우리의 동무들이
그렇게 악수하고
탄우속으로 뛰어들었고
사지에 선뜻 들어섰다
그렇게 악수하고
감옥에 뒤몰려갔고
교수대에 태연히 올라섰다
아아, 어린애의 웃음같이도 깨끗하고
어머니의 사랑같이 꾸준하고
의의 선혈같이 빨간
적도의 태양같이 열렬한
충직한 전우의 그 악수!...

제 3 장

1

머나먼 옛날
백두산 포수막이
жат술밭에 숨어있는곳—
소리개 많다 하여 술개골,
하나 그렇게 많던 소리개도
그림자까지 찾을길 없어지고
사발봉우엔 외가마귀 앉아
두메를 하소연하듯 울고만 있어라!
옛날엔 범 잡는 포수들이
저녁이면 모닥불옆에 모여앉아
래일의 희망을 뗏뗏이 그리며
화성대 닦고 창끝 베풀었으니!
그러나 조상의 녹슨 화성대도
귀뿌리 어루만지며 주재소에 바치고
포수의 후손들은
검둥이 화전농이 되었다

2

세상에서 떨어져나간 술개골—
이 마을에 김윤철이 산다
피투성이 《3.1》을 다시 맞은 해 봄

안해도 왜놈들의 못매에 죽고
 의병들도 두만강 건넌을제
 참나무통에 의의 총 감추고—
 품팔이로 이곳저곳—
 몇해인가 보내다가
 이 술개굴에 화전농이 되었다
 해산에 있는 어린 딸 데려다가
 분노도 희망도 두메의 흙속에 묻고
 그날그날 보내더니
 지난해 어느때부터
 새 희망 새힘 얻었다
 그것은
 술개굴에 이런 전설 돌던 때—
 《백두산속엔 크나큰 굴,
 해도 달도 있고 별도 반짝이는
 넓으나넓은 굴 있는데
 그속에선 용사 수만이 장검을 간다고,
 장검을 바위돌에 갈면서
 령 내리기만 기다린다고,
 때가 되면 령이 내리고,
 령만 내리면
 석문이 좌악 열리고
 석문만 열리면
 용사들이 벼락같이 쏟아나오고
 용사들만 쏟아나오면
 이 땅에 해방전이 일어난다고
 왜놈들을 쳐부시리라고—》
 이때부터 꽃분이도
 철호의 지도 받았고
 이때부터 백두산을 바라보면
 마르고 쪼들린 마음속에
 오월의 대하인양 격랑이 도도

3

백두산! 백두산!
 너, 세기의 증견자야!
 청기스한의 들떠우는 말발굽도
 도요도미히데요시의 피물은 칼도
 너의 가슴에 잊히지 않은 상처를 남겼고

오백년 왕업도
 사신의 두어깨에 치욕의 짐이 되어
 너의 등골에 모멸의 발자욱 치며
 해마다 압록을 건너야만 될 때도
 인민만은 자유의 해불을 쳐들고
 흥경래의 창기를 뒤따랐고
 갑오의 싸움을 펼쳤다
 허다가 반만년 다듬기운 이 땅이
 왜적의 독아에 울크러질제
 백두야, 너도 가슴 막히여
 숙연히 머리숙이였지!
 그러나 인민만은 봉화를 일으켜
 칼을 들고 의병이 일어났고
 피를 들고 《3.1》이 일어났다
 파업의 굴뚝에 분노 서리우고

《소작》을 안고 주림이 통곡칠 때
 또 송화강 물결까지도
 왜적의 그림자에 거칠어지고
 만리장성도 놈들의 멸시에 맞아
 조약돌로 덩굴 때
 이 나라의 빨찌산들이 일어나
 반항의 기치를 피로 물들이거니
 아, 아, 백두야, 네 얼마나
 동해의 날뛰는 파도인양
 격분에 가슴을 떨면서
 바다속 섬나라 저 원썩을—
 하늘아래 한가지 못살 저 원썩을
 피어린 눈으로 노렸느냐!

4

꽃갈다고 꽃
 분같이 희다고 분—
 꽃분의 어린때는
 해산 어느 마을에서 지냈다
 술개굴로 온지도 십여년—
 학교라곤 구경도 못한 꽃분이
 허나 기나긴 겨울밤은 한글의 밤—
 아버지의 가르침 받아
 손짜래에 때묻고 모지라진
 몇해전 《신녀성》도 쉽게 보았다
 임당수 깊은 물에
 심청이를 버린 그 배사공들이
 한없이 야속하다 눈물도 지었고
 드덜기 캐면서도
 신관사또 변학도의 목 버이노라
 중동을 찍어 동맹이도 쳤다
 때로는 아버지의 구슬픈 이야기—
 그것은 소녀의 가슴속에
 세월은 흘러도 더 피여오르는
 불멸의 불덩이!

5

기미년 《토벌》에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그렇게 기다리던 보리밥도 못받고…
 어떤 때는 치받치는 어머니 생각
 온 마음을 비트는듯 조이는듯—
 《어떻게 원썩 갇을가!》
 꽃분이 온몸 떨었다
 꿈속이라도 잠꼬대 피하려고
 혀 물어끓어 병어리 되고
 대사의 비밀을 죽음으로 감추며
 고문대에 매인채 소리없이 죽어간
 그 이름모를 청년—
 《실루 그런 오빠나 있었으면!》
 꽃분이 한숨지었다
 빨찌산 남편을 천정에 감추고
 놈들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남편이 알면 뛰어내릴가
 한마디 신음도 안낸 그 마을 아낙네—

《아, 나도 그래리라!》
남몰래 꽃분이 맹세했다!

6

산촌의 밤—
마을집 이구석저구석에서
모지라빠진 뒤웅박같은 두메의 삶이
누덕밑에서 어지러운 꿈자리 퍼는
밤에도 4월의 한밤!
물레방아소리도 그쳤다—
마지막 물레방아소리…
굶주리는 마음을 조상하듯
밤새 개울물줄기 외로이 부여잡고
목놓아 흐느껴울던 그 소리…
그래도 두메의 외딴 오막살이 한채엔
이 밤이 삶의 밤, 투쟁의 밤—
철호와 꽃분이
마지막 선포문 찍는다
이제 백부만 더 찍으면 그만,
래일아침엔 철호 떠나리
이때—
밖에서 가벼운 발자취소리—
온몸에 바늘이 돋는듯,

포장 내린 창박에서
수직 서던 아버지의 숨겨운 소리—
《꽃분아! 불 꺼라!》
캄캄한 방안,
어느새 철호는 등사기와 선포문 안고—
《꽃분이! 뒤문 여우!》
그러나 벌써 무거운 발자욱소리 들렸다—
가슴을 으스스뜨리는 발자욱소리
심장이 골풀이치다 기절한듯—
꽃분이 한자리에 서있다
《나가면 체포된다!》—머리에 언뜻,
《어쩔가?》 순간은 천년인듯!

7

다음순간…
신념과 압력에 찬 꽃분의 말—
《철호 이불 쓰고 눕소!
아버지도 정주에!》
어느새에 자리 퍼지고
철호도 등사기도 빼라도
이불밑에 들었다
밖에선 건방진 순사의 반말—
《여보 령감! 자나?》
《…》
《이 두상 웬 잠을!》

《그게… 뉘기요?》
꽃분의 목소리 잠내난다
허면서도 그는 저고리 벗었다
창문에 포장 살짝 벗기며—
《가만 있습소… 불을 켜고…》
《아빨사, 등잔 쏘았네!》
(등잔은 걸린대로 있었다)
《에그! 석유냄새야!》
(등사유냄새였다)
뺨해진 창문에 비친 그림자—
또렷이 나타난 처녀의 젖가슴
그것은 순사의 눈썹리 뺨다,
능청스런 꽃분의 말—
《가만 있습소…내 옷 입고…》
주섬주섬 방안에 흘러진 선포문
철호의 이불속에 들었다
《나리님, 들어오옵소》 꽃분이 문 연다

8

《에잇! 냄새… 이건 누구야?》
《내… 저의 새서방이요…》
《새서방? 너 시집 가?》
계집년이 초저녁부터 끼고누워…》
《나리님두… 초저녁이라니…》
꽃분이 웃으며 말한다
《잡말 말고 두상에게 일러!
래일아침 주재소로 오라구》
아니꼽게 방안을 훑어보고
획 돌아서는 순사,
그 발자취소리도 사라졌을 때
불붙는 낮을 두손으로 막으며
꽃분이 주저앉는다
감격에 말없이 일어난 철호에게
《아이고 참! 용서하옵소!》
머리숙이고 부엌으로 나간다
방안에 홀로 남은 철호
감격에 떨리는 입술로
《꽃분동무!》
맘속으로 부르짖고,
맘속으로 합장하고, 무릎 꿇고—
《참다운 전우여!
이 나라의 귀여운 딸이여!》
밤은 깊어도 가누나
창문을 사이 두고
밤은 깊어깊어 한밤에 드누나…
이 한밤
철호 길 떠났다…

(다음호에 이음)

어머니

김철

내 이제는 다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때도 어머니
피로울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 번한 잘못까지도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잠결에도 그품을 더듬어 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밤깊도록
내 얼굴에 머물러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나니
이 어머니 정녕 나를 안아 젖먹여준
그 어머니인가

내 조용히 눈길을 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쳐다보노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 어머니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위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안아키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나를 굶어 보나니
그시선 한번 강토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의 천리마 네굽을 안고 나는
아 이런 어머니를
내 예적 아이적목소리로 불러왔던가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 있었던가

송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이

그러나 어이하라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다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로 다 말아 안아주는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인류력사 100만년에
수억만의 어머니들이

그리도 애달프게 고달하던 아침이
그대의 예지, 그대의신념, 그대의 필승불패의
향도를 따라
이 땅우에 찬연히 밝아왔나니
응석과 어리광으로만으로야 어찌
그대의 사려깊은 눈길을 마주볼수 있으랴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대 훌륭한 스승의 시선
그대 로숙한 사령관의 안광이
저 멀리 내다보이는
미래의 언덕으로 내걸으리라-
그대 나를 위하여 마음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 걸으리라

무엇을 아끼라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숭엄하고 존엄깊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 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랴
그대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품에 돌아올
영원한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공화국영웅 리수복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있으랴!

주체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놓은 불멸의 기치

강 진

지금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0돐과 조국해방 50돐을 기념하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해로 맞이하기 위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성, 시대성, 전투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보람찬 환경 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발표 3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을 계기로 새롭게 창작발표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옹계 구현하고있는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이다.

문학예술의 걸출한 영재이시며 주체적문예사상의 완벽한 체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참신하고도 심원한 종자와 고상하고도 방대한 규모의 사상예술성을 가진 대작을 친히 구상하시고 속도전으로

련이어 창작완성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의 자주성문제를 빛나게 구현한 세계적인 걸작으로 되게 하시였다.

참으로 이것은 인류문예사발전에서 특이할만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때로부터 불과 한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제1부~7부까지를 주옥같은 시대적명작으로 완성한 창작경험에 기초하여 그 귀중한 창조성과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시고 문학과 영화, 가극과 연극, 음악과 무용, 미술과 교예 등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시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전환기를 열어놓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1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보여주고있는것처럼 모든 작품들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이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면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이 주체의 혁명관을 구현해야 하는것은 문학예술의 총적사명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있기때문이며 주체의 민족관을 구현해야 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시대적과업이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민족적 숙망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있기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혁명이 제기하는 초미의 시대적요구나 당과 수령이 바라는 절박한 민족적념원을 떠나서는 문학예술작품에 혁명성과 시대성을 옳바르게 구현할 수 없다.

팔십평생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잊으신적이 없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이룩되는 조국통일이라고 늘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기어이 실현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수령님께 우리들이 진정으로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길로 되며 문학예술의 혁명성과 시대성을 실천적으로 구현해나가는 길로 되는것이다.

원래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상 민족의 존엄과 번영을 담보하는 자주성에 관한 문제로서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가에 따라 민족을 이루고있는 모든 개인의 운명도 좌우되는 전 인류사적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지난시기 세계문학예술계에서는 주로 모성애나 남녀간의 사랑문제, 권선징악이나 도덕적량심에 대한 문제 같은것만 인류공동의 주체적관심사로 여겨왔을 뿐 민족의 운명문제를 옳바르게 제기하고 해명한 작품은 별로 없었다. 일부 민족문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지난날의 작품에서는 그 운명문제를 옳바르게 규정할수 있는 철학이 없었던 관계로 정확한 예술적 해답을 줄수 없었다.

오로지 자주성을 사람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보는 주체철학을 가지고있는 우리들만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에서 계속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를 전면에서 제시하고 옳바른 철학적해명을 줄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로작에서는 **《민족과 운명》**의 속편들이

제기하고있는 문제의 인류사적의의와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나 규모의 방대성, 주제해명의 철학적심도에서 단연 세계적인 걸작이라는데 대하여 강조되고있을뿐아니라 역사에 보기도문 다양한 인물군상들의 창조경험도 깊이있게 총화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민족과 운명》을 본보기작품으로 평가하시면서 이 작품이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 조선의 넓과 기상이 내려치는 조선영화의 얼굴이라고 내세워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일관되어있는 기본사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넓이며 조선의 넓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여기에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조선영화의 얼굴로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다부작예술영화는 그 제명자체가 말해주고 있는것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를 각계층인민들의 개인적인 운명과 결부시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제기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종자를 새롭게 제기하고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사랑의 품속에서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어야 개인의 운명도 빛나게 해결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곡절많은 인간들의 각이한 운명선을 통하여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문예사에서는 최현덕과 같이 반민족, 《반공》의 최선두에 서있던 인간이 인생말년에 이르러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겨서야 한평생 지켜온 《신념》을 단호히 버리고 거대한 사상전환을 이룩하고 성격형상을 창조한 작품이 없었다. 또한 차흥기와 같이 오래동안 《반공》 용사로 행세해온 거물급의 《호남아》가 파썸독재자의 비렬하고 악랄한 음모책동을 박차고 위대한 수령님의 해발아래서 재생의 거보를 내딛게 되는 극적인 형상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작품은 수십년의 역사적과정을 국내는 물론 세계의 여러 나라를 무대로하여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놓으면서도 그것을 극적으로 집약화하여 형상의 폭과 깊이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고전적로작에서 새롭게 밝혀주신 형상원리에 따라 혁명적수령관을 감명깊게 부각하는데 기본을 두고 작품마다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폭넓고 깊이 있게 구현해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열매라고 말 할수 있다.

로작에서 밝히고있는것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혁명관과 민족관은 어디까지나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생활화폭마다에 생동하게 반영하는 계기들에서 형상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학상요구는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이 강조되도록 혁명적수령관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다. 그것은 혁명적수령관이 우리 인민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우리 모두의 사상과 리념에 관통되어있는 근본핵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앞으로 《민족과 운명》의 편속편을 비롯한 새 작품창작에서는 각이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다양한 인간을 그리면서도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는 원리를 옳게 지켜나가야 한다.

로작에서는 이러한 혁명적수령관의 구현원리와 함께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생동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인간생활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립장에서 분석하고 해결할데 대한 요구도 밝혀지고있으며 혁명적락관주의를 깊이있게 구현할데 대한 요구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원썬들의 책동으로 정세가 긴장하고 복잡할수록 더욱 절박하게 제기된다.

우리는 자기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확신할 때 혁명적락관주의가 스스로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문학형상을 통하여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져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은 문학예술의 혁명성, 전투성을 높이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의 하나로 된다.

이밖에도 로작에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의 미학관과 문예관으로 튼튼히 무장할데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있는데 이 모든 원리적요구들은 서로 밀접한 련관과 통일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이 형상원리들은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구현될 때에만 문학예술작품들에서 민족의 운명문제를 옳게 제기하고 그에 정확한 예술적해명을 줄수 있으며 문학예술작품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수 있게 한다.

2

오늘 문학예술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변천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탐구하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하며 우리 식 창작지도체제와 창조체제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동시에 창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자질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에서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나라의 새로운 현실적조건에 맞게 이 모든 창작실천상요구들과 방도들을 옳게 실현

해 나갈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의 현실은 문학예술부문앞에 종래의 온갖 낡은 관념과 도식을 대담하게 버리고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로작은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면 우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립장과 관점부터 바로 세우고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에서 인간과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 전형화의 방식을 새롭게 탐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서 매일, 매순간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려야 한다. 그러나 적지않은 작가들은 구태의연하게 같은 시대, 같은 계급의 인물가운데서 이사람 저사람의 여러가지 특성을 따다가 한 인물에게 집중시켜 전형이라고 내세우고있다.

창작에서 이런 낡은 틀은 긍정인물에게는 긍정적인간의 좋은 속성만 다 따다붙이고 부정인물에게는 부정적인간의 나쁜 속성만 다 따다붙이는 식으로 인물을 그리는에서 나타나다보니 대체로 긍정인물은 리상화되고 부정인물은 회화되는 편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있는 그대로 깊이 파고들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 꾸며내야 전형을 창조할수 있는것처럼 생각하는 낡은 창작태도의 후파로 산생된것이다.

때문에 로작에서는 어떤 문제를 먼저 설정해놓고 거기에 인물성격과 생활을 기계적으로 틀어맞추는것과 같은 도식주의적경향과 어떤 사상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게 현실자료를 깎아맞추려는 주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할것을 강하게 지적하고있다. 창작에서 낡은 틀은 또한 문학예술의 형태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사를 람용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특성과 행동의 예술인 영화의 특성, 대사의 예술인 연극의 특성을 잘 살릴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시기의 낡은 창작방법과 창작태도를 버리고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를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더욱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과업을 새롭게 밝혀주시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원형과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전형을 창조하며 꾸며낸것보다 실재한 사실의 진실한 내막을 더 중시하는 실화적인 현실탐구방법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이다. 이것은 지금 사실을 더 깊이 알고싶어하는 세계적인 추세일뿐아니라 생동한 현실에서 심오한 철학세계를 찾아낸 작품을

더 좋아하고 조작된 사건보다 산 인간성격의 생동심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여 새로운 창작적양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문학부문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자면 문학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예술의 선행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학부문에서 단단히 짜고들지 않고서는 주체문학예술의 풍년을 마련할수 없다. 그것은 문학이 예술의 선행관인것만큼 문학부문에 풍년이 들어야 예술전반에 풍년이 들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문학부문 일군들과 작가들이 분발하여나서면 그 어떤 높은 평마루도 얼마든지 점령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이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는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는 문학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이 이 백과전서적인 로작을 깊이 연구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해나간다면 주체의 문예관확립문제를 비롯하여

유산과 전통계승문제, 새로운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와 문학의 호상관계문제를 옳게 풀어나갈데 대한 요구와 방도들을 미학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할수 있을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창작에서 어떤 실천적요구들을 구현하며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어떻게 충성으로 받들어나갈것인가를 전면적으로 체득하고 실행해나가게 될것이다.

문학부문에서는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 제시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작가들을 그 실천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최근시기에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게 하였다.

그것은 우선 조국해방전쟁을 최후의 승리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부각한 장편소설 《승리》(김수경작), 위대한 령도자를 잘 받들어모실데 대한 절절한 소원을 감동적으로 형상한 혁명연극 《소원》(서남준 작), 조국통일에 대한 재일교포들의 불타는 념원을 절절하게 그려낸 장편소설 《개이지 않은 하늘》(김병훈 작)을 비롯한 수많은 소설과 극문학작품들에서 표현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사업업적을 새롭게 노래한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

이어》(오영재), 《우리의 령도자》(김만영). 가사 《우리의 **김정일**동지》(류동호) 등 다양한 시가문학작품들에서 표현되고있다. 그리고 공산주의미 풍선구자들의 생동한 극적형상을 창조한 단막희곡들과 수많은 실화문학작품들에서는 원형과 사실자료들에 기초한 우리 문학의 새로운 면모와 충격이 과시되었다.

특히 그것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흥영자편에서는 모순에 찬 차흥기의 운명속에 끼워들어 류달리 심각한 애정불리세계를 체현하고있는 매혹적인 극형상으로 표현되었고 작곡가 윤상민편에서는 40년세월 해외에서 당해온 망국노의 설음을 위대한 수령님과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말끔히 가시고 개인의 가정적행복까지 되찾은 망명객의 심오한 극세계로 감명깊게 형상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원형으로 한 리정모의 형상을 통해서는 민족의 운명과 동떨어져서는 신념과 의지도, 개인의 보람찬 삶과 행복도 지켜낼수 없다는 진리를 투철하게 보여주고있다면 녀성혁명가 허정순의 운명선을 통 해서는 우여곡절에 찬 혁명투쟁의 길에서 올바른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다면 참담게 살수도, 보람있게 투쟁할수도 없다는 진리를 깊이있게 밝혀주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 창조된 귀화한 일본인녀성 림은 정편에서는 위대한 령도자의 인덕정치가 꽃피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이야말로 귀화녀성들의 참된 삶과 존엄을 지켜주는 은혜로운 행복의 보금자리라는것을 극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민족의 자주성구현에서 그 폭과 심도를 새롭게 확대해 나가고있다 .

이 모든 성과들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에 더욱 확고하게 담보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때 영화창작사업에서 부정적작용을 하고있던 자유경쟁식 분산성과 본위주의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미 세워놓았던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환원복구하여 집단주의적창작기풍과 속도전의 원칙을 살려내도록 하시였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도에서 당, 행정, 문예총의 3위1체의 원칙을 지키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구현하는것이다. 그리고 문학예술작품심의사업에서 당적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창작의 전파성을 우리 식대로 조직화, 규범화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우리들은 《민족과 운명》의 창작집단 일썌씨와 창작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 대오의 일심단결을 더 한층 강화하였으며 창작에서 계속 혁명적양양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제 남은것은 창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자질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 문제뿐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작가들은 생활을 깊이 파고드는 철학자, 박식가가 되어야 하고 깨끗한 창작적량심을 가진 청렴하고 결백한 당적인간으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작가들은 시대와 인민대중의 량심의 대변자인 것만큼 자신을 인간적으로 끊임없이 수양하여야 한다. 그해야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될수 있다. 이것은 당조직의 역할에 달려있다. 하기에 로작에서는 끝으로 당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참으로 이 고전적로작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를 디딤돌로 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일대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불멸의 기치로 된다.

가사

장군님은 우리중대 찾아주셨네

림명균

수령님 다녀가신 못잇을 그길로
해안포 우리 중대 찾아주신 장군님
수령님 모습으로 우릴 반겨주시고
수령님 사랑으로 우릴 안아주셨네

수령님 자욱어린 해안포좌지에서
장군님은 기념으로 쌍안경을 주시였네

남기신 그 유흔을 충성다해 지키라고
수령님의 존함을 새기여주시였네

수령님 모시고 사진찍던 자리에서
장군님 우릴 불러 기념사진 찍으셨네
전사들 감격의 더운 눈물 흘리며
장군님을 목숨바쳐 지키리라 맹세했네



건축의 대가

일찌기 어느 한 철학가는 말하기를 《건축은 굳어진 음악이다.》라고 한바 있다.

건축이야말로 예술중에서도 《종합적예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한것은 건축에서도 활동과 조화, 구성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을 안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더구나 오랜 전문교육과 창작실천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건축의 묘미를 깊이 터득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다재다능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건축에 대해서도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심오한 이론과 해박한 식견과 깊은 조예를 가지고계신다.

건축을 알려면 우선 설계를 알아야 하고 설계를 알려면 립체적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앞을 보고도 뒤를 알아야 하며 평면을 보고도 립체적형태를 그려보아야 하는것이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건축예술, 특히 설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무색하리만치 깊은 파악을 가지고계신다.

1975년 10월 22일, 이날 설계부문의 한 책임일군은 이미 그이께 올리였던 어느 대상 건설의 설계에 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그이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열책상에 펼쳐놓은 설계도면앞으로 그를 이끄시며 자신께서는 설계도면을 보는것이 재미있어 시간가는줄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설계도면에 방이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구래여 방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보시면 다 알수있다는 말씀이였다.

일군은 놀라왔다.

사실 설계도면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보기 어려운 복잡한것이다.

알지 못할 점과 갈래많은 선박에 보이는것이

없는 설계도면앞에서 일반적으로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골살부터 찌프리며 풀기 힘든 수학문제앞에 선 학생처럼 골치부터 아프다고 하는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복잡하고 《골치아픈》 설계도면을 보시며 재미있어 시간가는줄 모르겠다고 하실뿐아니라 한마디 설명문마저 달지 말라시니 정녕 얼마나 건축에 관심이 높으시며 능통하신가.

그이께서 처음 건설혁명을 지도하실 때 건축일군들은 사판을 만들어올리기도 했고 평면도, 립면도, 배치도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올리면서 설계를 설명해드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부터는 그이께서 평면도만 보시고서도 립체적형성을 다 알아보시며 설명이나 설명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을뿐아니라 이제 와서는 도면에 방이름을 밝히는것조차 그만두라고 하시는데였다.

어찌나 설계도면에 능통하신지 그이께서는 이 날도 수만평방이나 되는 큰 대상건물의 평면도를 아무런 설명없이 보시였다. 그저 보신데 그치신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미처 착상하지 못한 건물의 내부세부조직에 대해서까지 튕겨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도시건설에서 립체적공간의 형성과 활동의 보장은 예로부터 건축가들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로 되여왔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발전된 시대에 와서 도시건축물들의 립체적공간을 잘 이루는 문제는 사람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며 생활의 편리를 보장하는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수도 평양이 것처럼 훌륭히 건축학적요소들을 다 갖춘 웅장화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그이께서 높은 건축학적 안목과 다문박식한 지식과 식견으로 도시건설의 방향을 밝혀주시고 건설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기때문이다.

창광거리를 건설할 때 일단 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1979년 10월 29일이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날 어느 한 설계집단에서 만들어올린 창광거리형성모형도를 보아주시였다.

모형도를 주의깊이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거리를 새롭게 꾸리려고 애를 쓴것이 알린다, 그런데 아직도 낡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못내 아쉬워하시였다.

그자리에 있던 설계일군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미 경애하는 그이께서 대통로를 따라 앞면만 꾸리고 그 사이사이를 낮고 긴 봉사망건물들로 연결하는 《주변형거리형성방법》을 반대한다고 하신 가르치심따라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건물배치를 하느라고 하였는데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이께서는 미소어린 시선으로 일군을 바라보시며 비록 종전처럼 길고 낮은 봉사망건물들로 연결해놓지는 않았지만 건물과 건물사이를 지내 좁게 해놓으니 종래의 낡은 거리형성방법과 별로 다를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새로 짓는 집들은 몸통이 크지 않게 높이 짓되 드문드문 배치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거리도 새롭게 될것이고 천리마거리, 승리거리와도 층층으로, 사이사이로 겹치면서 한덩어리로 잘 조화될것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순간 설계일군의 머리속에는 층층겹겹으로 쌓아 올린 수정봉우리를 연상케 하는 립체적인 건물모양들이 방불히 떠올랐다.

참으로 자기들 건축가들이 생각할수 없었던 새로운 립체적인 거리형성방법이였다.

1979년 12월 5일, 설계가들이 새로 만들어올린 창광거리형성모형을 보아주시던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집들의 층수를 높게 한것은 좋은데 거리가 지내 비좁은 감이 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특히 30층짜리 살림구획형성이 시원치 않다고 지적하시였다.

설계일군은 그만 난처했다.

그이께서 료환선거리형성모형을 검토하시면서 가르쳐주신데 따라 살림집들의 층수를 더 높인것

만큼 건물사이의 간격도 늘였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일군은 당황해하며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다가 살림집들사이의 거리가 비좁은 문제를 해결하자면 집들을 더러 쏘아내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쏘아낸다!》하고 되뇌이시였다.

그러시고는 생각에 잠기시여 료환선거리형성모형의 공간면적을 여러모로 가늠해보시다가 말씀하시였다.

《물론 그렇게 손쉽게 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들의 통을 줄이고 그 배치를 거리쪽 면을 맞출것은 맞추면서 공간면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립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면 옛말에 머리를 쓰면 바늘을 세울 자리에 도 집을 짓는다는 말과 같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손수 거리면에 1횡대로 줄지어 세워놓은 건물모형들을 2~4횡대로 고쳐놓으시고 30층짜리 살림집이 우뚝 서있는 구획에 이르시여서는 집들의 통을 보다 호리호리하게 해주면 거리가 원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그것은 신기한 묘안이였다.

일군이 모형사관에 다가가 조립식으로 만들어놓은 고층건물들의 몸통을 갈라내여 그이께서 지적해주신 자리에 세워놓았다.

그랬더니 고층살림집들사이에 드넓은 공간이 활짝 열려져 답답하던 감은 가뭇없이 사라지는것이였다.

결국 과거 료환선거리에 2층집들이 늘어섰을 때와 똑같은 거리폭인데 더 넓게 보이도록 공간이 이루어졌다.

일군은 그이의 앞이라는것도 잊고 하마트면 환성을 울릴번하였다.

그러는데 경애하는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우리 식 거리형성방법입니다.》

그때의 일을 두고 이름있는 설계가인 그 일군은 이렇게 회상하고있다.

《나는 일생을 설계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해동안 외국류학도 하였고 많은 나라들을

편답하면서 세계에 이름난 건축가들과 재능있는 설계가들도 적지 않게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모형사판을 보시며 전문가들이 생각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를 대번에 발견하시고 그 해결대책을 명철하게 가르쳐주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예지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이분이시야말로 세상에 다시 없는 건축의 영재이시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면서 우리 나라 건설혁명에서의 승리는 벌써 확정적이라는 신심이 가슴가득히 고여오름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후 친애하는 그이께서 밝혀주신 새롭고 독창적인 우리 식 거리형성방법대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창광거리가 완공되었다.

1980년 12월 16일 완공된 창광거리를 보시기 위하여 30층살림집옥상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옛날 룡환선거리는 뒤꼍목처럼 좁았는데 새 거리는 이렇게 넓게 보이니 어떻게 된일인가, 부지를 더 늘구었는가고 물으시었다.

부지를 늘굴이 없이 그 자리에다 건설했다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글썽 아무리 봐도 그자린 그자리인데 거리형성을 새로운 식으로 해놓으니 아무리 높은 집을 지어도 땅도 하늘도 활짝 열려져보인다고, 이게 바로 자신께서 바라시던 우리 식 거리형성방법이라고 하시며 못내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건축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창광거리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평양시를 건축학적요구에 맞게 균형이 잡히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룡동과 립체적공간이 조성된 도시로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비범한 건축학적예지와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창광거리 30층 살림집에 이어 보통벌에 40층의 살림집들과 높이 300여미터에 달하는 105층의 류경호텔이 솟구쳐 올랐으며 립체미의 극치를 이루는 광복거리가 솟아난데 이어 오늘은 통일거리가 일떠섰다.

그리하여 평양의 모습은 날을 따라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달라져가고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또한 전문가들이상의 해박한 식견을 지니시고 모든 건축물을 최상의 예술적결작으로 완성하시는 건축의 거장입니다.

만수대의사당을 처음 건설하던 때였다.

그때 우리 나라의 유능한 건설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많이 공사에 참가하여 기술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높은 건축학적요구에 도저히 따를수 없는것이였다.

어느날 집무실에 만수대의사당 건설을 맡은 일군들을 부르시여 실패를 룡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연회장바닥에 쪽무이널바닥을 깔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시었다.

그것을 아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건물에 쪽무이널바닥을 까는것은 오래전부터 《고전형》으로 일러왔지만 이제는 퇴락한것이며 점차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있는것이 추세라고 하시면서 쪽무이바닥창식이 처음은 좋지만 오래 있으면 여러모로 나쁘다고 자세히 설명해주시었다.

그러시고나서 우리 식으로 우리 나라에 흔한 옥돌로 인조석 미장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치시었다.

그 말씀대로 옥돌로 인조석미장을 하였더니 아나나다를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꽃발속의 연회장》 같은 희한한 황홀경이 펼쳐졌다.

그로부터 얼마후 친애하는 그이께서 또다시 만수대의사당 건설장을 찾으시었다.

꽃무늬장식을 한 연회장을 흠족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천정으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저것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구만.》

그이께서 천정의 어느 한 아치부분을 가리키시며 하시는 말씀이였다.

한 책임일군이 다가가 그동안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애써온데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이런 이야기였다.

...며칠전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 방에 들리시여 아치부분에 배가 나왔다고 지적하시고 돌아가시였기에 일군들은 곧 설계도면을 가져다놓고 따져보았다.

그러나 설계에는 결함이 없었다.

혹시 시공이 잘못되었나 해서 측량기를 세워놓고 그 부분을 여러번 검토해보았으나 시공에서도 역시 아무런 오차가 없었다.

그래서 아직 아치부분에 손을 대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나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측량기가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측량기로 들여다보아도 오차는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저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찬찬히 뜯어보니 그것은 설계와 시공은 다 제대로 되어있으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배가 나온것처럼 보이는 《착각현상》이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과 함께 경탄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착각현상》이라 하여도 고쳐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것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건설부문의 기술 일군들도 찾아내지 못한 직선과 반원의 사립점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착각현상》까지도 발견하시

여 완벽을 기하게 하시였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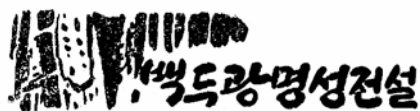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 국가수반은 만수대의사당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돌아보고나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슨 분야를 전공 하였습니다습니까?

나는 그이께서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는가 생각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야말로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비범한 재능을 지니신 건축의 영재이십니다.》

그 국가수반의 찬탄은 건축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친애하는 그이에 대한 온 인류의 응당한 평가이며 열렬한 칭송이였다.



진달래답사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1981년 5월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묘향산에 대한 력사적인 등산실무시찰을 진행하시였다.

실무시찰은 연 닷새동안 묘향산 상원동지구와 만폭동지구, 하비로지구로 이어졌다.

이때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끄신 등산실무답사단을 《진달래답사단》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원래부터 《진달래답사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등산실무시찰을 진행하시였는지 아니면 친애하는 그이께서 묘향산에 오셨다 가신후에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달았는지 사적자료를 통해서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묘향산사람들속에서는 진달래답사단의 이름과 관련하여 이런 유래전설이 전해지고있다.

1981년 5월 1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실무답사단을 이끄시고 묘향산 만폭동으로 오르시던 날이였다. 날씨는 몹시 흐려 금방이라도 한소나기 쏟아질듯싶었다.

일행이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며 등산길에 올라 유선폭포에 이르렀을 때였다. 찌뿌둥하던 곳은

날씨는 끝내 비줄기를 몰아오고야 말았다.

목적지는 비선폭포여서 아직 길은 멀고 퍼그나 위험하였다.

비에 젖은 바위는 미끄럽기 그지없어 등산을 계속한다는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지난날에는 길이 험하여 유선폭포에 왔던 사람들이 비선폭포로 갈 때는 지척에 두고도 흔히 10리길을 에돌아가거나 아예 그만두고 되돌아서 가기가 일쑤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오신 이때에도 비선폭포로 곧바로 가는 길은 아직 채 개척하지 못하였었다.

바위에다 몇군데 열은 발흠이나 파고 나무사다리를 련결시켜놓긴 하였지만 묘향산안내자조차도 그리로는 올라보지 않아 별로 표상을 못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비까지 내려 미끄러우니 안전란간도 없는 바위길이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아 유선폭포의 맑고 푸른 담소와 아름다운 폭포들은 아직 이름조차 없었다.

안내자와 수행한 일군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안녕을 념려하여 더는 오르지 말것을 간청드렸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제 곧 비는 뗏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내물을 건너 칼등같은 벼랑길로 앞장서 오르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숭고한 모습앞에서 사람들은 감격에 젖어 어깨를 들먹이였다. 장수바위밑으로 굽이쳐 흘러내리는 폭포수도 그이의 은정에 눈물을 흘리는듯 물소리는 흐느낌소리처럼 들리었다.

만폭동의 이끼푸른 단애절벽도 깊은 굽에 쏟아지는 폭포수도 그이의 은정이 고마와 환호하며 설레이는듯싶었다.

그이후 이 고장 사람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몸소 앞장에 서시여 허리를 굽히시고 지나가신 장수바위밑의 폭포수와 푸른 담소에 《은정폭포》와 《사랑담》이라는 뜻깊은 이름을 달았다.

이윽고 실무담당사단은 비선폭포에 이르렀다.

그이께서 비선폭포밑에 올라서시는 순간이였다.

신기하게도 갑자기 푸른 하늘이 열리고 백금같은 태양이 눈부신 해빛을 찬란히 뿌리었다.

올려다보니 푸른 하늘가에서 물줄기가 사태를 이룬듯 하늘땅을 진감하며 부서져내렸다.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휘뿌러지는 물방울과 물안개속에 칠색령룡한 무지개가 하늘중천에 다리를 놓았다. 전설에 무릉폭포에 내려왔던 팔선녀가 유선폭포에서 노닐다가 비선폭포의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곳이 바로 여기인것 이다.

그래서 비선폭포를 일명 선녀들이 날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에서 《비천》 폭포라고도 부른다.

하늘이 낸 위인을 비선폭포에 모시여 천지가 조화를 부리는가 흐렸던 하늘이 갑자기 개이고 하늘 중천에 아름다운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폭포수 서늘한데 어디선가 훈풍에 그윽한 향기가 실려왔다.

비선대에 올라 바라보니 놀랍게도 진달래와 철쭉이 붉게 피여 답사단을 반겨 맞아주고있었다.

《아!- 진달래!》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립하가 지난지 오래고 이제 소만이 박두했는데 여적 진달래가 피여있으니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여기 묘향산 비선대는 해발 600미터로서 진달래는 4월초에 피기 시작하여 늦어서 5월초면 꽃은 지고 잎이 피어나는것이다. 그런데 왜 이해만

은 립하가 훨씬 지난 하순까지 꽃망울을 아꼈다가 인제야 피는것인가! 참으로 희귀한 일이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친애하는 그이는 하늘이 낸 분이여서 그이께서 오실 날을 산천초목도 알고 여직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꽃다발로 피어난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묘향산에서 약초를 캐며 한생을 살아왔다는 한로인의 말에 의하면 비선대근방에서 진달래가 5월 하순에 피어난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어찌 산천초목이라 무심하다 하겠는가.

그이께서 묘향산에 대한 실무시찰을 하신 첫날 흐렸던 하늘이 맑게 개이고 비선대에 진달래가 활짝 피어난것은 다 천지조화라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이 고장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경애하는 그이께서 오신 5월 18일이 보통날이 아니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무산지구에서 진출하셨을 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진달래를 한아름 꺾어 장군님께 드리여 그토록 조국의 정서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하신 그날이 바로 1939년 5월 18일인것이다.

5월 18일! 이날 묘향산의 진달래는 백두산의 진달래와 같이 피어난것이었다.

더우기 신기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셨다 가신 다음부터 비선대의 진달래는 해마다 꽃망울을 아꼈다가 5월 18일에 피어나군 하였는데 이때면 백두산에도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는것이다.

어느 한 식물학자는 근래에 와서 백두산 압록강 5호물동지구와 묘향산 비선대지구의 해발고가 매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진달래가 같은 시기에 계속 피어나는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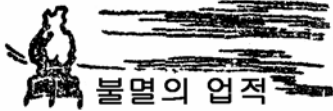
식물학적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든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5월 18일 경애하는 그이께서 묘향산 만폭동 비선대에 오르셨을 때 진달래가 피어나 그이를 반겨준 사실을 듣고는 머리를 끄덕이군 한다.

사람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그리는 친애하는 그이의 마음이 이런 기적은 일으킨것이라고 여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묘향산에 대한 실무시찰의 첫날은 이렇듯 신기한 천기조화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창조되고있다.

이 고장 사람들은 그후부터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끄신 실무시찰담당사단을 《진달래답사단》이라는 뜻깊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당을 따라 나아가는 강력한 부대가 되여야 한다시며

1994년 2월 4일 아침부터 내리던 눈은 오전에 멎고 날씨는 예상외로 푸근하였다. 이 며칠간은 레년에 없이 따뜻한 날이 계속되었다. 아마도 절기가 앞당겨지려는 모양이다.

민족최대의 명절은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 인민 모두는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하여 친애하는 그이께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쁨을 드리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아낌없는 힘을 다 바치고있었다.

이들과 함께 만수대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도 그이께 보여드릴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성의껏 준비하고있었다. 바로 자신들이 준비한 그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경애하는 그이께 보여드리게 된 것이다.

이날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아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반적으로 수준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합창을 비롯한 여러 노래들을 잘 형상화해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가 오늘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제일 기본것은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비롯하여 예술부문 대학을 나온 배우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것입니다.》

이어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대렬이 대학졸업생들로 꾸러진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윽고 생각에서 깨어나신 그이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해방직후에는 우리 나라에 지식인이 얼마안되어 여기저기서 한사람한사람 데려왔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은 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대렬이 대학졸업생들로 튼튼히 꾸러졌다고 더없이 만족스러워하시는 것이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지식인들을 여기저기에서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시고 키우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시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먼일로 되었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말할수 없는 걱정으로 하여 가슴들먹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예술인 후비육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던가. 생

각할수록 가슴뜨거워오름을 어찌할수 없었다.

창작가, 예술인들을 둘러보시던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이 힘은 넣어 지식인들을 키워낸것이 지금 큰 은을 내고있으며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앞으로 더 잘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더없이 기뻐하시는데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예술인후비가 든든하며 그동안 우리가 예술인들을 키워내는 데 힘을 넣은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우리 당이 가리키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확신에 넘치시며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가슴들먹이고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충성의 한길로 나아가는 그길에는 오직 승리의 한길만이 약속되어있으며 크나큰 영광만이 차례진다는것을 지난 기간 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느끼였으며 절감하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또다시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심려어린 어조로 창작가들이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보고 탐구할 대신 예술적형상을 한다고 하면서 덮어놓고 현실을 미화하면 본의아니게 결함을 범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현상을 어떻게 그려내는가 하는것은 결국 창작가가 로동계급적관점과 립장에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순간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이 창작한 작품들속에 현실을 진실하지 못하게 미화분식한것들이 없는가를 돌이켜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심오한 뜻이 담긴 말씀대로 로동계급적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그려내리라 마음속 결심을 다지고 또 다졌다.

한동안 작곡가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작곡가들이 편곡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노래의 선율이 아무리 좋아도 편곡을 잘하지 못하면 선율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시며 노래는 편곡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좋은 노래로도 될수 있고 좋지 못한 노래로도 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시대앞에 지닌 작곡가의 영예로운 임무에 대하여 뜻깊게 말씀하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

을 받는 모든 작곡가들의 마음은 한없는 걱정으로 끓어올랐다. 그들은 노래의 편곡을 더 잘하여 근로인민앞에 지닌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리라 마음속결의를 다졌다.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만수대예술단이 당의 령도밑에 많은 일을 하였으며 힘있는 예술인부대로 자라났는데 오늘 공연을 보니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당을 따라 나아가는 강력한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단평

이것이 시대의 서정이다

-가요 《정일봉의 우뢰소리》의 가사형상을 론함-

지금 《정일봉의 우뢰소리》는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온 세계를 진감하고있다. 위대한 시대의 서정이 혁명적량만으로 굽이치는 이 노래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투쟁이 있는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곳에는 혁명적량만이 차넘치고 전투적열정이 끓어번지기 마련이다.》

가요 《정일봉의 우뢰소리》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신념의 메아리로 높이 울리며 비상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은 노래의 가사형상이 시대의 서정을 깊이있게 개방한데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정일봉의 서정

가사 《정일봉의 우뢰소리》는 시대의 기본흐름과 인민대중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하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노래하고있다. 시가문학에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반영하는것은 시문학의 기본특성을 살리고 그 생명을 담보하는데서 사활적인 미학적 요구이다. 생활에서 환기된 정서를 형상으로 재현한 서정은 감성과 사상적인 지향을 결합시킨 형상적사유의 산물이다.

오늘 정일봉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빛나는 상징으로 자주적인 인류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모습으로 상징되는 정일봉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확신하고있으며 인류는 사회주의위업의

재생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전망하고있다. 이

한없이 크나큰 믿음어린 그이의 말씀에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다.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 신임이면 이보다 더 큰 신임이 또 어데 있으랴.

그들모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자기들에 대한 믿음이 크고 신임이 높을수록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충성으로 받들고 더 힘차게 일해나가리라고 마음속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본사기자

김순림

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기본추세이며 지향이다.

정일봉에 대한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감정은 모두 이러한 시대와 현실과의 관계속에서 우러나온다.

가사 《정일봉의 우뢰소리》의 서정은 이러한 시대적지향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정일봉에 우뢰우니 천하가 드르릉
먹구름은 갈라지고 눈사태 쏟아진다(1절)

정일봉에 우뢰우니 천하가 드르릉
바람은 울부짖고 돌사태 내린다(2절)

3절로 이루어진 가사 1, 2절의 첫 단락들이다. 여기에서 느낄수 있는바와 같이 정일봉의 서정은 매우 위엄있고 장엄하며 격렬하면서도 장쾌하다. 이것이 바로 정일봉이 발산하는 시대의 서정이다.

지금 세계는 매우 침예하고 격동적인 정세에 놓여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인류의 자주위업이 적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류테없이 복잡다단하고 격렬한 정세하에서 과연 사회주의를 재생하고 그 위업을 고수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엄숙한 시대의 물음에 바로 정일봉의 우뢰소리가 천하를 진동하며 대답하고있다.

사회주의의 희망봉, 인류의 희망봉에서 울리는 우뢰소리! 그 우뢰소리에 먹구름은 갈라져 눈사태가 내리고 바람이 울부짖어 돌사태가 내린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발악적인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여지없이 산산이 짓부셔진다. 그 우뢰소리에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조선을 압살하려고 발악적으로 날뛰던 적들이 혼비백산을 한

다.

이 얼마나 장엄한 우뢰소리인가.

가사는 이처럼 정일봉의 서정을 격동적인 시대와 현실과의 관계속에서 개성적으로 개방하면서 그것을 시대의 지향으로 한껏 승화시키고있다.

정일봉의 랑만

가요 《정일봉의 우뢰소리》가 시대의 메아리로 드높이 울리는것은 가사형상에서 시대의 랑만을 감동깊이 체현시킨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인류문화발전과정에 이루어진 랑만주의 수법을 현대생활의 요구와 미감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새로운 랑만주의수법을 적극 탐구해내야 한다.》

우리 문학에 구현되는 랑만주의는 혁명적랑만주의이다. 창작에서 랑만주의수법을 널리 탐구하는것도 혁명적랑만을 강하게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가사 《정일봉의 우뢰소리》는 랑만주의수법을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훌륭히 적용하고있다.

가사에 체현되어있는 정일봉의 랑만-그것은 벌써 《정일봉의 우뢰소리》라는 제명에서부터 암시되고있다.

천하를 진동하는 우뢰소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힘을 내는것으로 표상되어있다. 같은 현실을 놓고도 거기에서 받아안은 감정이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듯이 천둥소리를 놓고도 사람들은 각이한 정서로 감수한다. 가사는 우뢰소리를 랑만적으로 감수하여 노래하고있다.

정일봉에 우뢰우니 천하가 드르릉
새벽하늘 열리고 태양이 솟는다(3절)

여기에서 우리는 려명이 밝아오는 장엄한 해돋이를 본다. 그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려명,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새벽하늘의 장쾌한 모습이다.

3절에 펼쳐진 끝없이 장엄한 이 시적화폭은 1절과 2절에서 제시된 시적정황에 의하여 더욱 대조되며 부각된다. 노호하는 우뢰소리에 갈라지는 먹구름과 쏟아지는 눈사태, 울부짖는 바람과 내리는 돌사태-이 세상에 모든 횡포한것, 모든 악과 암흑의 장막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맞이하는 장엄한 새벽, 여기에 바로 정일봉의 랑만이 있다.

바로 여기에 정일봉의 우뢰소리를 시대의 서정으로 독창적으로 감수한 이 가사의 특출한 성과가 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위대한 장군의 거룩한 모습

정일봉의 서정과 랑만이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참된 시형상으로 되는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위대한 장군, 천출명장의 거룩한 모습을 시

적 화폭으로 훌륭히 창조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 장군이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하늘이 낸 명장, 전설적영웅, 무적필승의 장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이 지구촌을 다스리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실 유일한분이다. 바로 이것이 가사 《정일봉의 우뢰소리》가 격조높이 구가한 문제이다.

김정일장군님 불호령소리에
번개가 내닫는다 골마다 깨어진다(1절)

김정일장군님 신묘한 지략에
적진이 무너진다 원수들 비명친다(2절)

김정일장군님 령도를 따라서
조선은 나아간다 사회주의 나간다(3절)
우뢰소리 우뢰소리 정일봉의 우뢰소리(1, 2, 3절 공통)

지구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 기회주의자들, 사회주의위업의 배신자들 등 인류의 자주위업의 모든 적들을 한손에 거머쥐시고 일격에 짓부셔버리는 력사의 거인, 위대한 장군. 이것이 정일봉의 서정과 랑만적화폭에 부각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다.

가사는 매절의 첫 두행에서 정일봉의 서정과 랑만적정서를 시적화폭으로 펼치고 다음 두행에서 위대한 장군의 모습을 부각하고있다. 그리고 장군의 위용을 우뢰소리에 상징화하여 매 절의 끝단에 《우뢰소리 우뢰소리 정일봉의 우뢰소리》라는 시구를 반복 강조하고있다. 이 가사형상은 참으로 많은 여운을 준다. 많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붕괴와 자본주의 복귀,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꾀변과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고립압살책동...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신묘한 지략에 의하여 역경은 순경으로, 화는 복으로 전환되였다.

우리 장군님의 불호령소리에 지구가 움직이고 온갖 원수들이 전율하며 무릎꿇고 사회주의조선은 당당히 전진한다. ...

가사는 성공하였다.

재삼 덧붙이고싶은것은 성공의 비결이 시대와 현실, 인민의 지향과 념원속에서 정일봉을 미학적으로 감수하고 그 의의를 도출한데 있다. 다시 말하여 시대의 서정을 훌륭히 노래한데 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하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한본새로가 아니라 개성적인 탐구와 사색으로, 다양한 사상감정으로 노래해야 한다. 가사 《정일봉의 우뢰소리》와 같이 시대의 서정을 독창적으로 퍼내는것이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는것을 명심하자.

명당자리

강립석

그대 누구이든
여기 당창건기념탑앞에 와보시라
그리고 저기 대동강건너
만수대언덕을 우러러보시라

그러면
손들어 부르시는 수령님을 뵈울수 있으리
여기
마치와 낫과 붓을 든 억세인 손들과 함께

그 영상 우러르면
귀에 찼찼 들려오리라
아버이수령 님 하시는 말씀
-좋은 인민들입니다
우리는 인민복을 타고났습니다...

가슴 뭉클 젖는 소리 들려오리라
어쩌면 그대 자신인
마치와 낫과 붓의 목소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수령복을 타고났습니다...

아, 하나의 직선상에 놓인
수령님과 인민들의 모습
이 생각깊은 화폭을 두고
그대들 가볍게 말하지 마시라
이 탑의 위치 둘도 없는 명당자리라고

이 어찌
한 도시 한 구역의 화폭만이라

이 화폭은
내 나라 내 조국의
어제와 오늘과 래일의 력사

여기엔 담겨져있다
결어온 우리 당의 50년 력사
여기엔 새겨져있다
끝없이 번영하고 번영할
우리 당의 위대한 력사가

그대들 아시는가
바라볼수록 눈시울 뜨거워지고
마주설수록 가슴 찢어지는 이 화폭
그것이 어떻게 싹트고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그것은 벌써
피눈물 흘리던 비애의 그 나날
싹트고 꽃피었거니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심장에서

인민을 위한 억만리 걸으신 수령님
영원히 인민과 함께 계시라고
수령님 못잇는 인민의 마음
천만년 세월속에 이어가라고
그이께서 잡아주신 영광의 자리

이 력사의 화폭앞에서 그대들
가슴에 안으시라 심장에 새기시라

탑을 세웁니다 외 1 편

홍민식

마치와 낫과 붓-
일심의 대오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
보여드리고싶어
아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리고싶어
탑을 세웁니다

가까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게
늘 우리 모습 바라보시며 안심하시게
여기 만수대 맞은편 대동강기슭에
탑을 세웁니다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더 잘 받들고
더 잘 모시여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한마음

그 마음입니다
다지고 또 다지고 쌓고 또 쌓는
고임돌 하나하나
철근 한가닥한가닥
혼합물 한삽한삽이 그 마음입니다

밤하늘을 태우는 용접의 불보라가
그 마음의 불타이고
얼어드는 물탈을 더웁히는 열기가
그 마음의 끓음입니다

여기서는 자연의 횡포한 힘도
키썰구는 탑앞에 무력합니다
밤에도 쏘고 낮에도 쏘고
눈보라가 지동쳐도 쏘고 쏘아오릅니다

여기서는 건설자가 따로 없습니다

머리 희숙한 로투사도
돌격대젊은이도 휴가병사도
밤마다 찾아오는 처녀도
지원물자 안고오는 할머니도 아이들도...
누구나가 다 건설자입니다

온 건설장이 끓습니다
온 나라가 달려와 뭉칩니다
어버이수령님곁에
더 가까이 있고싶고
영원히 함께 있고싶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싶은
인민의 한마음

탑을 세웁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천년만년 영원히
우리 당을 주체의 당으로 빛내여갈
불같은 맹세
목숨같은 신념과 의지
아, 피더운 심장과 심장을 저 푸른대공에 얹습니
다

이어지는 마음

뭉비며 들끓는
여기 드넓은 기념탑건설장
지원나온 로투사들
젊은날의 기백에 넘쳐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는데...

차마 등을 떠밀지 못하겠네
티끌하나 섞일세라
모래한알 자갈하나
알알이 물로 씻는 옥같은 그 마음
너무나 가슴에 뜨거워

차마 다짐대를 뺏지 못하겠네
빈틈하나 생길세라
쭈뚱히 철근을 엮고
구석구석 물탈을 다지는 초석같은 그 진정
너무나 눈곱에 젖어들어

혁명의 첫 기슭에서 걸음을 땀
그 먼먼 길
수령님을 따라 당을 따라
순간의 변심도 티도 모른 그 일편단심
오늘도 더더욱 불타는...

선뜻 들어서지 못하겠네, 그자리
선뜻 뺏지 못하겠네, 그 다짐대
옥같은 그 마음 초석같은 그 진정없이
넘겨받지 못할
투사들의 넋이 어린 유산같아

아, 뜨거움에 젖는
돌격대원 이 가슴속에
김정일 장군님을 더 잘 받들 충효의 한마음
만년뿌리로 내리네
억년초석으로 굳어 지네

은혜로운 별빛은 멀리 남방에도

조세프 므제마

밤이면 밤마다
별빛이 그리워
목마른 사람 물 찾듯
하늘만 쳐다보던 무게 터 마을에
오늘은 발전소 생겼네
밝은 세상 왔네
집집마다 록음기소리
텔레비존에 마주앉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참밀로 노래하는 마을 되었네
어둠에서 깨어난 우리 잊지 못하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

위도와 경도를 넘어온 빛발
대양과 대륙을 넘어온 향도성의 빛발을
여기 머나먼 남방으로 비쳐든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
남남협조의 훌륭한 꽃을 피웠나니
아프리카사람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김정일**장군님이시여
부디 만년장수하시라

(필자는 탄자니아 아조니-탄자니아농업합영회사 직원임)

탑들이 무너지는 이 세월에...

김석전

깊어지는 생각속에
나는 서있다
평양의 하늘아래 또 하나 일떠서는
당창건기념탑앞에

바라보면 탑이 많은 도시
주체사상탑
전승기념탑
인민군렬사탑
거대한 탑들로 차있는 이 도시

무엇을 말하자고 너는 서는가
마치와 낫과 붓을 추켜든 탑이여
다만 우리 당이 걸어온 반세기를
추억속에 기념하자고 솟아나는가

조용히 귀기울여 듣는다
탑이 말하는 소리-
음산한 구름이 떠도는 서쪽 상공을 가리키며
우리의 기념탑이 말하는 소리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탑들이
그 하늘아래 있었던가
파쑸의 불구름을 밀어내며 싸운
수많은 영웅들의 피와 목숨으로 쌓여진
탑들이 한돌이었던가

한때는 그래도 승리자로 살아
금지높이 바라보던 그 전취물들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붉은 별이 떨어져내릴 때

무너진 사회주의추녀를 붙들고
가슴치며 터치던 사람들의 통곡소리여
아, 피흘리며 찾은
그 고귀한 전취물을 잃자고
수많은 목숨을 바쳤던가

오, 력사의 뼈아픈 교훈을 딛고
시대의 창공에 솟아오른 당창건기념탑이여
우리 당의 강대함을
높이 든 마치와 낫과 붓으로
만방에 보여주는 조선의 탑이여

인민을 혁명의 주체로 믿고
인민의 심장에 뿌리를 내려
걸음마다 승전의 북을 울리고
자욱마다 승리자의 탐을 남겨온
조선로동당의 반세기가 이 탑에 새겨지나니

나는 듣는다 탑이 말하는 소리
받아서 웨치노라 탑이 들려준 소리
당이 강하여 인민이 강하고
당이 강하여 조국도 강성한다는
이 진리를 기발처럼 추켜들고
조선의 하늘가엔 탑이 솟는다
탑들이 무너지는 이 세월에...



명언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확고히 계승발전시켜나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습니다.》

김정일

기행

백두산을 찾아서

(총련)박명수

우리를 태운 빠스는 그렇게도 마음속에 그리던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하늘은 가없이 푸르고 맑았다.

우리들이 먼저 들린곳은 리명수이다.

빠스가 리명수를 향해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얼마전에 올랐던 묘향산의 기묘한 산악미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절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림과 사진으로 보아온 금강산이나 우리들이 등산했던 묘향산의 절묘한 기암괴석들 대신 밋밋한 대지의 이갈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들이 백두산지구의 특유한 숲을 이루고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이게 하였다.

강물과 비물에 패인 골짜기들과 등관들을 따라가느라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립산사업소가 자리잡고있는 리명수폭포에 이른다.

리명수라는 지명은 사철 변함없이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해서 마을 리자에 맑을 명자, 물 수자로 리명수라고 불리운다.

리명수폭포는 100 만년전에 화산이 분출하여 생긴 백두산의 천지의 물이 현무암언덕의 바위틈에서 용솟음치는 지하수로 이루어진 폭포이다.

이 폭포는 높은곳에서 하천수면에 직접 떨어지지 않고 벼랑의 경사진 표면을 흘러내린다.

폭포는 벼랑의 맨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떨어지는것이 아니라 벼랑중턱에 들린 구멍에서 쏟아져 내리는 특이한 폭포이다.

바위와 바위사이에 흘러내리는 흰물줄기들은 마치도 명주실이 바위를 휘감고있는것처럼 부드럽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폭포우에 자리잡은 휴양각에 올랐다.

그곳에는 휴양각옆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폭포마냥 흘러내리게 만들어놓아 밑에서 폭포를 보는 것보다 더 상쾌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휴양각에서 내려다보이는 폭포며 폭포 밑에 있는 못과 물통들은 조국산천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리명수의 10 리근방에는 수십개의 크고작은 폭포들이 있다고 한다.

리명수폭포는 어느때나 아름답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더 볼만하다고 한다. 어떤 강추위속에서도 얼지 않고 쏟아져내리는 폭포수는 주위에 뽀얀 눈안개를 서리게 하며 하얀 서리꽃밭으로 변한 주변 숲은 사람들을 끝없이 순결한 세계로 이끌어간다고 한다. 우리는 리명수의 절경을 못본것이 아쉽기는 했으나 초여름의 상쾌한 폭포모습만 해도 흡족하고 가슴 흐뭇했다.

리명수폭포기슭에는 약 500 년 묵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채양버들이 있다.

천연기념물로 설정된 채양버들은 보기도 좋고 학술적가치가 높다고 한다.

우리는 초여름 리명수의 아름다운 자연풍치에 심취되어 떠날줄 모르며 기념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우리는 상쾌한 리명수의 모습에 여운을 남기고 다시 빠스에 올라 삼지연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두산지구의 원시림을 눈여겨 보느라니 마치 우리들이 항일대전시기에 온듯한 느낌을 안겨준다.

우리는 삼지연을 향해 달리는 빠스안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이 즐겨 부르던 혁명가요를 힘있게 부르며 기세를 올렸다.

얼마후 빠스는 드디어 삼지연에 도착했다.

삼지연에 도착하자 우리의 눈에 안겨온것은 백두의 위용을 떨치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숭고한 군상들이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펼쳐져 우리를 숙연히 맞아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러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삼지연을 배경으로 삼지연 못가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지게 되었다고 한다.

일제의 피눈은 군화에 짓밟혀 신음하는 사랑하는 조국을 하루빨리 광복하시기 위하여 조국진군의 길을 천리혜안으로 바라보시는 근엄하신 안광, 일제놈들에게 죽음을 안겨주시는 권총을 차시고 멸적의 용맹과 투지에 넘치시여 령활한 새 작전을 구상하시며 조용히 쌍안경을 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풍당당한 형상은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높으신 권위를 웅심깊게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백두의 험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적들을 죽치시던 그 당시 청년장군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우러르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여기 삼지연못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1939년 5월 21일 무산지구로 진출하시던 길에 휴식의 한때를 보내시면서 조국해방의 원대한 뜻을 무르익히시고 무산지구으로 진출하신 의의깊은곳이며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세워진 삼지연대기념비는 삼지연못가에 꾸려진 넓은 교양마당의 종축선중심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삼지연못을 배경으로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그 오른쪽에 세워진 《조국》편, 《숙영》편, 왼쪽에 세워진 《흙모》편, 《진군》편, 뒤쪽 못가운데 세워진 《조국의 물》편 등 부주제조각군상들로 이루어졌다.

군상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돌아보던 우리의 걸음은 《조국의 물》편에서 멈춰섰다.

조국에 진군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조국의 물, 삼지연의 맑은 물을 마시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와 풍부한 생활감정이 정서적으로 마음속깊이 안겨왔다.

우리는 삼지연의 군상을 돌아본후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삼지연의 맑은 물을 배경으로 하여 자라는 두갈래의 봇나무앞에 섰다.

삼지연못가의 두갈래의 봇나무는 1972년 6월 3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기념사진을 찍으신 유서깊은곳이다.

우리도 수령님께서 찍으신 이 봇나무옆에서 다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백두의 위풍을 안겨준 삼지연을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돌아본후 청봉속영지로 걸음을 옮겼다.

청봉속영지는 1939년 5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지구로 진출하시던 길에 첫밤을 보내신 력사적인곳이다.

우리는 그 당시와 다른없는 원시림을 지나 청봉속영지 안쪽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원시림은 이끼오른 진대나무와 고산지대의 독특한 나무들이 우거져있었고 새들의 맑은 지저귐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일유격전의 나날로 이끌어주는듯했다.

원시림을 지나서니 전면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이 동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22일 이곳에 모신것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동상에 인사를 올린 다음 속영지안으로 들어섰다.

속영지안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쓰신 구호나무, 샘물터, 우등불 자리가 혁명교양을 위하여 잘 보존되어있었다.

우리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친히 쓰신 구호나무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구호나무에는 이렇게 써여져있었다.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등등...

우리는 구호나무를 보면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광복된 조국을 안아오려는 김정숙어머님의 불같은 결의를 읽었고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에서 맞은 첫밤을 끝없는 흥분속에 맞았을 투사들의 모습도 그려보았다.

그다음 우리는 샘물터나 우등불자리, 작식터들에서 김정숙어머님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동지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맥박쳐있는것을 심장으로, 온몸으로 느꼈고 우리도 어머님의 충실성을 따라배워야겠다는 맹세를 더욱더 굳히었다.

청봉속영지는 사령부자리를 중심으로 7련대, 8련대의 숙영자리가 질서정연하게 꾸려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잡아주신 청봉속영지는 지리적으로 보나 전술적건지로 보나 아주 유리한 곳이었다. 이곳은 밀림이 울창하여 부대의 활동에서 은밀성을 보장할수 있었고 지형상 앞은 급한 경사지로 되어있어 불의의 정황에서도 주

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는곳이었다. 또한 룡선들이 리명수, 5 호물동, 건창, 소백산쪽으로 뻗어있어 대부대가 사방으로 신속히 기동할수 있으며 적들의 행동을 감시하기에 좋은 지점이었다.

우리는 수령부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꾸려진 숙영지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구호들을 보면서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잘 알수가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크나큰 담력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빛나는 력사에서 의의깊은 곳인 청봉숙영지를 떠나 귀로에 올랐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우리는 백두산을 향하여 뺄스에 올랐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초조했다. 안타깝게도 밤새도록 내리던 비는 아직 멎지 않고있었다.

백두산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하다지만 우리는 맑은 천지를 한순간이라도 보고싶다는 꿈과 소원을 안고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자신들의 절절한 기원을 노래에 담아 혁명가요들 힘있게 불렀다.

우리들이 백두산에 다가가면 갈수록 검은 구름은 우리의 절절한 기원을 풀어주려는듯 차츰차츰 사라져나갔다.

우리를 태운 뺄스가 백두산기슭의 한 굽인돌이를 돌았을 때 누군가 갑자기 소리높이 웨쳤다.

《백두산이 보인다!》

우리모두는 웅장한 그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해 환호성을 올렸다.

백두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가 깃들고 우리 민족의 혈맥이 시작된 조종의 산.

백두산은 마치나 미소를 짓듯이 맑은 해빛과 맑고 푸른 하늘로 우리를 맞아준다.

우리의 노래소리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에 힘을 얻어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진다.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과 슬기를 자랑하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는 혁명의 성산, 여기서 우리 혁명의 첫 봉화가 올랐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역센 뿌리가 내렸으며 오늘은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밝혀주는 신성한 등대로 우리의 눈앞에 솟아있다.

우리는 조종의 산의 그 숭엄한 모습에 마음 사로잡혀 모두 말 한마디 없었다.

향도봉에 새겨진 힘있는 글발이 우리 눈에 안겨왔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 정 일 1992년 2월 16일 새김》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 글발에 가슴뭉클해졌다.

뺄스는 백두산천지에 이르렀다.

백두산천지! 세상에는 화산도 많고 자연의 힘에 의하여 생겨난 호수도 많으나 높고높은 산꼭대기에 백두산천지와 같은 위용과 신비로움을 가진 천지나 호수는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그렇다.

그렇다. 깎아지른 벼랑으로 천지를 둘러싸고있는 백두령봉들과 천지의 맑은 물에 뿌리를 잠그고 뽕뽕뽕 솟아 천태만상을 자랑하는 비로봉의 만물상, 천만가지의 조화를 부리며 바위벼랑을 타고 쏟아져내리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쳐 산산이 흩어지기도 하는 흰 구름, 지심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온천... 이 신비롭고 독특한 천지의 장쾌한 모습과 아름다운 풍치야말로 세상에서 제일일것이다.

우리는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그 모습앞에서 가슴 설레여 모두 걸음을 옮기지 못했으며 그 숭고하고 거창한 세계에 숙연히 머리를 숙인채 침묵하고있었다.

전도양양한 조선의 기상과 궁지와 미래를 안겨주는 백두산상상봉에서 우리는 부풀어오르는 흥분과 격정으로 결의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모임에서 거창한 천지의 맑고 푸른 모습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리라 결의토론을 했다.

흥분을 금치 못해 시랑송을 하는 동무도 있었고 노래를 부르는 동무도 있었으며 숭엄한 감정으로 즉흥시를 짓는 동무, 천지를 보며 더없이 깨끗해진 마음을 솔직히 토로하는 동무...

모두 혁명의 성지에 오른 감동을 눈물로 토로하면서 앞으로 총련애국사업의 대를 깨끗이 지켜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안고 백두산을 내려왔다.

그다음 우리는 혁명의 성지 백두밀영고향집을 찾아갔다.

뺄스안에는 거창한 백두산천지앞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한층 설레였고 노래소리는 점점 고조되어갔다.

백두산밀영을 비롯한 백두산지구 밀영근거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일대양양으로 이끌어올리시던 1931년대 후반기부터 조국해방이 이룩되는 194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의거하여 활동한 혁명의 보루였으며 우리 혁명의 책원지였다.

우리는 붉은 기발을 진두로 하여 힘차게 백두밀영에 들어섰다.

밀영에 들어서니 소백수 푸른 물이 유유히 감돌아 흐르는 왼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쓰신 송시가 정중히 송시비로 모셔져있다.

미래를 가르치며 민족을 가르치는 이 거룩한

송시비는 휘날리는 붉은 기폭을 형상하였으며 백두산을 상징하는 반침돌대우에 존엄있게 모셔져 있었다.

우리는 숭엄한 모습으로 거연히 솟은 정일봉과 백두밀영고향집앞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너무도 수수하고 너무도 소박한 밀림속의 통나무귀틀집!

항일의 총포소리속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우리의 영명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며 솟아있는 그소박한 귀틀집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온 우리의 심장을 틀어잡고 숭엄한 세계로 이끌어주었다.

그지없이 수수하고 소박한 유서깊은 백두밀영고향집의 사적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은 50여년전의 그 력사적인 나날들을 그려보며 숙연한 기분에 잠겼다.

또한 너투사들이 올린 쪽무이포단에 안기시여 항일의 총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자라시던 친애하는 그이의 고귀하신 영상을 그려보면서 사적

물들인 조선지도며 망원경들을 주의깊게 보았다.

뜨거워오는 마음으로 성스러운 봉우리를 바라보니 정일봉이라는 글자가 하늘에 부각된듯이 눈에 안겨왔다.

마치 정일봉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기상을 안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고향집을 만년초병처럼 웅위하듯이 거연히 솟아있다.

우리는 정일봉의 웅자를 우러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주체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성되리라는 의지를 가다듬었고 그이를 모시여 세계 만방에 더더욱 빛날 우리 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그려보았다.

우리는 혁명의 성지를 떠나면서 몸은 비록 이국 땅 멀리에 있어도 애국의 대를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아, 백두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
나는 다시 너를 찾아오리...

조국은 올 때마다

(총련)남시우

조국은 올 때마다
주시는 믿음
더 깊어지더이다

조국은 올 때마다
쏟으시는 사랑
더 뜨거워지더이다

몇번 와도 처음이런듯
이제야 오는가고
반가와 반가운 나무람도 하시며

꽃다발 한아름 안겨주시고
길을 내여 언제나
맨앞에 내세워주십니다

떼여둔 자식을
못잊어하시는 그 심려를
언제면 덜어드리겠는지

응당한 도리 다하지 못한
죄스러움으로 흐느끼는
이 등을 따뜻이 어루만지십니다

멀리 두었을 때는

바람만 불어도
탈이 없는지 밤을 새우시고

앞에 두시고는
이리 마음 쓰시며
옆을 뜨실줄을 모르십니다

아, 이역의 거리에서
버림받은 나날에도
그래서 그 이름 목메여 부르며
그 귀중함을 걸음걸음
가슴깊이 새겼더이다

어머니 마음을
다 아는 자식이 없다 하지만
어찌 그 사랑에 비기겠습니까

조국은
영생하는 생을 주시고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주시니

아! 친애하는 그이 계시는 조국
올 때마다 조국은
마음의 기둥 심어주십니다
철석의 신념을 안겨주십니다

청봉의 푸른 녀에 외 1 편

김승남

이야기만 하여도 푸른 빛이 짙어오고
말만 들어도 푸른 빛이 열려오는
푸르러 청봉이라 부르는곳에서
이 마음도 푸르게 물들듯하오

하늘도 푸른 하늘
밀림도 푸른 밀림
바람도 새소리도
청신한 이 아침을 부채질하오

한창나이 조선의 아들딸들
혈전에 이어 하루밤 묵어간 이 숙영지에
조선의 정기를 두고 갔다오
천만년 푸를 조선의 미래를 엮어놓았다오

청봉아, 너를 한품에 끌어안고
내 너를 통채로 호흡하고싶나니
그러면 이 마음은 영원히 젊어지고
서슬 푸른 청춘의 힘 약동한다오

언제나 푸르청청한 계절에
희망 찬란한 나의 조국에
마를줄 모르는 샘을 주고
가슴마다 락엽없는 계절의 사시절을 주는

아, 청봉, 너의 푸른 녀에
투사들처럼 나의 젊음을 보태고싶다오
조국 위해 바친 위훈의 삶으로
천만년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도
늙음을 모르는 젊음을 안고가게...

언제나 어머님곁에

푸른 산천이 설레이며 흐느적어누나
압록강이 속삭이며 따라서누나
언제나 오고싶어 간절하던
어머님자옥 어린 이 땅을 떠나고싶지 앓구나

답사의 마지막 로정을
김정숙어머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이곳에서
하루밤새 정이 껍 들어버렸으니
10년을 산듯이 만년을 살 고장처럼
애틀한 정이 솟구치누나
장백땅을 넘어온 어머님께서

신갈과 나루터를 방금 넘으신것만 같아
광선사진관, 석전양복점
어머님 공작하신 집집들에서
어머님의 그 음성 들려오는것만 같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앓는구나

어머님의 발걸음 미치지 앓은곳 없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지 앓은곳 없는
력사의 이고장에서
꿈결에도 뵈고싶던
어머님의 그 영상 뵈울듯싶어
아, 천위전사의 그자리를 지켜

백두광명성을 떠받들어
우리가 밝아온 백두산 그 어디나
어머님은 계셨지만
결에 없는 어머님과 여기서 헤어지니
그리움이 복받쳐 눈물이 흐르누나

백번천번 듣던것을
예와서 한번 보니
우릴 위해 조국 위해 혁명을 위해
일찌기 자신을 다 바친 어머님 한생각뿐

한생 잃지 않을 그 한생각 안고
떠나는 이 마음

나의 탄전, 그 혁명초소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는 그 길로

불타는 충성의 맹세를 안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힘차게 내짚나니

몸은 비록 떠나가도
떠날수 없는 이 마음만은
언제나 어머님곁에 세워두고
떨어지고싶지 않던 이 순간에 새겨둔
어머님의 그 영상 심장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로 싸워가려니

아, 간절한 그리움과 격정에 목이 메어
신갈파언덕에 높이 모셔진
어머님의 동상을 삼가 우러르니
환히 웃으시며 손저어주시누나
환히 웃으시며 바래워주시누나

정녕 떠나는 이 마음

내 언제나 그 언제나

어머님의 밝은 미소앞에

반가운 마중과 바래움을 받는 나날로
한생을 이어가리

수필

전사의 신념

리 빈

가슴에 품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위에 빛난다
나가자 인민군대 ...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 해 여섯살이던 나는 늦 여름 어느날, 방공호안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다. 갑자기 울려 퍼진 힘찬 합창은 사뭇 어린 가슴에 격동적사변과 맞닿은듯한 폭발적인 흥분을 일으켰다. 탕개를 튀듯 화닥닥 뛰쳐나오다가 방공호 낮은문 윗턱에 이마를 짓쪼았다. 아찔하는 순간 번개불이 번쩍 일었으나 터지는듯한 이마를 만져볼새 없이 거리로 줄행랑을 놓았다. 인민군대의 기다란 대오가 남쪽으로 뻗은 행길을 따라 행군해가고있었는데 노래는 그들이 부르는것이였다.

씩씩한 대오속에는 우리 큰누나보다 조금 더 클가말가한 단발머리 처녀군대들도 많이 섞여있었다.

척! 척!

하늘땅을 다 막아서기라도 한것처럼 까마득 높아보이는 저 멀리 장수산도 단숨에 넘을듯한 억센 발구름, 옛날에 룡이 날아오르다가 그우에서 뛰군했다는 강가의 룡바위마냥 위엄찬 가슴들...

앞뒤산에 즈렁즈렁 메아리치는 노래소리에 그 만 넋을 빼앗겨버린 나는 저도 모르는사이 가랭이가 찢어지라 짧은 다리를 채게 놀리며 그들을 따라갔다. 땅바닥같은것은 살피볼념도 않고 고개를 잔뜩 젖힌채 그들을 쳐다보는 나의 눈길은 그들의 군모 한복판에서 번쩍이는 오각별로 끌려갔

다.

마치 불길이 황황 타고르는듯한 별!

한갓 모자에 붙은 어떤 표식이 아니라 머리 그 자체가 빛을 뿜는것처럼 어찌나 신기하고 황홀하던지... 하여 그 별을 머리에 인 사람들이야말로 신화에 나오는 불사신들, 화살을 맞아도 끄떡 없고 불속에서도 타지 않으며 맞다드는 원쑤마다 모조리 다 처이기는 환상적존재처럼 우러러보였다.

그때문인지 그후부터 그들의 장엄한 모습과 눈부신 별빛은 나의 꿈에 자주 자주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점차 그 꿈이 진짜처럼 믿어지면서 기억의 거울속에 그들의 모습이 보일적마다 그 불사신들과 마주서기라도 한듯 가슴이 두근댔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먹는 나이탓인지 그 꿈은 점차 다르게 해석되었다.

그들은 신화도 전설도 아닌 바로 우리 당이 키운 현대인-조선인민군 군인들이기에 이른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존엄을 고수한 불멸의 환상적존재로 되었던라고. 아마도 그때문이라, 인민군대오를 무턱 따라가던 그날로부터 40 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군인들을 만날적마다 머리위에 빛나는 별을 자못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것은...

짧은글 형식에 어울리지 않게 서론이 길어졌다. 어찌겠는가. 뜻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오늘 머리속에 뿌리박힌 40 년전 인상이 하도 강력히 되살아나고있으니.

여기는 들끓는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이다.

중요한 창작과제의 수행을 마무리하느라 몸은 우산장을 떠나지 못하고있으면서도 자나깨나 마음은 늘 와살던 여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해 첫날에 보내주신 친필서한의 높은 뜻이 심장의 피로 끓는마냥 건설자들마다 만만한 투지에 넘쳐 펄펄 뛰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그이를 천세만세 무궁토록 모시고 따르려는 수천만 충성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하늘을 치솟을듯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높이 솟은 세 기둥!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사는 마음으로 길이길이 당을 받들려는 신념의 산악-당창건기념탑! 하기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천수만 당의 전사들이 여기로 달려왔다. 비록 세대는 바뀌고 모진 풍파 몰아쳐온다 해도 오로지 당을 지켜가려는 불변의 충성심을 탐필에 초석으로 깔고져.

하저늘 내 어찌 레외로 뵈가보나...

팔뚝처럼 굵은 철근들을 산더미마냥 싣고 대형 화물자동차들이 지금 한창 들이당고있다.

수령, 당, 대중의 억년 드눌지않을 일심단결의 상징-마치와 낮, 붓의 세 기둥뒀을 들러감을 산줄기같은 어마어마한 고리에 골조로 쓸 강재들이다.

자동차들이 부러놓은 그것들은 기증기가 물고 벌써 숲을 이루기 시작한 골조조립장으로 부리나케 날라갔다. 건설자들은 기증기가 히는 일에 성차지 않았다. 어느 누가 조직할새 없이 저마다 팔을 부르짖고 철근운반에 달라붙었다. 쇠바줄마냥 척척 휘는 여라문발짜리 철근 한대에 너더땡씩 들어붙어 서로서로 부추기듯 웃고 떠들더니 판은 어느덧 경쟁으로 넘어갔다. 그들속에 나도 뛰어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열이 오르는 경쟁자들은 걸음걸음을 다그치다 못해 나중에는 반달음을 놓았다.

얼마 오래지 않아 산더미갈던 철강재들은 센 바람에 말끔 날아나버린 가랑잎무지마냥 반반하게 밀창이 드러나고야말았다.

《휴-식!》

한숨 돌리게 된 기회가 못내 기쁜듯 기증기운 전공쳐너가 방글거리며 좋아라고 소리쳤다. 그제야 경쟁자들은 허리를 펴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씨원스레 북북 문질렀다.

난생 처음 보는 그들이였건만 친근한 벗들인양 정답게 둘러보던 나는 흠칫 놀랐다.

흥미진진한 오락경기에서 상대방을 눌러버린 승리자처럼 상쾌하게 웃고있는 사람들가운데 머리 허연 할머니들이 섞여있지 않는가! 그들의 하나같은 보위색복장과 군모에 박힌 오각별은 더욱 큰 놀라움을 자아냈다. 젊은이들도 힘겨운 이 건설장에 어찌하여 늙은이들이 그것도 무슨 까닭에 군복차림으로 일손을 잡았는가? 옷차림은 그렁다치더라도 구태여 군모와 별까지는?

한창 법석 끓을 때엔 일에 정신을 파느라 누가 누구인지,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미처 가려볼 사이가 없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똑바로 뜨고있던 나의 눈에 늙은이같은 사람은 하나도 띄우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저분들이 젊은이들과 똑같이 뛰여다녔던가?!)

다른 건설장들에 취재를 다닐 때마다 펄펄한 젊은이들만 보아오는데 버릇된 나로서는 혈기왕성한 청년들 못지 않게 신바람을 낸 늙은이들이, 그것도 군복차림과 군모의 오각별 모습이 놀랍고도 이상스럽게 그지없었다.

(어떤 할머니들인데 저런 차림으로 여기 왔을까?)

마침 함께 일손을 잡았던 구면의 방송주재기가 내 심정을 헤아렸던지 《작가동무는 누구를 그

로록 바라보고 섰소?》 하고 묻고는 알만하다는듯 회곳회곳 서리가 덮인 머리를 끄덕이며 다음과 같은 사연을 알려주었다.

《청진, 남포, 원산, 개성 그밖의 여러곳에서 왔는데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오. 저분들가운데는 대다수가 락동강을 건넌 로병들이요. 울적마다 건설장에서 귀하게 쓰이는 특수용접봉이랑 자체로 구해가지고 와서는 경제선동도 벌리고 일손도 도우며 지금처럼 땀을 흘리고있다니까.》

역시 조국해방전쟁참가자인 그의 얼굴과 억양에는 무량한 감개가 어려있었다.

(로병!)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조국보위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남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던 그 대오속의 처녀군인들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혹시 저분들이 그때 그 녀성군인들이 아닐까?)

여섯살 그때처럼 또다시 목을 조이는듯한 흥분에 휩싸인 나는 그때 들었던 내 심장의 고동소리를 분명히 또 들었다.

오늘 저 로병들이 바로 그 처녀군인들이 아닐수도 있다. 하지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한 마음으로 남으로 흐르던 장엄한 대오속에 자기의 위치를 찾았던 그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다면 나이로 볼 때 60 이 넘었을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무슨 대수이랴.

충을 잡았던 그 시절처럼 청춘의 기백으로 오늘도 건설전선을 지원하고있는 로병들, 거스를수도 속일수도 없는것이 세월이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들면 평생을 바쳐오던 일터에서도 손을 떼기 마련이다. 이때부터는 육체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피치 못할 사정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건만 포화의 결전장으로 총탄을 날라오듯 손수 자재들을 구해가지고 여기로 달려와 건설을 돕고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전쟁에서 피를 바친 군인들은 당의 특별한 배려와 사회적관심속에 온갖 생활의 락을 누리며 앉아쉬어도 무방하련만 불원천리 앞을 다투어 이곳을 찾아와 땀을 흘리다니...

둥둥! 둥!...

장쾌한 북소리에 맞추어 춤판이 벌어졌다. 녀성로병들은 남먼저 한복판에 뛰어들어 흥을 부쩍

돋구었다. 현장직관원을 도와 속보를 쓰고있는 한 로병과 나는 인사를 나눈후 여기로는 어떻게 왔는가고 묻고야말았다. 마침 색감을 찍으려던 그는 붓을 멈추고 나를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아차! 내가 무슨 실언을 했는가?)

은근히 당황해났다. 뒤따르는 의문.

(무엇이 잘못일까?)

이윽고 로병은 붓에 푸른 색감을 듬뿍 묻혀 속보판으로 옮겨가며 비로소 입을 열었다.

《온 세상이 다 쳐다볼 이 탑에 아버지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넋을 묻어서 이 탑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받들어모실 일념이 바로 우릴 여기로 떠밀었습니다.》

《!!!》

순간 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제날에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받들어 조국보위성전에 피를 바쳤고 오늘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의 간곡한 뜻을 지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케 하는데 땀을 바치는 이들이 과연 무엇이 놀랍단말인가! 비록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지만 심장은 충을 맺던 시절의 피끓는 그 심장으로 뿔뿔고있기에 그날의 별도 신념의 상징이 되어 이날이때까지 빛나고있으리니, 생사결단의 전투행동으로 땅을 웅위하는 성전에 청춘을 바쳤던 그들이기에 기나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날의 그 신념, 그 의지 변함이 없이 포연질은 청춘시절의 군복을 벗을줄 모르는 로병들.

그들은 웨치는듯싶다.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영원히 충직한 전사의 신념을 알려거던 보라, 우리들의 머리우에 빛나는 별을!》

그렇다. 우리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펼쳐진 건설 전선에는 이런 로병충신들이 서있다. 이들의 뒤를 따른 새 세대들의 대오가 이들처럼 땅을 받들어가고있다. 하기에 우리 당이 결심하여 못하는 일이란 없거니, 나는 굳게굳게 믿는다. 이들의 변치않는 신념에 받들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의 사회주의는 철옹성으로 고수되고 온 세상 그 어디서나 다 바라보이는 이 당 창건기념탑과 함께 당의 뜻 영원히 누리에 찬란할줄을!

폐목우에서

김상현

최덕준은 물동가에 서면 언제나 기분이 맑아졌다. 제아무리 흐린 마음도 여기에 서서 물길을 바라보노라면 어느새 깨끗이 맑아지고 가슴이 확 열리곤하였다. 40 여년간 폐목을 몰아온 최덕준에게는 인생의 모든것이 물길과 함께 있었다.

최덕준은 폐장대를 어깨에 메고 젊은이와 같은 기운찬 동작으로 나는듯이 폐목우에 올라섰다. 해가 솟아올랐다. 순식간에 푸른 수면에는 금빛 해살이 확 퍼졌다. 그는 폐도끼를 휘둘러 《평-평-》 깡을 박았다. 별안간 강변의 높은 산이 그울림을 받아 메아리쳐왔다.

《아바이!》 누군가 찾는 소리가 들렸다.

최덕준은 허리를 펴고 뒤돌아보았다. 작업소 소장 강상운이가 물동을 향해 다급히 걸어오고 있었다.

덕준의 수북한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바이, 오늘은 함께 타고 갑시다!》

강상운이 흥두께 내밀듯 불쑥 말했다.

《함께 타다니? 영호는 어찌구 오늘은 자네가?》

덕준은 자기의 양성공인 제대군인총각 강영호 대신에 소장이 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영호 혼자 타보겠다고 해서 폐 한켠 말겼습니다. 소대장과 합의하구...》

양성공 영호에 대한 강한 마음과 함께 혼자서 폐목을 무사히 몰아갈까 하는 근심이 앞섰으나 이왕 소장이 한 일이라 덕준은 대범하게 말했다.

《하긴 혼자서 타볼만도 하지. 하지만 소장이 그 엘 조카라 해서 너무 믿는게 아닌가? 물도 볼었는데...》

《원 참 아바이두, 삼촌이 혼자 타란다고 할 녀석입니까? 폐군의 담력이 생겨 그런거지. 허허.》

아무 걱정말라는데 소탈하게 웃는 강상운을 보노라니 덕준의 마음도 껍 가버워지긴 했으나 영호가 사고를 치지 않겠나 하는 우려심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폐군이 배짱만 가지고서야 되나. 기술도 높아야지. 난 그녀석을 이탈까진 양성시키려했는데... 아직 좀 일러. 하는 말이 튀어나오려는것을 덕준은 꼭 참았다.

그의 심리를 가늠한듯 강상운이 말했다.

《물새가 물에 깃을 치려니 어지간히 빠르하군요. 아바이와 함께 폐목을 타던 그 시절을 한시도 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하하.》

강상운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말에는 진정이 어려있었다. 최덕준은 새삼스럽게 강상운을

바라보았다. 언제보나 믿음이 가고 성실한 일꾼이었다. 덕준은 그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속심이 있는게라고 넘겨짚었다. 미상불 애기동, 풍대, 삼각... 물길의 구조물들이 새것대로 있는가 알아보려는게 틀림없어. 그런데 웬일인가. 가까이 온것을 보니 그의 손에 휴대용 낚시대가 들려있지 않은가. 어깨에는 무엇을 넣었는지 볼룩한 배낭을 걸치였다. 그러고보면 그의 말이 진담 같기도 하다.

허나 또 얼핏 생각키우는것이 있다. 간밤에 내린 소낙비로 물이 불어나 물길이 좀 묻히었으니 이 늪은걸 도와주려고 그러는것이 아닐까?

덕준은 그 짐작이 맞다고 생각했다.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폐목을 더 많이 몰아가야겠는데 소장이 그 마음을 다 알아주는것 같지 않아 서운한 느낌이였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도 어느덧 일년이 가까와오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유혼을 지켜 그이의 전사, 그이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고 남들은 그동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위훈으로 이름을 떨치고있지 않은가. 영호만해도 그렇지. 양성기일을 절반으로 단축하다니... 놀라운 일이다. 마음이 좀 놓이지 않긴 하지만...

《평-평-》 깡을 박거나 출발준비로 타리개를 날라다 실는 청년류별공들속에 섞인 강영호가 《최아바이!》 하고 소리쳐부른다. 사진에 아바이와 의논없이 혼자 타겠다고 해서 미안하다는 인사이다. 퍼그나 동안뜯 거리여도 삼촌을 닮은 강과른 얼굴에 비긴 량해를 구하는듯한 미소를 가려볼수 있었다. 《어, 침착하라구!》 최덕준의 알고 있다는 뜻의 화답이다. 자신만만하게 폐장대를 질고선 명호의 릉름한 모습을 보노라니 덕준은 그에 대한 대견한 마음과 함께 자기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것 같아서 속이 달았다. 더구나 소장까지 이럴줄이야. 양성공을 내리운것이 무슨 대수라구, 제가 말은 폐목 한채 감당을 못할가 봐서...

《허, 이거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걸. 소장이 들놀이 차비셀 하구 폐목에 오르는걸 보니...》 덕준이 배낭을 받아 폐동갱이에 박힌 말코지에 걸어주며 의미있게 눈을 찡긋해보였다.

《선바위소에서 어죽이랑 끓여 자시던게 생각안납니까? 오늘도 그때처럼 해봅시다.》

걸어놓은 배낭아구리를 벌려 낚시대를 꽂아놓으며 강상운이 설레발을 쳤다. 그러나 덕준이 어찌 소장의 마음을 모르랴. 그의 눈빛, 표정, 목소리가 표현하지 않은 속마음을 드러내고있었다.

상운의 다신한 심정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덕준은 자못 노여운듯 통명스럽게 말했다.

《자네두 이제 날 댁빠진 늑다리루 보는게 아닌가?》

덕준의 얼굴에 비긴 서운한 빛을 가려본 강상운은 당황해하는듯싶었다.

《아바이두 무슨 말씀을... 나이 드서서도 폐장대를 놓지 못해하는 아바인데 그럴락 있습니까.》

강상운은 이렇게 말하고는 출발을 기다리는 청년류벌공들을 향하여 찌렁찌렁 메아리치게 웨쳤다.

폐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덕준이도 폐목을 고정시켰던 깡을 뽑고 폐장대를 짚어나갔다. 어느덧 소대장이 탄 첫 폐목이 수문을 빠져나갔다. 두번째로 잇달아나가는 영호를 보자 덕준은 다시금 근심에 휩싸였다.

영호가 무사히 몰아낼가? 폐목을 창하거나 걸어놓아 물길을 막으면 뒤에 달린 폐목들이 모두 걸릴텐데 어찌자구 소장은 영호를 앞장에 세워놓았는가? 뒤에 세워도 모르겠는데... 영호한테 가서 준비상태도 보아주고 어디어디에서 조심하라고 귀뜸도 몇마디 해주었어야겠던걸... 하고 덕준은 후회막심해하였다.

상운의 얼굴을 얼핏 보니 자기와 같은 근심의 빛은 꼬물만치도 엇보이지 않았다. 기운차게 폐장대를 짚는 영호를 대견스레 바라볼뿐... 상운의 대범한 낯색을 보니 덕준의 걱정도 썩 가라앉는다. 늑은이의 로파심이야. 늑으면 대담성이 없어진다는게 그래서 나온 말이겠지.

덕준은 영호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리려 애썼다.

터쳐놓은 물동의 수문이 지척에 다가왔다.

(물결의 흐름은 이렇게 막았다가 터쳐놓는데 세월의 흐름은 막을수 없으니...)

강상운이 폐죽을 짚고 앞에 섰다. 덕준은 할수 없이 양보하고 폐장대를 짚고 뒤전에 물러났다.

(상운이 저 사람이 소장이 되더니 지나치게 나를 보살피려들거든. 허 이거 무슨 생각을... 사람이 늑으면 노여움이 많아진다더니... 정말 소장두 폐를 타고싶어 올랐겠지. 사무실에서야 골치아픈 일두 많겠는데 폐를 타면야 거뵈해지구말구. 전에야 폐를 많이 안랐지만 이즈음엔 이신작칙하느라고 그러는지도 몰라.)

덕준은 소장에게서 남다른 동정을 받는것만 같아 마음이 착잡하고 괴로웠다.

수문을 빠지는 쾌감! 사품치는 물결, 쇠 물소리, 시원하게 튀기는 물보라, 광 쿠르릉 철썩! 나무

통들이 부딪치는 진동, 폐목이 맞부딪치는 물결의 출렁거림... 폐목이공만이 느낄수 있는 장쾌한 육감이 덕준의 온몸을 휩쌌다. 산꽃과 록음의 향취를 담은 강바람의 싱그러움이 덕준의 머리를 건뚫하게 한다. 덕준의 울적한 기분은 연기처럼 흩날려버렸다. 얼마나 좋은가! 내리는 폐목우에 서기만 하여도 삶의 희열을 느끼는것이다.

강상운이 폐죽을 저으며 물굽을 바로 타나갔다. 덕준은 폐장대를 짚어 폐목꼬리만 붙어주면 되었다.

폐목을 따라 풍만한 정서가 스민 강기슭의 풍치가 펼쳐져 함께 춤추며 흘러갔다. 아담한 마을들, 농장포전들... 엇그제까지도 연록색인것만 같던 강변물황철나무숲이 어느새 푸르청청해졌다.

덕준은 산천의 변화를 깊이 느낄수록 오래지 않아 이 정든 물길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물황철나무숲속에서 피콜새소리가 《피콜, 피르폴》 하고 아름답게 울리었다. 새는 이따금 노래를 똑 끊었다가 다시금 《피르피르 피르폴》 하고 은방울 굴리듯 우짖는데 그 소리는 마치도 덕준이 듣기에 《내 노래가 끝지요?》 하고 묻는듯했다.

강상운이 폐죽을 저으며 노래를 불렀다. 그가 덕준이와 함께 폐를 몰아가던 시절에 즐겨부르던 노래는 류다른 감회를 불러왔다.

해산 초산 돌아돌아 몇밤 새웠-나-
의주가면 진달래꽃 피어나리라
어여차 지여차 어야 더야-

정말 상운은 양성공시절이 되돌아온듯 건드러지게 목청을 돋군다. 얼마나 듣기 좋은 노래인가! 물길과 같이 속통이 맑고 대바르니 그속에서 울려나오는 노래 또한 맑고 구성진것이다. 평소애 노래라고는 전혀 할줄 모르는 소장이 폐동갱이에 서기만 하면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른다. 하기에 그가 탄 폐목에 노래가 없다면 그것은 강상운의 폐목일수 없었다. 상운의 노래에 놀려 피콜새소리는 무색해지고말았다. 해방전, 이 물길의 폐목이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밥을 등에 지고다닌 그 시절에야 구슬픈 노래마저도 보이지 않는 눈물로 가슴속에 맺혔었지. 정말 그 어두운 세월에는 살아도 죽은 인생이었어...

별안간 상운은 노래를 똑 그치며 말했다.

《최아바이, 저길 보시우. 저 노루 한쌍을...》

덕준은 상운이 손을 들어 가리키는곳을 바라보았다. 돌송이가 파릇파릇 돋은 꽃벼랑우에 피나무 꽃을 배경으로 나란히 선, 송아지만한 황갈색의 노루 한쌍이 두귀를 쫓긋 세우고 까만 눈알이 말뚱말뚱하여 아래를 내려다보고있다. 한동안

그렇게 서있던 두 짐승은 무엇에 놀랐는지 경충 경충 길길이 뛰여오르며 숲속으로 꿈꾸니를 사리였다.

상운은 폐죽을 저울 생각도 잊은듯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감회깊게 말했다.

《그때 제가 새끼노를 잡겠다고 뛰여내렸던곳이 여기지요? 고 깜찍한것들을 잡으려 한다가 아바 이한테 불기맞던 일이 었그제같은데, 하하...》

통쾌한듯 웃어제끼는 상운을 따라 빙그레 미소를 그리면서 덕준은 생각했다.

(사람두 참, 아직두 총각때 그 마음이라니까... 그걸 잊지 않구 외우는걸 보니...)

참말 그랬다. 갓낳은 염소새끼만한 새끼노루 한 마리를 발견한 상운은 환성을 울리며 폐목에서 풍덩 뛰여내려 헤엄쳐갔다. 귀여운 새끼노루를 덮치다가 죽일것만같은 위구심이 앞선 덕준이 그에게 돌아오라고 웨치였다. 상운은 못들은척 그냥 헤엄쳐갔다. 드디어 기슭에 닿은 그는 노루를 쫓아 달리였다. 얼른해보이던 새끼노루가 쩍싸게 달아나버려 상운은 닭쫓던 개 울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물에 젖어 휘줄근해진 상운이 어깨가 처져돌아왔다.

《에끼 이사람, 보호동물을 잡으려해서야 되나?!》 하고 덕준은 그의 엉덩판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갈겨대고는 꺾꺾 웃었다.

참으로 즐거운 추억이었다.

어느덧 비룡소의 여울목에 들어섰다. 왼쪽으로 활처럼 굽이쳐내린 여울목의 맨 아래쪽, 푸른 물이 감도는 비룡소와 잇닿은곳에는 구렁이바위로 불리우는 집채만한 세모진 바위가 물가운데로 쭉 내밀어있었다. 비룡소와 구렁이바위가 있어 강이름도 비룡강으로 불리우게 되였는지 모른다. 비룡강물길의 굽이마다에 추억이 깃들지 않은곳이야 있으련만 비룡소여울목과 구렁이바위만은 상운의 일로 하여 더우기 잊혀지지 않는곳이었다.

그날은 상운이와 폐목을 탄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덕준은 그에게 룡이 날아올랐다는 전설을 지닌 비룡소며, 구렁이가 바위로 기여가다가 룡이 날아오르는것을 보고 놀라서 바위로 그대로 굳어져버려 구렁이와 똑같은 흔적을 남겼다는 구렁이 바위의 유래는 물론 비룡소의 여울목에서 지켜야 할 폐물이방법을 알려주었다. 동작이 민첩하고 결쾌스러우며 눈썰미있고 자존심이 강한 청년인 상운에게 덕준은 될수록 말을 적게 하고 시범동작으로 폐물이 요령을 익혀주었다. 사흘째와 나흘째에 벌써 상운이 폐장대를 바로 짚었으므로 이날은 방심하고있었는데 뜻밖에도 사달이 생겼다. 폐목의 꼬리부가 물끓을 제대로 타지 못한채 벌써 활굽이의 중간쪽에 이른것이였다. 여울목에 들어서기전부터 폐장대를 힘차게 짚어서

폐목전체를 바른쪽으로 치우치도록 하여야 구렁이바위를 무사히 넘길수 있는것이였으나 때는 벌써 늦었다. 쏠살처럼 속도를 가한 폐목에서 폐장대를 짚는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구렁이바위에 휘감기여 폐목을 말아먹는것은 둘째치고 급히 피하지 않는다면 상운이 크게 다칠 위험에 처했다.

위급한 찰나! 덕준은 폐죽을 힘껏 저으며 다급히 웨치였다.

《상운이, 나한테로 빨리! 폐가 말린다-》

정황을 판단한 상운이 날썰게 폐목의 앞머리로 달려왔다. 뒤미처 쿵 파다당 우지곤! 하고 폐목의 중간부부터 구렁이바위에 었히며 꼬리부가 휘말려 들어갔다. 폐목은 멎었다. 나무통들이 흥하게 뒤 엉키여 비틀린 폐목의 꼬리부에 사나운 물결이 싸 철썩 파도쳐 부서졌다.

상운의 얼굴은 흠뻑이 되었다. 덕준은 그가 무사한데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어, 다행이구만, 상운이 큰일날뻔 했어...》

상운은 심각한 자책이 어린 주눅든 눈길로 마사진 폐목을 바라보았다. 덕준은 상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활달하게 말했다.

《폐목이야 그까짓 풀어서 다시 매면 되는거지. 다 방법이 있어. 제격 역사를 벌리자구!》

덕준은 상운에게 폐목을 고쳐 맬 방도를 설명했다. 뒤에 오는 폐목의 힘을 빌어 빼낼수 있다는 소리에 상운은 안도의 숨을 쉬였으나 근심어린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폐목을 푸는 일이 벌어졌다. 폐도끼로 등태와 타리개를 고정시킨 강을 뽑고 폐목의 허리를 잘랐다. 그렇게 하니 앞부분 여덟개의 동강은 구렁이바위에 었히였을뿐이지 뽑아내기만하면 그대로 내려갈수 있게 되었다. 바위에 휘감겨 짓이겨진 네개의 동강은 분해하여 따로따로 끌어내려 다시 매면 될것이다.

뒤따라선 폐목이 스쳐지날무렵, 덕준은 비상바까지 합쳐 두줄로 굵게 끈 실바의 끝을 폐머리에 매고나서 날썰게 뒤폐목에 뛰여내려 다른 끝을 폐목꼬리에 붙잡아맸다. 눈깜박할새에 해치운 비호같이 날랜 동작이었다. 팔따시같은 두줄의 실바가

팽팽 켜겨지는 순간, 그것이 당장 끊어지는것만 같았던지 해쓱하게 질리는 상운의 얼굴을 덕준은 보았다.

폐목이 흠칫하고 멎는듯하더니 뒤미처 꾸르르릉- 장쾌한 음향을 울리며 걸렸던 폐목이 서서히 미끄러져나갔다. 상운은 환성을 울리며 기뻐 어쩔줄 몰랐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통도 움짱할수 없는 아름답리 이깁나무통들이다. 수십립방에 달하는 백여대의 통나무들을 단번에 바위에서 떼어내는 물의 힘을 상운은 미처 상상도 못했던듯싶

었다.

《물이 장수힘을 가졌군요. 바위에 얹힌 육중한 폐목을 단번에 끌어내니...》하며 상운은 방금전까지만도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던 그답지 않게 폐목을 다시 매는 일에 몸을 들이댔다. 본시 눈썰미있는 그는 덕준의 의도를 제격 알아맞히고 앞질러 일을 해제했다. 해체한 나무통을 든장으로 굴러 물에 띄우는 일도, 그것들을 건져 다시 매는 일도...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같지 않았다. 보통 양성공들 경우에 폐목이 파손되면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상운은 오랜 폐군들 못지 않게 민첩하고 결쾌있는 동작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덕준은 자기의 양성공을 두고 생각이 깊어졌다.

가뭇철에 샘물을 알아보고 고난속에서 호걸스러운 사나이를 알아본다더니... 폐목이 말리웠는데도 끄떡 안하거든, 팬찮은 녀석이야, 한다하는 폐군이 될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며 덕준은 상운에게 한마디 건네었다.

《자네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것 같지 않구만.》

상운은 등태에 깡을 박으며 뉘우치듯 말했다.

《폐군의 아들이 그만도 못하겠나요. 오늘이야 제 실수로 이렇게 된건데...》

덕준은 상운에게 더욱 믿음이 감을 느꼈다.

열다섯해전 그들이 폐목을 휘감아넣었던 구렁이 바위에도 오늘은 삼각을 세우고 풍대를 대어 물길에 안전하게 되었다. 아무런 장애들도 없게 된 지금 덕준은 할일 없어 담배만 빼금빼금 빨며 상념에 잠기었다.

영호가 여기도 무사히 빠졌군. 그전 물길같은면야 영호가 혼자 탈 엄두를 못내지, 험했으니까...

어느덧 비룡소에 들어선 폐목은 흐르듯마듯 천천히 내려갔다.

상운이 폐죽을 놓고 다가왔다. 그는 배낭에서 낚시대를 꺼내어 조립하고 흘림줄을 매었다.

《무슨 털나비가 잘무나?》 덕준은 상운이 쥐고 들여다보는 흘림낚시에 눈길을 주며 물었다.

《행피털에 쥐털을 섞어 맨 나비를 쓰지요.》

《쥐털을 쓴다는 소린 참 들었구만.》

《낚시군마다 제나름이니가요.》

《오, 그렇군.》 덕준은 다시 생각에 잠기었다.

(물길이 험해서 폐목이가 힘들었어두 그때가 참 좋았지, 하늘을 날것 같이 펄펄할 때였으니...)

그는 생각깊은 눈매로 낚시를 매는 강상운소장의 모습을 여겨보았다. 소장의 나이도 어느덧 마흔고개를 훨씬 넘어섰다. 회색희끗한 머리칼이 보인다. 양성공시절의 림름하고 결쾌스럽던 기개는 이미 그의 몸에서 엿볼수 없다. 대신 그의 건장한 체구와 잔주름잡힌 진중한 얼굴, 엄하면서

도 사려깊은 눈길에서는 한개 작업소를 맡은 책임일군다운 드립없는 의지와 위풍이 느껴진다. 세월의 흐름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 누구나 나이 들면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걸 안 다음에야 물길에서 떠나게 됨을 아쉬워할것도 없지. 내가 섰던 이 물길을 상운이같은 끝끝한 일군이 지켜서있구, 영호와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뒤따라섰으니.

덕준은 리성으로 야릇한 감정을 녹찾히려 하였다. 진달래, 살구꽃, 돌베꽃... 철따라 피고지는 산꽃들, 계곡의 싱싱한 록음, 마가울의 붉은 단풍... 그 모든 자연의 풍만한 모습을 바라보며 폐목을 몰아온 덕준이었다. 이 물길에 그의 젊음도, 기쁨과 괴로움도... 그의 온 넋과 삶의 모든것이 스며있었고 이 물길과 더불어 로동과 창조, 인생의 보람을 무럭무럭 익히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이 물길과 함께 걸어온 류별공의 랑만에 찬 생활이, 삶의 희열에 넘치게 하는 그 즐거운 생활이 끝장나게 되는것이다. 참을길 없는 아쉬움이 덕준의 가슴을 짝 메웠다. 탄광에 동발목을 대주어 석탄전선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전초병이라고 내심 자부하고있었는데...

폐머리로 다가간 덕준은 부질없는 생각을 털어버리려는듯 등을 구부히고서 두팔을 세팔게 돌려 열심히 폐죽을 짓기 시작했다. 폐목은 어느덧 비룡소를 벗어나 잠자리 여울목에 들어서고있었다.

돌연히 푸들쩍거리며 폐동장이들이 휘노는듯싶어 돌아다보니 어느새 팔뚝같은 산치를 낚아든 강상운이 싱글벙글 웃고있다.

(낚시질재간두 참 용하거든. 폐바둑에서두 저렇게 제격 낚아내니... 비결은 흘림낚시털인게야.)

덕준은 상운의 낚시질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폐목은 뱀굽이와 번개여울을 지나 선바위소에 이르렀다. 여기는 물결이 고쾌치며 거꾸로 감돌아 흐르는곳이어서 센 바람이 불면 폐목이 물가 녀에 밀려나 애를 먹인다. 그러나 바람이 잔 날씨에는 여기서부터 한시간가량은 폐죽을 짓거나 폐장대를 짚지 않고도 아무 장애없이 내려갈수 있었다. 하기에 선바위소는 류별공들이 식사도 하고 취미에 따라 저마끔 할 일을 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길수 있는 물길구간이었다.

팔알만한 검은 점이 촘촘히 박힌 은회색빛갈의 팔뚝같은 산치가 세마리씩이나 꺾인 고기궤미를 덕준의 손에 들려주며 상운은 쾌활하게 말했다.

《자요! 이만하면 어죽을 쑤고도 남겠지요?》

《에게, 묵직하구만! 허 재간두 참...》

덕준은 물고기궤미를 받아들며 허를 내돌렸다. 상운은 말꼬지에서 배낭을 벗겨내려 아구리를 헤치었다. 양성공시절에 그가 이름을 달았던 《폐

군용화식기재》들이 그속에서 나왔다. 휴대용콘로, 냄비, 식기, 수저, 손칼… 티한점 없이 씻어말려 위 말깃말깃한 흰쌀은 물론 고추, 파, 마늘, 깨소금, 기름, 맛내기 등 양념감들도 빠짐없이 갖추고, 뚜드름뿌리를 캐다가 넣어서 가공한 독활주까지 한병 보낸 상운이 안해의 정성을 생각하니 덕준은 절로 가슴이 뭉클해났다. 상운이 부부의 정성을 덕준이 어찌 모르랴.

(이 늙은걸 생각해서 꾸러보냈겠지. 예순살이 돼오니 물길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진다는걸 알구.)

허나 덕준은 아무 내색도 안하고 통을 걸었다.

《여보게 소장, 명남이 어미가 자네와 눈맞추던 검척공시절보다 더 각별해졌구만. 그 정성이…》

상운은 콘로에 불을 달면서 기꺼이 받았다.

《오히려 검척공 은정이와 눈맞추던 때보다 더 정중게 지내지요. 부부간 정이야 나이들수록 더…》

《하긴 그래… 내 경우를 보아도…》

둘은 서로 안해생각들을 하며 한동안 꺄꺄 웃었다. 남비가 끓기 시작했다. 산치고기가 익어가는 독특한 냄새가 풍기었다. 잔물결이 이따금 밀려와 때동갱이를 어루만지듯 처절씩거렸다.

은연중 상운의 낮빛이 진중해지더니 말을 뺐다.

《최아바이, 제 한말씀 올릴가요? 세월이 흘렀지만… 아바이한테 꾸중받구 나뻐던 일을…》

덕준의 굵다란 눈썹이 꿈틀 미간으로 모아들었다. 심상치 않은 고백이다. 고망엿적에 품었던 감정을 꺼내는걸 보니… 강상운이답지 않은걸. 그러나 덕준은 인차 너그러워졌다.

《어서 말하라구 소장, 허물하지 말구…》

덕준의 심각해지는 낮빛을 띄여보고 빙그레 웃음지으며 상운은 말을 이었다.

《생각납니까? 분기계획을 하구 소대가 들놀일 하던 날… 은정일 올렸대구 절 꾸짖던 일이…》

《음, 그 얘기…》 하며 덕준은 별치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놀란것이 어이없다는듯 황소웃음을 지었다.

《난 벌써 다 잊어먹었네만 자네야 잊혀질라구. 사람이 첫사랑때 일은 별치 않은것까지두 일생 잊질 못하는 법이니까… 그래 나한테 육먹은게 아직도 가슴에 없었나? 명남이 장가보낼 때가 돼오는 데두. 허허허…》

덕준이 유쾌하게 웃어제끼는바람에 상운이도 한동안 따라웃었다.

《잊어버리셨다니, 그때 얘길 좀 해야겠군요. 입을 꼭 다물고야 심심해서 견디겠습니까》 하며 상운은 첫사랑의 그 시절이 되살아난듯 열정어린 두 눈을 번쩍이며 말했다.

《전 그때 사실 고기뽕 따는 은정일 도와주느라고 마주앉아 얘길 나누다가 본의아니게 그를 울

려놓게 됐지요. 너자들 속이란 참, 그게 어디 울 일입니까. 타리게절약수자를 좀 높여주었더라면 우리 조가 3 등이 아니라 1 등을 할수 있었단걸 그랬다고, 검척공이 그쯤한거야 조절할수 없는가고, 그것도 못해주면 무슨 애인인가고 통답삼아 말한걸 가지구… 늘 1 등하던 최아바이가 저때문에 3 등 한걸 생각하니 미안해서 그랬던건데 리해 못하더라말입니다. 눈물까지 흘리구, 속에 품구, 어찌도 공하게 구는지… 한동안 우리사인 풀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바이가 이 사연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상운의 이야기에 말려든 덕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오 그래, 생각나. 자넨 그냥 놔두면 안되겠기에 말마디나 했던게지. 자네 그때 흰소리쳤었지? 〈은정이 아니면 장가 못가겠는가〉 구말이야. 내 그래서 은정이 역성을 듣게 생각나구말구.》

《사실이야 화집에 나온 말이지요. 헌데 아바인 어찌두 아프게 꾸중하셨던지 아직도 여기에 얹혀있수다.》 하며 오른손으로 심장부위를 짚는 상운의 말은 룡조로 울렸으나 룡으로 흘러넘기기에 는 심각한 그 무엇이 있었다.

덕준의 얼굴에 난처해하는 빛이 어리었다.

《허, 내가 무슨 말 했기에… 생각 안나는데.》

남비뚜껑을 열고 한술 떠서 맛보던 상운은

《참 별맛이군요. 애긴 있다 하구 식기전에 죽부터 잡습시다.》 하며 어죽남비를 덕준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상운은 술병을 눕식기에 기울였다. 노르끄레한 약주를 권하며 상운은 말했다.

《쭈 따시우. 뼈마디 쏘던것두 낫습니다.》

덕준은 단숨에 식기를 비웠다. 약술맛의 찌르함보다도 상운이내외의 후더운 정에 속이 더 뜨거워올랐다. 그들은 뜨끈뜨끈한 산치어죽을 훌훌 불며 맛나게들 먹었다. 죽을 먹으면서도 덕준은

(내가 뭐라고 말했기에 여태 품고있을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짚이지가 않았다. 《때군용화식기재》들을 거두자 상운이 말을 이었다.

《아바인 절 험잡군심보를 가진 녀석이라고 때렸지요. 타리게절약수자를 올려주지 않았다고 은정에게 트집을 걸었다 해서… 은정이 역성을 들었습니다. 검척자처럼 공평해서 소대의 자랑인 처녀라고, 날마다 별사차를 마중해주구, 때군들을 위해서 무엇 하나 아끼질 않구, 그런 은정이 웃음을 꽃다발에 비길텐가! 하고요. 은정이가 떠주는 물 한모금값도 못한 녀석이라고 절 꾸짖었구요.》

덕준은 마치 그때시절이 되돌아온듯 마음이 즐거워져 꺄꺄 웃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 총기두 참 좋으이… 난 생각두 안나는걸… 허허허… 그래 그 말이 단가? 하긴

좀 지나치긴 했었구만. 호어-허허…》

덕준은 어찌도 통쾌하게 웃어댔던지 눈물이 다 찢끔 솟을 지경이었다. 상윤이도 유쾌하게 웃었다.

《그뿐이면 또 괜찮게요. 은정이한테 가서 사죄 하라는겁니다. 뽀빠졌다고 한쟁기 더 단 녀석이 치마두른 사람한테 가서 고결 숙이겠나요. 장가 못가면 말았지… 아바이 말들이 하나두 접수되지 않았지요. 그때 당장은 말입니다.》

덕준이 흥미있다는듯 상윤의 말꼬리를 가로챘다.

《허허허, 한쟁기 더 단 값을 한다?! 그래두 난 그때 자네가 사죄한결루 아는데…》

덕준의 능청스러운 눈빛에 그만 어쩔수 없다는 듯 상윤이 실토하며 얼버무렸다.

《그거야 사죄가 아니라 량해시킨거지요.》

《아닐세, 량한 무슨 개떡같이. 그게 사죄지 뭐냐.》

덕준은 통장훈을 친 장기군마냥 기세등등해졌다.

《아바이두 참, 훌쩍 뒤집어보여야 속 시원해하는 성미라니까요.》하던 상윤은 여전히 쾌활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사랑이란 참… 은정일 밑게 보구 잊으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생각나더란 말입니다. 멀리서 은정일 보기만해도 아바이 말씀이 생각나구요. 검척자처럼 공평하다느니, 그 웃음을 꽃다발에 비기겠는가느니 하시던 말씀들이… 날이 갈수록 은정이가 곱게만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별수없이 사나이 자존심이 꺾이고말았지요.》

《그래 자네 그 자존심이 꺾이워 나뻐다는건가?》하고 덕준이 능청스럽게 눈을 끔뻑였다.

《여부있습니까. 그게 제일 나뻐지요. 핫하하…》

상윤이 룡조로 꺾꺾 웃자 덕준은 정색해졌다.

《난 그 반대로 듣겠네. 자네네야 참 행복하지. 첫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데 그 첫사랑과 일생을 같이 하니 얼마나 좋은가?》

덕준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울렸다.

《결국 아바이가 절 사랑에 취하게 만들었지요. 사랑에 빠지면 애인의 얼굴에 난 곰보자국도 볼 우물로 보인다더니 은정이한테서 미운것이란 하나도 볼수 없더군요. 방울코도, 두툼한 입술도 하하.》

《원 사람두, 자긴 뭐 잘났다고?! 세모눈에 조개턱에 먹사마귀 달아가지구…헛허허…》하며 덕준이 눈을 흘기었다.

둘은 또 한바탕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 덕준은 즐겁기 그지없이 온몸이 하늘가로 뚱뚱 떠오르는듯싶었다. 지난날에 대한 생생한 추억들이 그의 마음을 그토록 짙게 한것이다. 그러기에 늙은이의 활기는 추억의 덕이라지 않는가, 물결은

쉬임없는 이야기를 속삭이는듯 파도쳐 출렁이며 철썩 쳐질썩 때목에 부딪친다. 습습한 물비린내를 담은 선들바람에는 피나뭇꽃향기가 실려있다.

굽이굽이 계곡을 감도는 물길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강상윤소장이 정색하여 말하였다.

《그후부터는 아바이가 절 꾸짖어 하신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로 늘 떠오르곤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때군의 마음이란 강물처럼 맑아야 한다던 말씀이 더구나 잊혀지지 않았구요. 때물길이란 한번 들어서면 되돌아설수도, 멈출수도 없는 길이니 때군의 마음은 때물길처럼 맑고 시원해야 한다는겁니다. 빠르구 급하구 사납다가두 밑에서 소용돌이치는 깊은 소가 있듯이, 때목우에선 맹수처럼 용맹스럽구 펄펄 나는 때군들이지만 입을 꼭 다물면 가슴속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구 했구요. 그런 때군다운 마음을 처녀들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상윤은 감회어린 눈길로 덕준을 바라보았다. 형언할수 없는 충격이 덕준의 흥벽을 울리었다. 자기가 들려준 별치 않은 말들을 소중히 간수하고 살아온 강상윤에게 사례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그때 덕준은 은정리와 상윤이 좋은 배필로 되리라 믿고 그들이 결합되도록 이끌어주었던것이다.

강상윤은 더욱 감회깊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최아바이의 그 때군다운 마음이 언제부터 가슴속에 드림없이 자리잡았는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한테 들려주셨지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작업소에 오셨던 일요…》

불현듯 덕준은 눈을 습뻑이며 고개를 숙이었다.

아, 그래서였구나. 내가 들려준 범상한 말들도 뜻깊게 받아들인 강상윤의 웅심깊은 마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덕준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움을 느끼었다. 따스한 아지랑이의 물결이 온몸을 휩쌌다. 상윤이 상기시킨 감격의 그날, 추억은 스무해를 거슬러올랐다. 꿈같은 일이었다. 외진 림산작업소마을에 그이께서 오실 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내리는 물동가에 서계시었다. 출발준비를 끝낸 류별공들이 그의 보살피심속에서 때장대를 짚으며 수문가까지 접근하고있었다. 맨 앞때를 탄 덕준은 가슴을 울렁이며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수문 가까이로 다가오시는 그이께 한 일군이 급히 우산을 펼쳐드리려 했으나 끝내 만류하신다. 때머리가 수문에 들어서려는 바로 그시각, 덕준은 사품치는 물소리, 비방울소리 속에서도 그이의 자애에 넘치신 우렁우렁한 음성을 푹푹히 들었다.

《장하오, 용감한 동무들! 동무들은 석탄전선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전초병들이요!》

덕준은 감격에 넘쳤다. 그이의 해빛같은 모습에 넘치는 어버이사랑을 절감했다. 그이의 위대한 영상은 영원히 지울수 없는 숭고한 화폭으로 덕준의 뇌리에 강하게 인박했다.

그날 폐목을 무사히 넘기고 돌아온 덕준은 류벌공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은정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목이 메었다. 류벌공들에게 높은대우를 해주라고 하셨다니... 칠성관을 지고 다니다던 어제날의 《물물이군》들을 오늘 이렇게 세워주시다니...

폐머리가 여울목에 들어서고있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더니.》

덕준은 동이 당지 않는 말을 하며 일어섰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모순된 감정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이제는 나이들어 주인답게 물질을 지켜가자던 결심도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가슴아픈 자각이 그의 마음을 건잡을수 없이 휘저어놓았다. 이제 내가 소장에게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그는 내가 들려준 말들을 되살리고있지만 일선에서 물러서야 하는 지금에 와서야... 말문이 막혀버린 덕준이어서 동이 당지 않는 말을 하며 폐장대를 잡은것이였다.

그때 내가 한 말들은 모두 옳았다. 나역시 폐군다운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양성공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키워내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폐군의 그 마음을 버리고 천년을 산다 한들 무슨 락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방금까지 그렇게도 즐겁던 기분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림을 덕준은 느꼈다.

어느덧 직소에 이르렀다. 날카로운 바위들로 기묘하게 굴곡을 이룬 직소의 급경사여울을 《직통》이라고 불렀다. 립산사업소의 삼백리물길에서 가장 위험한 오백메터구간이였다.

덕준은 영호가 직통을 무사히 넘긴것을 무척 다행한 일로 여기였다.

강상운소장은 직통에 들어설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1 번명대의 바줄을 바투 조여매었다. 그다음 폐죽의 손잡이에 바를 걸어 튼튼히 감아쥐고 나서 덕준에게 주의를 준다.

《아바이! 폐장대를 단단히 버리고 서십시오.》

덕준은 폐장대를 옮겨짚으며 입을 꼭 다물었다. 노엽고 섬섬한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흥, 사람두, 날 양성공 대하듯한다니까...)

귀뿌리가 씩하도록 쏙살같이 내닫는 폐목, 폐목을 꼭 잡으며 허리치는 사나운 물결, 얼굴에 덮씩워지는 뽀얀 물보라... 쿵 꾸르릉! 우뢰소리마냥 나무통들이 직통의 쿵크리트벽을 울리는 진동... 폐목의 세찬 흔들림에 덕준은 잠간사이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상운이 얼핏 뒤돌아보았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였다.

덕준은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중얼거렸다.

《젠장, 이젠 틀렸어. 소장이 마음 못놓게도 됐거든.》

덕준은 폐물이공답지 않게 몸도 마음도 나약해졌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한스러워했다. 직통을 빠질 때면 짜릿한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용솟음치는 힘과 희열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

육신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불안했고 남의 보호를 받고있는 자신이 불만스러웠다.

직통을 빠져내려 직소에 들어서자 덕준은 폐꼬리를 풀어주려 폐장대를 짚었다. 팔굽과 어깨가 아파나서 폐장대질도 마음껏 못하겠다. 전쟁때의 상처자리가 도지는 모양이다.

(어이쿠 팔이야, 소장이 이걸 알구 독활술을 부어주며 잠복하라고 하는게지. 늙으면 없던 병도 생긴다더니... 그래서 인생말년을 푹바로 산다는게 험치 않다는 소리겠지.)

생각할수록 가슴만 답답해지는것 같았다. 생각하지 말자고 해도 보람찼던 지난일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것이어서 덕준은 나직이 한숨지었다.

강상운은 느린 동작으로 팔을 돌려 폐죽을 저으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해방전에는 《죽음의 소》로 폐군들속에 불리우던 직소의 원한이 노래의 가사와 선율에 담긴듯하여 덕준은 구슬픈 감정에 휩싸였다.

늬의 눈물겨운 이야기

폐목우의 초막에 깃들었느냐 ?

늬의 한많은 평생 모닥불에 타서

한줄기 연기로 없어지느냐?

물사품을 일으키는 직소의 물결이 폐목에 부딪쳐 부서져내리며 상운의 구성진 노래에 화답하여 흐느끼는듯 출렁 처절씩! 출렁 처절씩! 가락을 맞추었다.

물피리 불며 울며 흘러갈제

강 건너 천리길을 이미 떠난 봄

재 넘어 구름따라 끝없이 간다

에헥 에헤요 끝없이 가요...

얼마나 많은 이 나라 백성들이 왜놈과 지주의 등쌀에 땅과 집을 잃고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흘러다니다가 한많은 세상을 떠났던가. 상운의 노래는 술한 폐물이공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원한의 물길-《죽음의 소》의 슬픈 사연을 말해주는듯 구슬픈 선율로 이어지고있었다.

끓기였던 덕준의 상념이 다시금 이어졌다.

언제부터 물길우에 류벌공들의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때로부터 오늘까지 즐겁고 보람찼던 일들이 이상하리만치 생생히 떠올라 덕준은 흥

분에 휩싸였다. 그중에서도 전국생산혁신자대회에 참가 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던 감격의 나날들을 더우기 잊을수 없었다.

불현듯 덕준은 심장부위의 동통을 느끼며 비칠거렸다. 피눈물로 영결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못잊을 추억이 예리한 아픔으로 되어 그의 심장에 강한 충격을 주었기때문인것이다.

덕준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듯 멍대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곱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심장부위의 아픔보다도 참기 어려운 크나큰 상실감에 덕준은 몸을 떨었다.

어느새 보았는지 상운이 폐죽을 놓고 달려왔다.

《아바이 왜 이러십니까?》

상운이 질린 얼굴로 덕준에게 다가섰다.

《아-아무것도 아닐세. 자네 노텔 듣다가 그만...》

덕준은 미소를 그리려했으나 미간을 찌프렸을 뿐이다. 그는 소장의 눈길을 피하며 웅얼거렸다.

《이젠 늙었나보네. 자네가 마음 못놓게도 뻘지.》

소장은 말없이 지켜볼뿐이었으나 덕준은 그 눈빛에서 자기의 심리를 꿰뚫고있음을 직감하였다.

두사람은 묵묵히 담배들만 피웠다. 폐목은 느리게 흐르고있었다.

한동안이 지나 심장부위의 아픔이 가셔지자 덕준은 무겁게 몸을 일으켜 폐장대를 잡았다.

상운이 뉘우치듯 말했다.

《제 공연히 노텔 불려서...》

《아닐세, 노래야 힘이 되는건데... 늙은게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그렇지.》

《저도 어떤 땐 피로와 못견딜 지경입니다. 그럴 땐 그저 일감을 잡아야지요.》

덕준은 상운이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주는것이 꿈만 같아서 할 말을 찾지 못하며 눈만 슴뻑이였다.

상운은 다시금 폐죽을 잡았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80 평생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다가 순직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생각해서도 폐목과 함께 한생을 마치고싶어하는 자기의 소망을 알아주는 소장이 고마워 덕준은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문득 언젠가 그가 한 말이 떠올랐다.

《아바이야 폐장대를 손에서 놓고서야 한신들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소장이 폐목에 올라 짱을 박아주었었다.

물길을 떠나서는 죽을것만 같은 자기의 마음을 소장이 알아주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는것이 아닌가. 덕준은 눈물이 솟구칠 지경이였다. 하지만 남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물길에서 물

러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모순된 심리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폐목은 직소를 벗어나 오강소의 여울목에 들어서고있었다. 강변버드나무숲사이로 립산작업소마음이 그림처럼 바라보였다. 강기슭쪽에서 미역을 갇던 발가숭이아이들이 폐목을 향해 뭐라고 웨쳐댔다. 수영경기라도 하는듯 세아이가 물장구를 치며 헤엄쳐 따라오고있었다. 강가에서 빨래하던 녀인들이 질겁하여 고함을 질렀다.

《아서라! 애들아, 물에 빠질라-》

어머니들이란 저렇게 겁이 많다니까... 강바닥 등글자갈들이 환히 보일만큼 얇은 물인데도 애들이 물에 빠져 죽을것만 같은 모양이지. 아이적마음이 동해난듯 상운이 팔을 뻗치며 소리쳤다.

《애들아! 빨리 와라. 함께 타고 가자꾸나!》

따라오던 애들이 멈칫했다. 소장아저씨가 함께 타고 가자고 할줄은 몰랐던듯... 세아이는 가슴 노리치는 물가운데 서로 부둥키고 몰켜섰다. 그 애들이 손저으며 바래우는 웨침소리가 오래도록 덕준의 귀결에서 떠나지 않았다.

《잘 가세요! 아저씨-》

덕준은 강상운소장에게 호감이 감을 느끼였다.

얼마나 구김살없는 사람인가. 아이들과 어울리면 아이처럼 되고, 늙은이와 마주서면 늙은이 마음을 알아주고, 폐목우에 서면 양성공시절처럼 목청껏 노래부르고... 덕준은 강상운의 그 호방한 성격이 부러웠다.

폐목은 여울목의 애기동으로 다가서고있었다. 문득 덕준은 애기동가에 선 은정이를 보았다. 세월의 흐름에 겹쳐공쳐너 은정이의 모상은 가려졌어도 인사말을 건네는 그 음성에는 변함없이 살뜰한 정이 실리였다.

《명남이 엄마가 어떻게?》

무슨 급한 일로 여기서 남편을 기다리고있었는가 근심하며 덕준은 부부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보 못갔어요. 돼지새끼 시중에...》

《돼지새끼라니?》

《부업반 〈얼룩이〉가 새끼 열네마리나 낳았지요.》

《오, 그거 참 반갑구만...》

《그래서 명남이한테 보냈어요.》

《별사차루 갔나?》

《제 형 폐를 타구갔지요. 여기 나와서...》

빠른 물살에 폐목은 벌써 애기동을 지나 너인을 멀리 떨구었다. 은정의 마지막말은 물소리에 삼켜졌다.

(그러니 은정이가 명남이편에 무엇을 또 싸보낸게야. 폐군들한테 대접하자구... 남편과는 제가 같것으로 약속했었기에 그러지. 부업반장일도 할래, 후방사업도 할래. 요즘엔 《정춘실운동》까지 벌리느라구 눈코뜰새 없을게야. 소장인 남편

뒤받침하기가 험치 않지.) 하고 덕준은 생각했다.

덕준은 은정이 검책공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깨끗한 랑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있는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했다.

(부부오누이란 말이 꼭맞지. 상운일 봐서두 은정이가 그렇게 살아야 하구말구.)

덕준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어리었다.

덕준은 강상운소장에 대한 류달리 따뜻한 정과 친근감을 느끼며 그에게서 떼죽손잡이를 앗아쥐었다. 덕준은 배놀이하듯 앞뒤로 천천히 팔을 돌려 떼죽을 저었다. 곁에 선 상운이 《해당화》한대를 꺼내 입에 물었다. 절걱 라이타불을 켜던 그는 두어모금 빨고나서 그 담배가치를 제 손으로 덕준의 입에 물려주었다.

《자네도 한대 피우게나!》

맛스레 담배를 빠는 덕준의 음성에 푸근한 정이 실리었다.

《전 방금 피웠습니다.》 1번명대에 걸터앉으며 상운이 말은 이었다. 《여기에서 아바이가 전쟁때 부상당했었지요. 그때 흘린 피가 배서 저 자갈들이 벌겋게 된것이 아닐까요?!》

덕준은 상운이 가리키는 강바닥의 자갈들을 유심히 살피었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참말 일렁이는 맑은 물속으로 분홍색같이 나는 자갈들이 얼른얼른 보이였다. 소장의 마음이 헤아려져 가슴이 찢릿해진 덕준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사람두, 당치 않은 소리...》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덕준은 피가 배인것만 같은 분홍색 차돌들을 한참이나 굽어보았다. 떼바둑 앞머리에 공화국기를 꽂고 강도전에 펼쳐나선 인민군용사들에게 동발목 한대라도 더 보내주려 미제공중비적들의 맹폭격을 이겨내며 싸운 전사의 나날들이 그의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어느날 순천을 지척에 두었을 때 놈들이 던지는 폭탄에 떼허리가 동강나고 전우들이 기총탄에 관통상을 입고 후송되였다. 떼목은 모두 부서져 하나도 성한것이 없었지. 그래도 우리는 굴함없이 전우들의 복수를 다지며 부서진 떼목들을 합쳐 무어 기어이 평양까지 대이지 않았던가.

이윽한 동안을 두었다가 상운이 말했다.

《오늘 학생들이 옵니다. 분기계획을 넘쳐한 우릴 축하해서요.》

(아하, 그래서 소장이 명남이 어머닐 준비시켰었구나.) 그제야 덕준은 깨닫는 바가 있었다.

《아바이두 애들한테 좋은 애길 줘 들려줍시다.》

소장의 마지막말에 덕준은 펄쩍 놀랐다.

《애기라니? 그건 무슨 소린가?》

상운은 빙그레 웃으며 덕준을 안심시켰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그저 애들한테 살아오신 애길 들려주시면 될텐데요.》

덕준은 어이없는듯 낯색이 달라졌다.

《떼나 타며 살아온 늙은이에게 무슨 애기가 있겠다구, 소장! 아예 그런 생각 말라구.》

덕준은 손을 저었다. 상운은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 그만두고 덕준에게서 떼죽을 넘겨받았다.

(애들한테야 미국놈들을 쿡쿡 찌러죽인 전투경험담을 들려줘야지 떼나 탄 애기가 무슨 흥미있을라구.) 하고 생각하며 덕준은 머리를 저었다.

어느덧 물동에 다달았다. 학생들이 강기슭에 쭉 늘어서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흔들며대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악대가 나팔을 울리고 북소리가 동동거렸다.

기쁨속에 그 이름 부를 때면은
가슴속에 밝고밝은 해가 솟아라

노래는 잇을수 없는 그날의 추억을 불러왔다. 희망찬 선물을 타고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이 우렛이 떠오르고 한없이 친근하신 그이의 음성이 들려 오는듯싶었다.

학생들이 타고 온 벌사차는 꽃송이와 꽃테프들로 장식되였다. 앞머리에는 붉은색 칠감으로 쓴 큼직한 구호가 나붙었다.

《탄광에 더 많은 갱목을 보내주자!》

강상운소장이 손목시계를 보며 만족해했다.

《아바이 예측대로 어김없는 네시군요.》

《물세가 좋으니 시간을 앞당겼지.》

덕준이 또아리처럼 사린 떼바를 떼장대에 꿰어 매려는것을 어느새 다가온 영호가 빼앗았다.

덕준이 영호의 어깨를 두들겨주며 호탕하게 웃는다.

《영호, 이사람, 됐네 됐어! 이젠 진짜배기떼군이 됐단말이야. 하하하.》

영호의 얼굴은 금지에 넘쳐 환하게 빛났다.

상운의 눈길에는 의미있는 미소가 어렸는데 그 눈빛은 마치도 《아바이,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우리 청년들입니까. 이들을 대담하게 믿고 내세워 주어야만 위훈도 기적도 낳는답니다.》라고 말하는듯싶었다.

덕준의 뒤에 섰던 떼목들도 모두 무사히 들어섰다. 덕준이도 상운이와 영호도 학생들의 꽃물 곁에 손을 흔들어주며 떼목에서 내렸다. 류벌공들모두의 가슴에 꽃다발이 안겨지고 목에는 꽃목걸이가 걸리었다.

명남이가 안겨주는 꽃다발을 받으며 덕준은 그 애를 번쩍 들어올려준다. 끝없는 사랑이 북받쳤다.

《네가 꽃다발 받아야 할걸 그러누나. 너도 뭘 타고 왔지... 용쿠나, 영남아.》

일이 무성한 물황철나무들이 듽성듬성한 강언덕을 《무대》로 하여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시작

하였다.

소장이 덕준의 곁에 와 앉았다. 그는 더운 입김으로 덕준의 볼을 간지럽히며 낮게 말했다.

《아바이, 준비해주시요. 공연이 끝난 다음...》

《아니, 또 그 애긴가?》

덕준이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무춤해졌다. 소장의 눈길에서 때목우에서의 그 부드러움만 하던 눈빛과는 구별되는 열정에 빛나면서도 절절한 부탁을 담은 류다른 빛을 가려보았던것이다. 강상운의 따뜻한 눈길에 고무된 덕준의 심장은 높뛰기 시작했다. 아이들 앞에서 할만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언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하여본적있었던가. 덕준의 허둥거리는 눈빛을 가려본 강상운이 귀땀했다.

《아바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길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자는겁니다. 그 사랑이 곧 애국심과 통하여있는거지요. 물길에 깃든 사연두 좋구, 아바이의 지난 얘기두 좋구, 앞으로 저애들이 우리뒤를 이어 물길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될 얘기면 무엇이든 들려주십시오.》

덕준의 생각은 깊어졌다. 강상운의 고마운 의리에 가슴이 몽클해져서 무어라고 할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모든 점에서 자기보다는 훨씬 앞선 강상운소장과 같은 일군에 대한 말을 하고싶어졌다. 얼마나 다정다감한 사람인가. 인생말년에 더욱 보람을 느끼며 살라고 눈빛 총총한 저 아이들앞에 내세워주니... 선배를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고맙다.

덕준은 참다운 일군으로 성장한 상운에게 더욱 믿음에 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가를 소장은 벌써 다 깨우쳐준셈이다. 그러고 보니 소장이 부른 노래 한절, 말 한마디, 동작 하나에도 깊은 뜻이 담겨지며 덕준의 마음을 뜨거운 격정에 휩싸이게 하는것이였다. 강상운의 따뜻한

눈길과 마주친 덕준은 호응하는 뜻으로 알릴락 말락 고개를 끄덕였다. 덕준은 젊음을 되찾은듯 피가 끓고 새힘이 넘쳐났다.

그렇다,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명남이만 보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청춘 시절에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살며 일했는가를 다는 모를것이다. 우리가 타리게 한가치라도 더 절약하고 통나무 한대라도 더 실어날라서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자고 얼마나 아글타글 살아왔는가를, 어떤 량심과 의리로 마음들을 합치여 우리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왔는가를, 강상운이 오늘도 것처럼 귀중히 여기는 《때군의 마음》이란 대체 어떤 마음인가를 저애들에게 모두 말해주어야 하다.

은혜로운 사랑이 어려있는 이 물길을 떠나서는 못살리라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것이다.

물길은 다른 길들과 다르다. 목적지를 에돌아갈수도 되짚어갈수도 쉬었다갈수도 없는, 한번 떠나면 멈춤이 없이 거창한 바다로 흘러들고야 마는 영원한 흐름의 길이다. 최덕준이도 강상운이도 영원한 흐름인 이 물길과 함께 당을 따라 곧바로 자기의 흐름을 지나왔다. 이 물길로 하여 생활의 보람과 희열을 느꼈고 이 물길을 떠난 자신들을 생각할수 없었다. 이제 저애들도 바로 우리처럼 이 물길로 곧바로 갈것이다. 그리고 또 그다음세대들도... 인간의 생애는 끝이 있다. 하지만 물길의 흐름이 영원한것과 같이 류별공의 삶도 그렇게 영원히 이어질것이다. 그 삶의 영원한 흐름을 위하여 자기 몫을 하도록 강상운이 나를 깨우쳐준것이 아닌가.

덕준은 이 한순간에 한생을 살아서도 터득 못했던 생활의 진리를 깨달은듯한 환희를 체험했다.

잔디풀이 깔린 강언덕 《무대》에서 학생들의 노래소리가 맑게 울려 퍼져갔다. 바로 강상운이 때목우에서 부르던 노래였다.

이깎나무 참나무야 너도 가거라
너 가는곳 조국건설 꽃이 피리라
어여차 지여차 어야더야 어야더야

덕준의 눈앞이 물길의 굽이굽이가 화쪽으로 펼쳐졌다. 오강소여울의 맑은 물속에 비친 분홍색 차돌들이 드러나보이고, 선바위소의 고괘치는 물결도, 온몸에 상쾌하게 뿌려지던 직통의 물보라도 느껴졌다. 강기슭 물황칠나무숲에서 피골새소리가 들려오고 갖가지 산꽃들의 향기가 풍기는듯싶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 능금불, 그들이 안은 꽃다발이 한데 어울려 비껴 아롱지며 신비로운 빛갈로 출렁이던 물결이 눈앞에 선하다. 물결은 비록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덕준은 이 물길에 깃든 지난 세대와 현세대, 미래의 세대들의 벽찬 생활의 흐름, 노동과 창조의 거창한 흐름을 감득하게 된 무상의 기쁨을 느끼었다. 이 물길에 강물의 흐름에는 비할수조차 없는 거창한 사회의 흐름, 류별공들의 빛나는 삶의 흐름이 있어 그들 때 사람들의 생의 흔적이 굽이마다 여울마다에 깃들어있는것이 아닌가. 아이들의 맑은 미래의 상징인듯 맑고 씩씩한 노래는 덕준을 끝없는 상념으로 이끌어갔다.

저 아이들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 이처럼 믿어주시는 용감한 류별공들, 석탄전선의 전초병들이 무수히 자랄것이다.

덕준은 환희로운 감정에 휩싸였다. 강상운의

얼굴에도 한껏 밝은 미소가 어리었다.

《무대》에서는 맹세의 노래가 울리기 시작했다.
류벌공들이 목소리를 합치자 노래는 우렁찬 합창으로 번지었다.

맹세한다 우리는 수령의 유혼 지켜
더 부강하게 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용솟음치는 힘과 열정을 느끼며 덕준은 입속으로 따라붙었다.

천백배로 뭉치여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당의령도를 끝까지 받들리

나는 그 할머니의 손녀

오피천

오늘도 모내는 벌에 나오시어

내 할머니

모내는 기계를 몰아가는

이 손녀를 정겹게 바라보시네

전화의 날

어린 아기 방공호에 눕혀놓고

이라 낄낄 누렁소 앞세우고

보탑 잡고 씨엥씨엥 갈아번지던

그날의 그 논이랑을 생각하며

다시는 지주놈의 머슴되지 말자고

남편을 천리 전선에 보내고

후방 지켜 3년 세월을

벌과 함께 사신 할머니

내 만일 미술가였다면

논판에 박힌 시한탄을

한가슴에 안아다 내굴리던

할머니의 장한 모습

화폭에 담았으리

내 만일 글 쓰는 사람이였다면

어려리벌의 다수확농민으로

수령님 온 나라에 자랑해주신

할머니의 이야기 소설로 썼으리

허나 나는

할머니의 손녀

할머니 어머니의 뒤를 이어 벌을 가꾸는

이 벌의 농장원

나는 심어가요 실한 벼모를

파헤쳐진 폭탄구덩이를 메우고

빈땅을 남기지 않고 새겨간

할머니의 그 자욱 다 찾아...

귀잡이도 모조리 찾아 쓰다듬은

할머니의 그 손길 다 더듬어...

아, 나는 그 할머니의 손녀

쌀로 조국을 지킨 할머니처럼

장군님 빛내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쌀로 받들어

나는 할머니의 손녀로 영원히 살래요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고...

망망대해를 항행하는 배들이 캄캄한 밤 사나운 폭풍우속에서도 거침없이 오가는것은 등대의 휘황한 불빛이 있기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이 창건후 50년, 그 뿌리가 내린 때로부터 근 70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거침없이 빛나는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는것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등대마냥 드물지 않는 주체의 해불을 높이 추켜들고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전투적기치가 있었기때문이다.

이번에 당창건 5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가 또한 그러한 등대, 전투적기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받아안고 총진군길에 펼쳐나선 전체 인민들은 필승의 신심과 백배하는 용기에 넘쳐 걱정을 금치 못해하고 있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 구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과 주체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얼마나 뚜렷이 밝혀져있는가!

참으로 이 구호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희망의 해, 승리의 해로 력사에 기록될 1995년의 진군길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부르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나의 눈앞에는 당의 호소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지혜와 열정, 고귀한 땀이 깃든 귀중한 로력적전물을 마련한 자랑과 긍지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선히 보인다. 한것은 투쟁목표가 명백하고 그 수행방도가 뚜렷할 때 우리 인민이 점령 못한 요새가 있어본적이 없으며 있을수도 없기때문이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구호의 자자구구를 심장에 새겨가고있는 나의 가슴은 마치 탐험대원이 고지정점에 올라 탁 트인 앞길을 바라보는 순간의

기쁨보다 더 큰 환희와 걱정애 휩싸여있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기어 이 실현해나갈 결심을 가다듬고있다.

해마다 당창건기념일을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긍지와 기쁨에 넘쳐 맞이해왔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 당의 창건자를 모시지 못하고 당창건 50돐을 기념하게 된 애석함과 비통한 마음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그러나 사상도 령도력도 덕망도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 구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당의 령도밑에 5대혁명가국을 창조할 때에 발휘한 그 열정과 기백,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문학예술창조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키자!》

나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의 한 초소를 맡고있는 당의 문필전사로서 사회주의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는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겠다. 그러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문학예술부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 창작실천에 구현해나가겠다. 당면하게는 장편력사소설 《최무선》을 완성하여 출판에 회부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형상한 단편소설을 당창건 50돐 축전작품으로 완성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결의하며 아울러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써내겠다는것을 다짐하는바 이다.

소설가 강학래

감흥있는 노래를 안고

또하루 새날이 밝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속에 섞여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안고갈 위훈을 다짐하며 출근길을 다그치는 나의 마음은 신심에 넘쳐있다.

희망과 긍지에 넘친 걸음걸음을 고무해주며 거리거리에서는 당창건 50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구호가 방송원의 격동에 찬 목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70여성상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역사적투쟁의 진두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이해의 진군길을 다그쳐 나가는 우리는 수령복을 누리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넘쳐있다. 그 행복, 그 영광을 안고 당창건 50돐 대축전장으로 달려가는 이 가슴에는 당의 사상을 훌륭히 구현한 한편의 노래가 백만대군의 심장을 울린다고 호소한 당중앙위원회의 구호가 절절히 새겨진다.

구호의 힘찬 메아리를 가슴에 새기고새기며 다그치는 걸음은 그 어느때보다도 활기에 넘친다.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힘찬 진군길에 활력을 주고 적극 이바지하는 감흥이 있는 작품, 천만대군의 심장을 울리는 시와 노래를 안고 당창건 50돐 대축전장에 떼뗏이 들어설 새로운 결의로 충만된 레사롭지 않은 새 아침이다.

시인 리광근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으로 창작을 적극 선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작가들은 조선로동당창건 5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받아안고 커다란 감격과 걱정애에 잠겨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구호에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전투적강령이 현실로 실현된 내 조국의 찬란한 모습을 상상하여봅니다.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어 그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영광스러운 우리 당, 삶의 터전이며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조국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자랑하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아가는 우리 인민,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이 철저히 관철되어 나라의 위력이 강화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더욱 높아진 변모된 조국의 모습...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작가들에게 어떤 주

제, 어떤 생활에 력점을 찍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가를 그대로 명시하여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받아안은 작가들의 심장이 창작적열정으로 끓어번지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평론가들인 우리의 가슴도 새로운 전투에 들어서는 병사들의 마음처럼 끝없이 흥분되어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승리의 길을 빛나게 열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매한 품모를 훌륭히 형상하도록 작가들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서 중첩되는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이겨내며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준비되어가는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도록 작가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겠습니다. 평론가가 진실로 창작을 선도하려면 정치적 식견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싹을 찾고 그것을 자라울수 있습니다.

나는 평론가에게 있어서 학습은 곧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분야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리론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론가 정룡진

연백벌 사람들

김명익

연백벌에 봄이 왔다. 모내기철이다. 민뜻한 등성이밭들에 강녕이영양단지모를 낸지가 엇그제같은데 어느사이 땅냄새를 맡은 강녕이모들이 야들야들한 새순들을 곳곳이 퍼들고 바람결에 하느적거린다. 벌마다 포전마다에서 기운차게 들러오는 트랙터발동소리와 고르로운 모내는 기계의 동음속에 드넓은 벌엔 하루가 다르게 푸른 주단이 가없이 펼쳐진다.

모내기전투가 한창고비에 들어서자 천태리당비서 리영복도 관리일군들 못지 않게 바쁘게 돌아갔다.

30 대의 젊은 나이인데다가 워낙 건장하고 사업의욕이 많은 그는 걸음걸이조차 남달리 씨엥씨엥 해서 아무리 멀고 구석진 작업반포전까지도 하루 길이면 능히 돌아보고 계획했던 일들을 죄다 처리하곤하였다.

오늘도 그는 이른새벽 천도산기슭의 외진 작업반을 거쳐 한낮도 못되는 사이에 소재지까가이에 있는 번개틀포전에 이르렀다. 큰길역에 자리잡고 있는 1작업반의 번개틀벌은 그전날에 번개가 치고 비가 와야 모를 낸다는 척박한 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동강물과 레성강물이 철철 넘치게 흘러들어 물부족을 모를뿐만아니라 땅을 잘 갈구어 농장적으로 제일 소출이 높은 상답논으로 되었다.

올해에는 그 어느해보다 질 좋은 거름을 듬뿍이 내고 흙갈이를 한데다가 튼튼한 모를 제일 선참으로 내기 시작하여 지금은 마감고비에 들어서고 있었다. 오색기가 나뭇기고 열기를 띤 포전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리는 번개틀로 걸음을 옮기던 리당비서 리영복은 이곳 포전에 들어설 때면 태양 그리하듯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이였다.

기억도 생생한 1993 년 8 월 31 일, 연백벌의 농사작황을 친히 보아주시며 이곳에 오신 아버지 수령님께서 아침안개 걷히는 포전머리에 오래도록 머무르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농사를 정말 잘 지었다고, 동무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그리고도 만족해하시면서 다음해 가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주시었을 때 이고장 농민들은 얼마나 그 얼마나 행복에 넘치고 감격에 목메어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던가!

그러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연백벌에 마련해놓은 전례없는 대풍을 다시 보시기 못하시고 천만뜻밖에 우리결을 떠나셨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였을 때 온 농장원들이 이 벌에 모여와 수령님께서 보시지 못한 이 나라 이 땅의 풍년곡식을 어떻게 감히 거두어들이겠는가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았던가.

정녕 연백벌의 이해의 봄, 이해의 모내기는 그 어느해와도 같지 않았다. 아니 같을수가 없었다. 연백벌사람들의 심정은 어느해와도 달랐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그대로 땅이 되고 거름이 되었고 포기포기 벼모가 되어 포전으로 옮겨지고있는것이였다.

푸르러가는 현지교시포전을 돌아보고 삽교천동쪽길을 따라 도하동벌로 걸음을 옮기던 리영복은 마주오는 농장기사를 먼눈에 띄어보았다.

기사장 주공식은 비록 몸은 체소하고 환갑을 바라보는 늙은 나이이지만 농사경험이 많고 책임성이 높아 성실한 일꾼으로 알려지고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렇게 어깨가 처지고 걸음이 무거울가. 필경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모양이였다. 혹시 도하동벌의 모내기실적이 시원치 않아서인가... 도하동벌의 모내기가 끝나면 농장적인 모내기가 끝난다고 하면서 며칠째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전투를 지휘하고있던 그였었다.

《비서동무, 마침 만났군요...》

기사장은 늘 들고다니는 수첩장부터 번지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걷어올린 바지가랭이며 봄벌에 가무잡잡하게 탄 그의 얼굴에는 요 며칠새에 주름이 더 늘어난것 같았고 더 작아보이기까지 하였다.

《우리 여기 좀 앉아 다리쉽이나 할가요? 나도 기사장동무를 만났으면 했겠습니다.》

리영복은 미소를 지으며 제먼저 봄풀이 파랑게 돌아난 동쪽우에 앉았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쪼크리고 따라앉은 기사장을 다시금 결눈으로 바라

보면서 25 년나마 녀성관리위원장과 손잡고 일해 오는 그의 남모르는 수교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껴보았다.

이런 때 남자들이란 구수한 담배를 나누어 피우면서 서로 속마음을 터놓기 마련인데 그들 두사람은 다같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잠시 덤덤히 앉아 유유히 흐르는 삽교천 물결을 바라볼뿐이었다.

《기사장동무, 그 수첩을 내가 좀 봐도 일없겠습니까?》

리당비서가 넌지시 말을 걸자 기사장은 그래주기를 바라거나 한것처럼 선뜻 내밀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의 수첩에는 작업반별 모내기공정과 진행정형이 날날이 적혀있었는데 3반과 13 반의 포전들이며 도하동별의 모내기실태가 붉은 원주필로 특별히 표시되어있었다. 그의 집작은 틀리지 않았던것이다. 영농공정들을 계획대로 밀고나가자면 더 있어야 할 로력과 기계수단들...

《방금전에도 지원로력때문에 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속히 결심을 하라는거지요...》

《...》

그의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젊은 리당비서는 수첩장우에 눈길을 박은채 아무 대꾸도 없었다. 현지교시를 받은 농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앞서기를 바라는 군의 립장에 대하여 그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 기사장동무는 도하동별이 현재 로력으로 제 날자에 모내기를 끝내기 어렵다는거지요?》

《...》

이번에는 기사장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영복은 대답없는 그를 나무라지도 않았으며 기어이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수첩속에 적혀져있는 수자와 사실들은 모든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었던것이다. 사실 올해는 레년과 달리 새 땅도 더 많이 찾고 논면적도 늘어난데다가 모내기에 뒤따르는 보식과 비료시비, 물관리 등 모든 영농공정을 주체농법대로 어김없이 실행하자면 로력이 긴장하였다.

《관리위원장동무를 만나보았습니까?》

리당비서는 또 물었다.

《...?》

기사장은 역시 침묵으로 대답하려는듯 입을 다물고있었으나 리당비서는 꼭 답변을 들으려는듯 그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비서동무도 관리위원장동무의 성미를 잘 알지 않습니까?》

기사장은 리당비서의 눈길을 이겨낼수 없는지 겨우 입을 떼었다. 그가 말하는 관리위원장 백경실의 성미란 언제나 자기 농장이 군적으로 제일 앞장서는것을 좋아하는것과 다른 또 한가지는 남의 힘을 빌어 농사를 짓는것을 커다란 수치로 여기고있는것인데 말하는 어조로 보아서는 그중 어느것을 녀두에 둔것인지 인차 가늠할수 없었다.

《그러니 기사장동무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장동무와 합의를 보지 못한셈이구만요.》

리영복은 슬며시 수첩장을 덮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사실은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까 도하동별에서 위원장동무를 만나긴 했는데 그는 포전선전실에서 주사를 맞고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며칠간 안정하지 않는다면 아주 몸져 누울수 있다고 하면서 뿌리치는 그를 겨우 뺄스에 태워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아니, 그렇게 뻘단말이요?》

리영복은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그럼 리병원에 있겠습니까?》

《위원장동무의 성미에 병원에야 누워있을라구요. 집에 있겠지요. 저도 의사선생님에게 단단히 일렸습니다. 오늘은 꼭 곁에 붙어서 안정도 시키고 병상상태도 관찰하라고말입니다.》

《몸이 그지경될 때까지 무리를 하다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무관심했거든요. 농사차비때부터 휴식일이나 명절날조차도 쉬지 않고 벌에서 아글타글 일해오는걸 알면서도 결정적대책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리영복은 어디로 간단 말도 없이 기사장의 수첩을 손에 그대로 친채 성큼 일어나 걸음을 떼었다. 사실 지금 그의 정신상태로써는 수첩을 돌려주고 기사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줄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것이다. 녀성의 몸으로 50 이 넘도록 관리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걸머지고 힘겹게 일해오는 그를 가까이에서 잘 도와주고 돌봐주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이 가슴아프게 미쳐올뿐이었다.

리영복이 이곳 천태리당비서로 부임되어온지는 불과 1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백경실관리위원장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일찌기 아버지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세차례씩이나 찾아오시여 분계연선지구를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려주시려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며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백경실관리위원장이 바쳐온 로력은 그 얼

마였던가. 준비하게 늘어선 세칸짜리 합각지붕의 덩실한 문화주택들, 연백벌치고는 제일 척박하다는 천태농장을 군적으로 손꼽히는 알곡생산기지로 꾸려놓은것은 물론 작업반마다 그뿐하게 차려놓은 생산건물이며 천도산기슭의 과수원과 42 정보에 달하는 감나무밭들... 어디 그뿐인가. 작업반장으로부터 분조장, 관리일군들과 기술자들에 이르기까지 끝끝나게 키워냈으니 그렇게 되기까지 가정부인으로서 30 여년간 그가 기울여온 노력과 마음이 그 어디엔들 숨배여있지 않겠는가.

충효일심의 마음으로 가슴불태우며 쌀로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 내 나라를 지키려는것이 그의 신념이고 의지이기에 연백벌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농사를 잘 지었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였을 때에도 심장의 맹세를 다지며 삼가 말씀을 드리였던 것이다.

《어버이수령님! 이제는 수령님께서 험한 농촌길을 더는 걷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린 말씀이 마지막이 되었으니 그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저는 불초한 자식이예요. 대죄를 짓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몸이예요. 제가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농촌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을 두고 그토록 심려하시였고 그래서 너무도 일찍이 우리결을 떠나시였어요...》

비서동무, 이 한몸이 그대로 한줌의 흙이 되고 날알이 되어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실현할수만 있다면 그 무엇을 마다하겠나요...》

그때 가슴을 두드리며 하던 그 말이 단지 참기 어려운 슬픔과 눈물을 이겨낼수 없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였음을 리영복은 나날이 느끼고 체험하였다. 그는 말그대로 충성과 효성의 불씨가 되어 온 농장원들을 이끌어온것이였다. 그러니 무죄로 만든 몸이 아닌 이상 무리할대로 무리하고 지칠대로 지친 그의 신상에 병이 생기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리영복이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그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조용하였다. 그리 넓지 않은 부지의 트락에는 여러칸의 돼지우리까 반나마 차지하고있었는데 한창 큰끓에 든 돼지들이 한꺼번에 머리를 쳐들고 먹이를 달라고 꿀꿀거렸다. 두 아들은 모두 농업대학에 보내고 늙고 병약한 시어머니를 모시고사는 무거운 가정적 부담속에서도 관리위원장은 해마다 1톤이상의 고

기를 생산하여 인민군대와 중요 대상건설장에 보내주고있었다. 그가 돼지를 기르는것은 단지 고기생산만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땅을 갈구하면 질 좋은 거름을 논밭에 내야 한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에 여기서만도 매해 100 여톤의 거름을 생산해내고있었다.

현관문으로 들어서서는 그를 맞아준것은 녀의사였다. 그는 어째서인지 안절부절을 못하는 표정이다.

《비서동지, 관리위원장동지를 못보셨습니까?》

약간 떨리는 녀의사의 물음에 그는 어안이 병병했다.

《제가 그만, 잠깐 병원에 약을 가지러 간 사이에...》

질책하는듯한 리당비서의 부리부리한 눈길앞에 녀의사는 말끝을 흐리더니 다급히 신을 끌며 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방안에는 약봉지와 주사기가 놓여있을뿐 이부자리는 퍼놓은채 그대로였다. 어데론가 관리위원장을 찾아 녀의사가 나간사이 리영복은 잠시 방한가운데 서있었다.

이 방에 들어서면 늘쌍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벽면을 가득채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이였다. 그중에서도 보면볼수록 숭엄해지는것은 번개틀포전머리에서 환히 웃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천연색사진이였다.

그 사진을 숙연히 바라보느라니 지난 설날아침에 있었던 일이 문득 떠오른다. 그날 사무실에서 《로동신문》에 실린 공동사설을 읽고난 그는 어째서인지 관리위원장과 마주앉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어 그의 집을 찾았었다.

방안에 홀로 앉아있는 백경실관리위원장은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는것이였다. 그렇하니 고인 눈물을 삼키듯 어깨가 가볍게 떨고있었다. 해마다 설날이 오며는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들으며 그리도 정정하시고 그리도 자애로우신 그이를 몸가까이 뵈옵는것만 같아 환희와 기쁨속에 새해를 맞군하였는데 다시는 그이의 신년사를 들을수 없게 되었다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이 그의 가슴을 못견디게 저며내고있었던것이다.

리당비서 리영복의 심정 역시 다름바 없어 아무말도 꺼내지 못하고 추연히 섰는데 화면음악이 끝난 텔레비존에서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의 1994년 신년사를 록화실황으로 보내주겠다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리는것이였다.

그러자 백경실관리위원장은 꿈에서 깨어난듯
번쩍 놀라며 눈물을 닦더니

《비서동무 ! 어버이수령님께서 신년사를 하셔
요! 우리 수령님께서 나오셔요!》

하면서 경황없이 텔레비존앞으로 다가가 정중
히 몸가짐을 바로하는것이였다.

자나 깨나 뵈고 싶고 그리워 마음 달려
가 그이의 영상, 그 영상 우리를 때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어 농사를 더
잘 지으라 하신 그이의 음성 들려오는것만 같아
슬픔과 눈물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억척스레 일
해온 그였다.

(어버이수령님! 저희 연백별농민들은 수령님께
서 생전에 바라시던대로 해마다 만풍년을 가꾸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겠습니다.)

먼 출장길을 다녀오시여 아들딸자식들의 인사
를 받으시는듯 사랑에 넘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영
상을 우러르며 백경실관리위원장은 흐르는 눈물
속에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시각 관리위원장도 리당비서도 어떻
게 되어 설날아침 텔레비존화면에 신년사를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져 천만
사람의 심장을 울려주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는
미처 알수 없었으니 새해 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뜻깊은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그들 두사람은 송고
한 격정과 환희에 차넘쳐있었다.

《피눈물속에 1994 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
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
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
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
갑시다.

1995. 1. 1 김 정 일

친필서한의 자자구구가 그대로 충성의 피가 되
여 온종일 심장을 끓이던 백경실관리위원장이 그
날 리당위원회 사무실문을 두드린것은 자정이 가
까와오는 깊은밤이였다.

어떻게 하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
으켜 쌀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것인가 모색하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앉아있던
리당비서였으니 한개 리의 농사를 책임진 관리위
원장이 이밤에 찾아온 사연을 굳이 물어 무엇하
랴.

《...아무리 생각하고 타산해보아도 걱정뿐이예
요. 우리 연백별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보당 알곡 10 톤을 내는것이 자신의 구상이시
고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놓은
농사차비정형을 놓고봐도 그래 저자신의 마음의
준비를 량심적으로 검토해봐도 그래 당의 송고
한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데서는 미흡한점이 많아
요.

정말 올해 농사는 어떤 농사인가요.》

그렇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의 본
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전사라고 가슴펴고
말할수 있으랴.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며 말을 듣고있던 리당비
서 리영복은 사려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날밤 그들이 주고받은 말은 그리 길지 않았
으나 모내기에 들어선 오늘까지의 나날에 관리위
원장과 리당비서가 걷고걸은 밤길이 그 얼마였는
지 모른다.

이러한 그들이였기에 봄씨불임때부터 군에서
지원로력을 주겠다고 하자 한결같이 자체로 농사
를 짓겠노라고 거절해왔던것이다.

《우리 농장이야 15 년동안 자체로 농사를 지어
오지 않았나요. 물론 올해는 부침땅면적도 더 늘
어나고 알곡생산목표도 어느해보다 높이 세우다
보니 로력이 긴장한것만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올해가 어떤 해인가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첫해이고 조국해방과 당창건 50 돛을
맞는 해가 아닌가요...》

며칠전 기사장 주공식이 자기가 따져보고 타산
한 공정별 영농준비와 로력실태를 열거하면서 올
해는 다른 해와 사정이 다르다고 걱정했을 때에
도 관리위원장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랬
는데 그가 덜컥 병에 걸려 자리에 눕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위원장을 찾으러 나간
녀의사를 기다리고있는데 문기척소리가 났다.

문쪽을 바라보니 여전히 근심에 싸인 녀의사가
눈길을 들지 못하고 서있었다.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수가 없습니다...》

녀의사의 기여드는듯한 목소리였다.

《선생님이나 내가 여기서 관리위원장동무를 만
나겠다고 한것이 잘못이었소. ...의사선생님은 구
급약들을 빨리 준비해가지고 도하동별로 나가시
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동무가 책임져야
하오.》

리당비서는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한
다는 말도 없이 훌쩍 방을 나갔다.

...오늘의 하루해는 류달리도 빠르게 저무는듯
싶었다. 리영복이 작업반들과 해당 단위에 나가

초급일군들을 만나보고 간석지청년분조까지 들리며 도하동별로 발길을 돌렸을 때는 불덩이같은 동근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있었다.

씨엥씨엥 걸음을 옮기는 그의 불깃한 얼굴에는 느슨한 미소가 사라질줄 몰랐다. 아까 주공식기사를 만났을 때에는 그도 마음이 착잡했었는데 걸렸던 문제들을 풀고보니 온갖 피로가 가셔지는듯 싶었다.

(우리 기사장동무는 이름그대로 <공식> 이거든. 우리 농장의 농사를 위해서라도 더 늙지를 말아야겠는데. ...)

그가 기사장을 두고 내심 만족하고 미더웁게 생각하는데는 그럴만한 일리가 있었다. 사실 처음 아무 생각없이 들고 온 기사장의 수첩은 의외로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것이다. 수첩속에 깨알처럼 적어놓은 날자별, 공정별 수자들은 도하동별의 뒤떨어진 모내기실적만이 아니라 앞선 작업반의 로력과 기계수단들의 예비까지 한눈에 헤아려볼수 있게 하였다. 그 수자와 사실 앞에선 아무리 엉큼한 《본위주의》 작업반장들까지도 꼼짝 못하고 예비주머니를 털어 도하동별을 돕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수첩에는 기타 작업반과 부대로력, 지어는 리안에 거주하고있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부양가족 수자와 명단들도 날날이 기입되어있었다. 그들만 잘 발동하여도 적지 않은 로력예비가 나왔다. 바쁜 농사철에 맞게 그들도 제할바를 하고는 있었지만 모든 일에는 선후차가 있는법이다.

더우기 그가 만나는 사람들앞에서

《...동무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올해 농사는 이제는 우리에게 오직 한분밖에 계시지 않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짓는 첫해 농사가 아닙니까. 우리야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이 어려있는고장에서 살며 일하는 연백별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누구나 심장에 끓는 맹세로 그의 호소에 호응하였다.

넓은 수로둑을 따라 얼마간 걸어가던 그는 다리목에 앉아 땀을 들이고있는 여럿의 낯익은 사람들과 만났다. 그들은 어디로 무슨 일때문에 가던 길인지 커다란 버치들과 늪솔등속을 옆에 놓았는데 그들속에는 리상점책임자 리영숙이며 군려관책임자 김숙경도 있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그들속에 관리위원장의 남편 신순선이 끼여있는것이였다. 작지 않은 기업소의 한개 부서를 책임진 그가 어찌되어 저 너인들속에 있는것일까? 혹시 관리위원장이 포전머리에 쓰러졌다는 전갈을 받고 급히 달려오던 길인지도 모른 다. 그들과 수인사를 나누고 알아보니

모두가 음식가지들과 지원물자를 가지고 벌에서 일하는 트랙트르운전수들과 모내는 기계운전공들을 고무해주고 일손을 도우려고 떠나온것이였다. 두부탕이며 만두와 떡이며 없는것이 없는데 들판에서 뜨끈하게 데울수 있도록 강마른 니탄덩이까지 준비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니 과장동무도 이들과 한일행인가요?》

리당비서는 신순선에게 웃는 말로 물었다.

《나라고 가만히 있을수 있나요. 그래도 명색이 관리위원장의 남편인데요...》

우둥부둥한 그는 사람좋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모두들 정말 고맙습니다. 한마음으로 도와주니 올해 모내기도 우리 농장이 단연코 1 등을 하게 됐습니다.》

《비서동지, 저희들이야 응당 할 일을 하고있을 뿐입니다. 글쎄 방금전에는 군당책임비서동지까지 가족들과 함께 저기 도하동별로 나가셨는데요...》

상점책임자 리영숙이 속삭이듯 일러주는 말이였다.

《그래요?》

《군당책임비서동지뿐이 아니랍니다. 군안의 책임일군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하, 그러고보니 우리 관리위원장동무가 지원로력을 받지 않겠다구 딱 잡아떼니 간부동지들이 이런 식으로 우릴 돕누만요.》

리당비서의 말에 모두들 즐겁게 소리내여 웃고 나서 도하동별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봄날의 하루해는 각일각 저물어가고있었으나 벌은 바야흐로 들끓고있었다. 방송차에서 힘있게 울리는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의 선율은 논을 고루고 씨레를 치고 모를 내는 사람들의 일손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듯싶는데 모판장에서 모함을 들고 나오며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던 리병원의 녀의사가 리당비서를 보고 주춤 섰다.

《아니 동무가?!》

《리당비서동지... 전 도저히 책임질수 없습니다. 글쎄 뒤떨어졌던 도하동별의 모내기가 따라앞서게 되었으니 관리위원장동지는 자기 병이 말끔히 나아졌다고 하면서...》

녀의사는 늘 부드럽던 리당비서의 입에서 금시 《그게 의사로서 하는말이요?》 하고 엄한 말이 튀어나올것만 같은지 흰목을 가만히 움츠려뜨렸다.

그런데 리당비서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고나서

《알겠소. 그런 일을 어떻게 의사선생님들한테만 책임지을수 있겠소... 자, 어서 나와 함께 모판장으로 갑시다.》

하고는 성큼 앞섰다.

절반나마 떠낸 모뜨기장에서는 마지막모뜨기가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방금 오락회가 벌어졌는지 누구를 지명해놓고는 손벽을 치며 부추기였다.

리영복은 분위기를 깨뜨릴것 같아 잠시 걸음을 멈추고섰는데 지명을 받고 일어서는 사람은 뜻밖에도 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이였다.

두사람이 목소리를 합쳐 선창을 떼자 그 노래는 곧 모뜨는 사람들의 합창으로 울렸다.

...

맹세한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 지켜
더 부강하게 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천백배로 뭉치여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당의령도를 끝까지 받들리

저녁의 붉은해는 불타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주려는듯 기울줄 모르고 오래오래 이글거렸다. 더더욱 푸르러가는 연백별은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있었다.

그대들을 자랑한다

윤영탁

정겨운 그 눈동자 들여다보면
맑은 하늘 고이 담은 호수갈더라
그 마음의 창문을 열고 들어서보면
언제나 향기그윽한 화원이더라

그 웃음 그 목소리 흐르는곳엔
서리불린 창가에도 무지개 피는듯
아 내 나라 조선의 녀인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자랑한다

눈물의 그 세월엔 울밑의 봉선화같이
숨어 시들었어도 그 미쁨 변함없었고
해와 별 찬란한 오늘엔
혁명의 길에 꽃으로 만발한 모습들

나라앞엔 효녀로 렬녀로
가정앞엔 누이로 안혜로
그지없이 다심한 어머니로
그 얼마나 뜨거운 마음 바치었던가

정을 주고 사랑을 기울일 때면
언제나 그 품은 봄날이였고
존엄을 지켜 싸움길 나설 땐
언제나 그 절개 송죽이었나니

뜻을 품고 가는 사나이들 걸음에
얼마더냐 머리태를 깔아준 녀인들은

쓰러진 아버지 오빠 남편들 대신
얼마더냐 보탑을 잡고 총잡은 녀인들은

하기에 그대들 젖을 빨며 자란 아들딸들
언제나 나라의 대들보들로 억세였고
그대들 사랑을 받은 사나이들은
언제나 뜻을 세워 굽힘이 없었다

그렇다 훌륭한 아들딸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어머니 그대들이 서있었고
훌륭한 남편들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안해들 그대들이 서있었다

반만년 력사의 그 갈피로부터
찬란한 오늘의 저 푸른 하늘아래
그대들 꽃피운 마음 백화원을 이루었고
그대들 세운 위훈 별기둥을 쌓았나니

아 세상엔 녀성들 많고많아도
나는 자랑하노라 조선의 녀인들이여
《전사의 안해》 《영웅의 어머니》
《녀성혁명가》들인 그대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밀고
영원무궁할 앞길에 꽃주단을 퍼가는
이 나라 녀인들이여 축복을 받으시라
조국의 이름으로 인사를 보낸다

시초

생활은 아름다워라

황성하

나는 아기를 안고

그저 처녀로
언제이고 홀몸일듯싶던 나에게
아기가 있습니다
아침저녁 나는 아기를 안고
일터로 오갑니다

마치 다발로 가득찬 꽃바구니
담뱃 안고가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보았으면 하구요
정말이지 그 어느 예쁜 꽃송이들
내 아기에게 비길수 있을가요

아기를 잠재우느라 이불깃 여며주느라
밤새 쌓였던 피로도
아기와 함께 갈 땐 다 사라집니다
가로수 축축한 잎새에도 손 스쳐보고
지저귀는 새들과도 속삭여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봄날을 알리는 제비처럼
아침을 신고오는 노을처럼
아기가 이렇게 사랑스러울줄은
기쁨만을 한가득 안겨줄줄은

허나 내 인젠 어머니기에
때로 이 마음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다가도 이 땅에만 눈부신 사랑의 해빛
찬바람 막아주는 그 해빛의 따스함에
나도 아기도
활짝 피는 꽃처럼 웃음가득 뿌립니다

내가 피를 주고 살을 준 생명
어찌보면 다시 태어난 나이기도 한 아기
아, 나는 아기를 안고
아기는 밝은 래일을 안고
향도의 태양이 비쳐주는 길
사회주의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복받은 삶을 걸어갑니다

이웃들

앞집 옆집 한복도에 나란히
집집을 잇대고 사는 이웃들
서로 이사짐 풀던 날부터
한식구로 되어버린 우리 이웃들

시집간 딸의 살림살이 마음 못놓는
친어머니같은 옆집할머니
손재간 좋은 이웃아저씨 얼마나 좋구요
복도청소 양보없는 저 옥이네는

그래서 내 만두라도 빛으면

이웃들과 즐거이 나눈답니다
크고작은 기쁜 일 어려운 일 있어도
옆집의 문을 두드리길 즐겨합니다

서로 남의 집 문두드리기에
어색하지 않는 우리 이웃들
정을 안고 들며날며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 우리 이웃들

혈육도 남이라는 그런 나라 생각하면
더욱더 아끼고싶은 이웃들의 정

그래요 이것은 남이 없는 내 나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조국이 꽃피운 정이에요

나의 집

저녁이면 노을도 창가를 못떠나는
보통강기슭의 나의 집
이맘때면
주부인 내가 누구보다 바쁜 때

방안에선 뒤따라 퇴근해온 남편이
아기와 함께 즐기는 소리
그 정다운 웃음소리 들을 때면
소리없이 이 가슴 흔드는 기쁨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솜씨껏 차릴수 있고
아기는 한껏 뛰놀수 있고
사랑도 마음껏 나눌수 있는 집

둘러보면 호화스런 재부는 없어도

우리의 지도자동지 부어주는 사랑이
따뜻이 이 몸을 품어주는 집
집을 떠나 어디 가도 그 어디 가도
마음속의 불빛으로 나를 부르는 집

락조 거둔 창가에 바람결 정답고
부드러운 꽃잎마냥 창가림 날리는데
끝없는 기쁨의 바다우에
하냥 생각을 저으며 가는 나

집없는 가정을 가정이라 하라
웃음없는 생활을 생활이라 하라
사회주의 내 나라 큰 집이 있어
샘솟나뵈 우리 집엔
행복의 샘이 솟고솟나뵈

저녁의 강반에서

일속에 묻혀 바빠 산다고
휴일날의 산책마저 우리 잊으랴
머리도 정돈하고 마음도 가시려
일요일 나왔어라 보통강반으로

풀빛물결은 흐르는듯마는듯
칠칠이 버들내린 의자에 앉아볼가
강물에 상쾌히 다리를 잠귀볼가
나울나울 나뭇기는 꽃잎을 따취고
딸애는 엮어질듯 풀밭에 뛰노는데

딸기빛 노을속을 오가는련인들도
그사이 퍼그나 놀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자라는 강반인가
로인들의 웃음소리 더 호합지고
소박한 가족연회도 한결 이채로워

엇갈리는 뽀트의 잔물결속에
추억의 노를 저어봄은 얼마나 좋은가
풀따기 즐기던 그 시절의 랑만이며
대학시절 열렬히 학습토론 나누며

꿈을 안고 사랑을 안고 걸었던 우리

소녀시절의 나의 공상이 자랐고
처녀시절의 나의 사랑이 움텔고
오늘은 나의 딸이 자라는 이 강반
시름없는 우리 삶 우리 생활이
숲처럼 자라나는 정다운 강반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많이 간직하라고
청춘들은 사랑을 더 많이 속삭이라고
간직한 행복은 예서 더 커지라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바람 찬 길 험한 길 먼저 다 걸으시며
우리에게 펼쳐준 이 강반 이 생활

오, 강반이며 사랑하노라 생활이며
노을의 애무속에 물결의 교요속에
못떠나는 우리 마음 뜨거운곳에
귀중히도 귀중히 심어진 조국이며
내 바쳐 지켜야 할 우리의 생활이며!

꿈을 안은 처녀

리형순

5월 초닷새, 해마다 이맘때면 벌방 농장들에서는 첫모를 낸다. 바야흐로 밤가는줄 모르는 모내기철이 시작된 것이다.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얼마나 그 준비를 짜고들어야 하는 것인가를 농사로 미련이 든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는 모른다. 정초부터 모판거름을 내야 하고 팽상모판의 바람막이바자를 둘러칠 말장갑과 활창대감을 마련해야 하며 겨우내 벼짚나래를 엮어야 한다. 그리고 땅도 풀리기전부터 모판을 만들고 바닥을 고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쯤한 일은 팽상모를 기르는 것에 비하면 약과이다. 팽상모를 실하게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가를 나는 연백벌의 어느 한 농장에서 현지생활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모내기가 시작되는 전날밤 온 작업반은 일무리 집처럼 흥성거렸다. 그 기분에 사로잡힌 나는 들길을 거닐고싶어 문밖을 나섰다. 초생달이 진 어스레한 합숙마당가를 벗어난 나는 울바자를 친 터밭을 끼고 마을앞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울바자밑에는 장다리무우들이 빼죽이 솟아있는데 마늘밭은 제법 푸른빛을 띤다. 채전을 끼고 덩실하게 들어왔은 아담한 문화주택의 지붕우에서는 비둘기들이 제흥에 겨워 꾸꾸거린다. 나는 그 비둘기들을 중학교에 다니는 그 집 막내가 키운다는것을 알고있다. 봄밤이면 비둘기들은 더 별스레 군다. 멋진 회색비둘기가 더 성화스럽게 구는듯싶다. 《비둘기집》은 등뒤에서 멀어진다. 꾸꾸거리는 야릇한 그 소리도 아련히 들린다.

울바자로 좁아진 소로길과 잇달아 마을앞길이 흰하게 트였다. 계서는 레성강물이 흘러드는 수로가 보인다. 유연한 물소리도 들린다. 조금 더 가면 수로둑이다. 물이 출렁이는 수로에 지금은 별들이 내려앉아 춤을 추고있을것이다. 황홀한 그 전경을 보고싶었다. 하지만 발길은 저도 모르게 팽상모판쪽으로 향했다.

희미한 별빛으로 하여 바람막이바자를 두른 팽상모판장은 그 룬판만 아련풋이 보인다.

나는 그리로 뻗은 들길을 따라 단단히 울타리를 둘러친 담장안의 생활을 그려보며 생각을 번

진다. 모판관리원처녀는 《비둘기집》 딸딸이다. 그 처녀를 신랑감을 가진 부모들은 누구나 마음을 둔다. 그의 미모는 거짓없이 아름답다, 일숨씨 또한 탓할나위없이 깐깐하다. 이 봄에 그가 모판관리를 자진해나선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 말아나섰다고 해서 그 중한 일을 맡기는것은 아니다. 그만큼 작업반원들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올해 농사가 어떤 농사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기 연백벌이 찾아오시여 논벼 정당 10톤을 내는것이 자신의 소원이요 희망이라고 절절한 말씀을 하시었다.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그이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응당한 본분이 아니겠는가.

논자랑 말고 모자랑하겠다고 논농사에서는 뭐니뭐니해도 벼모를 잘 길러야 한다. 그래야 일옥심도 나고 일판도 흥겨워진다. 그래서 농산분조장들이 한해농사의 작전을 벌릴 때 모기르는데 주되는 힘을 넣는것이고 모판관리공을 제일 책임성있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선정하는것이다. 그 중한 책임을 리소재지마을 분조에서는 《비둘기집》 처녀가 맡았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여 그 처녀는 한달 스무날을 모판장에서 팽이처럼 서서 돌아가며 때식도 거기서 했다. 쪽잠에서 꿈을 꾸어도 벼모가 잎이 돌아나고 푸르싱싱해지는것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고 추위에 떠는 벼모가 보이면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나군했었다.

그 정성, 그 열성에 벼모는 하루가 다르게 싱싱히 자랐다. 실한 팽상모를 보며 농장원들은 처녀의 수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날 해도 술한 사람들이 벼모구경을 왔었다. 하지만 처녀는 앞에 나서지 않고 한구석에서 수긋하고 일손만 놀렸다. 누가 보아도 농업대학 통신졸업생이고 꿈도 많은 이 처녀를 수수한 농촌처녀로만 보았다. 실새없이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는 일에 묻혀 다른 여념이 없다. 어찌다 있는 돌피를 하나라도 더 뽑으려고 했다.

나는 그런 처녀의 몸가짐을 여겨보며 그가 애지중지 가꾼 하나하나의 벼모들이 훌륭한 결실을

이루리라는것을 의심해마지 않았으며 흐뭇함으로 하여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결에서 그럴진대 벼모를 길러낸 그 처녀의 심정은 어떠했으랴. 그는 이상야릇한 심정을, 제 자식을 길러 시집장가 보내는 어머니 된 그 심정을 처음으로 맛보았을지 모른다.

그를 잘 아는 주위사람들은 《비둘기집》 처녀가 이 봄에 달라졌다고 한다. 내 보기에도 그러하다. 확실히 처녀는 더 숙성해보이고 어딘가 더 현숙해 보인다. 처녀가 돋보이는것이 단지 책임감이 높고 맡은 일에 남달리 이악하기때문도 아니다. 힘에 부친 큰 일감이 꿈많은 처녀를 판사람으로 만든것이다. 이를테면 처녀는 힘든 고비의 언덕을 넘어서 실지로 높이 올라선것이다.

이밤에 나의 발길이 이리로 돌려진것은 제 손으로 키워낸 벼모들을 《이사시키》는 어머니 된 처녀의 심정을 좀더 엿보고싶어서였다.

생각이 실린 걸음은 그새 팽상모판에 이르렀다.

경비막에는 인기척이 없다. 비닐박막을 제쳐놓은 팽상모판장앞에서 서성거리는데 저쪽에서 나직이 주고받는 말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었다.

《어서 가봐요. 누가 보면 뭐라겠어요.》

《이런 성화라구야! 내가 뭐 못올테를 찾아왔나.》

능청을 부리는 목소리 임자는 처녀와 이웃해있는 프락포르운전수였다. 그들 둘이 자별한 사이라는것을 좀 알고있긴 했지만 이렇게 단둘이 으밀아밀 속삭이는것을 처음 본다.

《결에 있으면서두 못본지가 꼭 한주일이라니까. 그런데두 그저 등을 떠밀지...》

운전수의 시뭇한 말투였다.

《얼마나 보고싶었다구! 몸은 프락포르우에 실려있었지만 마음은 줄곧 여기 모판장에 와있는걸 알기나 해.》

《흥, 입에 침발린 소리... 누가 그걸 믿어요.》

《써레를 친 논판이 믿지. 거울판갈으니까. 언제 한번 내가 일하는곳에 나와봤어야 그걸 알지.》

나는 그가 써레를 친 논판들을 눈으로 보아 잘 안다. 그의 말대로 물작담을 한 논판을 귀서리도 물매진데 없이 그야말로 거울판처럼 알른알른 써레질을 했다. 알심있게 손질한 논에 실한 모를 옮겨놓으면 얼마나 볼만하랴.

어스름히 비치는 별빛을 등지고 그들은 문쪽으로 움직여간다.

《정말 가겠어요?》

처녀가 무춤 멈춰서며 어깨를 웅송그리는듯했다.

《가야 해! 책임운전수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겠는데...》

《그래두...》

운전수는 되돌아서서 처녀옆에 다가선다.

《모판리원의 일두 끝났으니 이제 어디 가서 우리가 만날까?》

《별걱정두, 이 여름엔 논판에 나가 살면서 벼모를 가꾸겠어요. 그러니 저를 만나고싶으면 논별로 나오세요.》

잡아드는 침묵, 사위는 쥐죽은듯 조용하다.

이윽고 총각은 소스라쳐 핵 몸을 돌리고는 종종 걸음으로 바자밖으로 나선다.

한줄에 엮어매놓은듯 처녀도 따라 움직이다가 못막혀 서는데 한손은 들러진채로 굳어져있다.

잡은 발걸음소리가 어둠속에 사라졌지만 처녀는 한껏 목을 빼든채 당연히 서있었다.

그리고보면 처녀는 그밤에 벼모만을 가꾼것도 아니다. 자기의 귀중한 사랑도 가꾸었다. 그 사랑을 꽃피울 희망의 날은 앞에 있다. 올해의 가을에 처녀는 넓은 포전으로 세간을 낸 벼모들을 정성스레 키워낸 자랑과 함께 제 사랑도 무르익힐대로 익힌, 그야말로 풍만한 수확의 계절을 맞을것이다. 처녀는 그 꿈을 안고사는것이다.

얼마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꿈인가. 어디선가 훈훈히 바람이 불어온다. 그 훈풍에 꾸꾸거리는 비둘기소리도 레성강의 물소리도 실려오는듯싶었다. 모내기철의 이 봄밤은 참말로 좋다!

우리 당이 바라는곳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곳에 즐겨 몸을 맡기고 거기서 기쁨도, 행복도, 참된 삶도 누려가는 우리의 믿음직한 새 세대들! 그토록 아름다운 꿈을 지닌 청춘들로 하여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농촌은 얼마나 튼튼한것이나.

또 내 나라, 내 조국은 그 얼마나 부강한것이나.

나는 이밤의 들길을 오래오래 걷고싶었다.

비록 밝은 달은 없지만 비둘기들의 다정한 소리와 청춘남녀들의 사랑의 속삭임이 있는 이 길, 아니 그들의 꿈이 펼쳐질 이 아름다운 들길을 끝없이 걷고싶었다.

칭찬에 앞서 자랑에 앞서

량명남

칭찬에 앞서
자랑에 앞서
금아, 네가 키운 실한 모 받아안으며
농장원들 저마다 생각이 불탄다

줄대같은 풍년모를 키워내자고
찬바람 찬서리 다 가리며
네가 바친 수고를 다 알고있건만
이 봄엔 사람들 찬사가 없구나

인정많은 작업반장아바이도
모내는 기계 운전공처녀들도
네가 가꾼 싱싱한 모를 보면서
생각은 먼저
수령님 유훈 비낀 푸른 들에 엎어보고있거니

눈물을 씨앗으로 묻고
급절로 더워진 구슬땀 바치며
누구나 말없이
뜨거운 땀을 들에 새겨가는
우리네 연백벌 사람들

그속에 네가 있고
그속에 내가 있어
금아, 이 봄엔 우리 서로

칭찬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구나

어버이수령님 생전에 바라시던
정당 10 톤의 무계가
너와 나의 가슴속에 실려있지 않느냐
그 가을을 부르는 기계소리가
너와 나의 가슴을 두드리지 않느냐

금아, 이 봄엔 찬사를 아끼자
온 나라 농민들이 일숨씨 지켜보는
너와 나는
연백벌의 주인

푸르싱싱 모를 키워
줄대같은 실한 모 키워
올해 농사 절반을 다 지어놓은
네 칭찬에 앞서
모 자랑에 앞서
사람들은 이 봄날 제 생각만 불태워가도

금아,
이제 온 벌에 넘치는 풍년물결우에
밝게 비껴올 장군님 미소가
너와 나 함께 받아안을
세상에 가장 큰 영광이 아니냐

물아, 저 푸른 들로 가거든

진창우

레성강 물문을 여니
5월의 봄을 싣고 이 마음 싣고
굽니며 속삭이며
대하되여 굽이치는 단물아

너 저 푸른 들로 가거든
모내는 저 연백벌로 가거든
내 노래 들에 새겨다오
내 소원 들에 펼쳐다오

두손 모아 담아보는 방울방울이 그대로
수령님 사랑인 단물아
천만구슬 방울방울이 그대로
연백벌 사람들의 꿈인 단물아

피눈물을 불타는 땀으로 바꾸어안고
이 봄날 들에 나선
저 나이지국한 녀성관리위원장을 보느냐

이날을 향해 눈바람속에서 들쭉던
저 모내는 기계 운전공처녀들을 보느냐
물아, 단물아 너 저 푸른 들로 가거든
먼저 적서다오
두해전 못잊을 8월의 그 새벽렬차 기적소리
오늘도 귀기울이며 사는 연백벌 사람들
그 더운 가슴을 먼저 적서다오

온 나라가 지켜보는 저 벌로 가거든
연백벌 사람들 마음속에 안고사는
정당 10톤의 소중한 꿈을
별가득 하늘가득 열매로 익혀다오

쌀로
우리 장군님 더 잘 받들고
쌀로
내 나라, 내 조국 빛내가려는
불타는 그 마음 그 맹세
이삭의 금물결로 펼치여다오

아, 5월의 봄을 싣고 이 마음 싣고
굽니며 속삭이는 레성강 단물아
너 저 넓은 들로 가거든
태양의 미소 영원할 연백벌에
만풍년의 노래 더 높이 실어다오
우리 장군님 기쁨속에 들으시게

그가 어찌 알수 있었으랴

최병원

들쭉는 5월이 와서
연백벌에 모내는 5월이 와서
잠을 잊은 관리위원장아바이
이 새벽 서두르며 물길에 나섰네

씨레칠 프락프르의 대수도 꼽아보고
단계별로 키워낸 모관도 생각하며
열백가지 일감을 마음속에 다 안고
벌을 향해 발걸음 다그치던 아바이
아바이는 그만
뒤늦은 발걸음 멈춰세웠네

아쁠싸! ...저게 누구들이냐
떠들썩-들끓에 메아리치는
기계소리, 노래소리의 임자들은...?!

그 모습들 안개속에 보이지 않아도
아바이는 물젖은 두렁설에 삽날을 박고
방금 젊은이들 씨레치고 넘어간
바다같은 논판을 더듬어보네
저 멀리 모내는 기계의 고르로운 동음소리를
가슴 울렁이며 새겨들네

언제나 솟는 해 뜨는 달을 남먼저 이 벌에서 맞
더니
이 새벽 한결음
발걸음만 뒤진게 아님을 생각하며
아바이는 평생에 처음으로
제 나이를 탓하였네

벌바람에 날리는 흰머리칼을 쓸어올리며

그리고 문득 생각했네
저애들 나이또래때
총메고 달리던 전선길을
느티나무에 폭탄까지 매달아 올리던
조합의 첫 종소리와
산을 뚫고 새 물길 끌어오던
그 간고한 겨울밤에 타오르던 우등불
제 나이조차 잊은듯 뛰고 달리던
이슬 젖은 논머리에서
꿈같이 어버이수령님 만나뵈을 때
10년은 더 젊어 함께 일해보자고
뜨겁게 손잡아주시던 그날의 그 감격을...

그릴수록
경애하는 장군님 받들어
이 벌에 한생을 젊어 살고싶은 마음-
아바이는 못견디게 부러웠네 저 젊은이들이
그 한창나이가 부러웠네
불타는 심장들이 부러웠네

허나 관리위원장아바이
그가 어찌 알수 있었으랴
뜨거운 5월의 이 새벽
그가 것처럼 부러워하는 저 젊은이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아바이를 따라 아바이처럼 살자고
저렇게 들쭉며 벌에 사는줄...

눈보라

(총련) 김청화

어제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온 도시를 은세계로 만들었다. 청년회관에서 오전강의를 끝내고 돌아온 철성은 버스에서 내려 곧바로서관입구를 향하여 걸어갔다.

서관안으로 들어선 철성은 문득 입구에 있는 거울에 비쳐진 자기 모습을 보았다. 머리에는 갑자기 백발이라도 된듯 흰눈이 덮였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기 모습이 싫지 않았다. 난생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한 철성에게서 조국의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신비스러운 눈을 언제까지나 실컷 보고싶었다. 허나 아쉽게도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래일은 평양을 떠나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햇빛보다 따사로운 사랑과 배려로 그동안 아무 걱정없이 마음껏 배워온 조선대학교 문학부 졸업반의 3개월 조국강습도 오늘이 마지막인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기간 보고 듣고 느끼고 가슴뜨겁게 체험한 그 모든 뜻깊은것들은 평생토록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될것이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답사, 조국의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교육실습, 묘향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밤을 새워가며 창작하던 나날들, 다시 또다시 완강하게 훈련한 화술런습 등... 결성은 조국에서 보낸 이 3개월간에 자신도 놀랄 정도로 힘을 발휘하여 많은 성과와 경험을 쌓았고 많은것을 배웠다.

철성은 아주 만족스럽게 이 기간을 돌이켜보았다. 그런데 문득 마음 한구석에 파묻혀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니, 아직 하나 실현 못한 일이 있구나!)

그것은 철성의 중급부 3학년시기, 그가 15살때 헤어진 친구와의 상봉이었다.

조국을 방문하여 평양에 도착한 첫날 철성은 그의 집에도 전화를 했었다.

그러나 그는 공교롭게도 그날 집에 없었다. 또 다른 날에 여러번 전화를 하여 짧은 이야기, 짧은 만남은 있었으나 조국에 공부하러 온 철성에게는 여러가지 강의들과 참관, 답사, 견학 일정들이 꽉 차있었고 그와 천천히 흐뭇한 회포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또 그 소꿉친구도 역시 대학졸

업을 앞둔 바쁜 시기여서 아무때나 시간을 낼 형편이 못되었다.

오늘은 조국에서의 마지막날이다.

철성은 어쩐지 그와 꼭 만나 회포를 나누고싶었다. 하여 철성은 옆동무에게 이후 일정을 물었다.

오늘은 이제부터 일본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것이외에는 특별히 제기되는것이 없다는것이였다.

철성은 언제 평양에 다시 오게 되겠는지 몰랐고 그와 반드시 만나고싶다는 충동이 줄곧 북받쳐올라 전화실을 향하여 걸어갔다.

수화기를 잡고 전화를 걸었다. 두번, 세번 련이어 종이 울렸으나 여전히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철성은 할수없이 다음 조국방문의 기회에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각은 그렇게 하였지만 철성은 웬일인지 (이번에 꼭 만나보고 떠나야겠는데...) 하는 서운함이 가슴속으로 파고드는것을 느꼈다. 철성의 이런 마음과 관계없이 무정하게 종은 울린다.

(이제 두번 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이 몇초란 순간이 왜 이렇게도 길게 느껴지는가? 마지막종이 울린다.

(할수없는 일이지! 다음기회에...) 하고 자신을 위안하며 철성이 단념하고 수화기를 놓으려는 때에 수화기에서 따뜻하면서도 친근한 소리가 귀에 울려왔다. 《여보시오.》 좀 나직하면서도 위압하는듯한 웅글은 목소리는 틀림없이 그였다.

《여보시오, 오유식동무입니까?》 차고 철성은 기쁨에 뜬 목소리로 웨치듯이 말했다.

《아니, 김철성이 아니요? 야, 오래간만이야. 며칠전에서관으로 찾아갔더니 공교롭게도 묘향산으로 떠났더구만! 철성이, 계속 바쁜가?》 유식은 전화상대가 철성이라고 하자 그 역시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반기는것이였다.

《유식이, 강습일정은 오늘 오전으로 모두 마쳤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있어!》

하고 철성은 큰소리로 대답했다.

《일본으로? 아니 철성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가? 우린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떠난단말이야?》 유식은 흥분한 목소리로 다그쳐

물었다

그러자 철성은 좀 섭섭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렇게 됐어. 래일아침 9 시에 평양려관을 떠나 원산으로 가야 해. 그래 마지막으로 꼭 유식과 만나고싶어서 전화했어! 유식이, 넌 오늘 시간을 낼수 있어?》 이렇게 묻는 철성의 마음은 불안했다. 혹시 유식에게 바쁜 일들이 있어 시간을 낼수 없으면 종시 그와의 상봉은 실현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철성의 이런 불안과 초조한 마음과는 정반대로 유식은 큰소리로 유쾌히 대답했다.

《철성이, 걱정말아라. 나도 오늘은 시간이 있어. 우리 꼭 만나자구, 꼭 만나잔 말야!》

철성은 기쁨을 억누를수 없었다. 그 역시 유식처럼 유쾌하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응대했다.

《좋아, 그럼 내가 너의 집에 가겠어. 길을 좀 가르쳐달라구!》

그러자 유식은 펄쩍 뛰듯이 철성의 말을 막았다.

《아니야, 지금 밖에는 눈보라가 사나워! 려관에서부터 우리 집까지는 20 분은 실히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친구에게 그런 고생을 시킬수 있겠어. 내가 너의 려관까지 가겠으니 기다리라구!》

철성은 유식의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눈곱이 뜨겨워졌다.

유식의 말처럼 사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고있었던것이다.

《그럼 몇시에 만날가?》 철성이 물었다.

《지금 12 시이니 점심을 끝내고 좀 있다가 2 시에 만나자!》 유식이 대답했다.

《알겠어. 오후 2 시에 난 평양려관 2층휴게실에 서 기다리겠어. 유식이, 지각하면 안된다.》

철성은 소꿉시절의 기분이 되살아난듯 큰소리로 웃으면서 기쁨에 들떠 말했다.

《뭘, 내가 지각을 하다니? 일본일초도 어기지 않고 2 시정각에 도착할테니 두고보라구!》 하고 유식에도 기분 좋게 웃었다.

철성은 흡족한 마음으로 송수화기를 놓았다.

시계를 보니 식사시간이었다. 식당으로 걸어가 는 철성의 발걸음은 하늘을 날아가는듯 가벼웠고 얼굴에는 기쁨과 희열이 넘쳐흘렀다.

식사를 끝내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철성은 짐들을 꾸리면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곧 있게 될 소꿉친구와의 상봉의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여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철성은 마음을 좀 진정하려고 책상우에 있는 신문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신문 4면에는 영예군인에게 시집간 한 처녀의 기특한 소행이 실려있었다.

철성은 조국에서의 3개월강습기간에 수많은 이런 감동적인 사실들을 신문에서 읽었고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전설같은 이런 사실자료들은 인덕 정치의 우리 조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키우신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 청년들속에서만 있을수 있는 소행이라고 철성은 가슴뜨겁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때 2 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지각하지 말라고 유식에게 충고한 내자신이 늦으면 안되지!) 철성은 재빨리 구두를 신고 서둘러 2층휴게실로 달려나갔다.

유식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철성을 바람처럼 달리게 했던것이다.

2층에 내려온 그는 흥분한 눈길로 휴게실을 둘러보았으나 유식은 없었다.

철성은 자신이 늦지 않았음에 안도감을 느꼈으나 어쩐지 한편으로는 유식이가 시간이 되었는데 나타나지 않는것이 좀 불안하게 생각되었다.

(2 시정각에 1 분 1 초 늦지 않고 온다고 했는데...)

휴게실에 앉아 유식이를 기다리는 철성은 불현듯 즐거웠던 소년시절의 나날들이 떠올랐다.

일본 사이다마현 남부구역에는 어린 아이들은 많이 있어도 철성과 같이 조선사람이고 한뜨래의 어린이는 몇명밖에 없었다.

그속에서도 집이 가까운 철성과 유식은 유치원 시기부터 같이 놀고 학교에도 매일 같이 가는 사이였다.

이국땅 일본에서 사는 그들은 같은 민족인 조선사람끼리 놀았고 일본아이들과고는 찍하면 싸움을 하곤했다.

특히 유식은 싸움을 잘했다. 그 구역 어린이들속에서 유식을 모르는 아이가 없을만큼 소문난 싸움꾼이었다.

만약 철성이가 싸움에서 지고 돌아오면 그는 즉시 달려가 철성이를 때린 일본아이가 울면서 빌때까지 무작정 해대군하였다.

그때 철성은 유식을 믿음직하게 느꼈고 부럽게도 생각했다.

그러나 철성은 한편 유식을 두렵게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식이가 나쁜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것때문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남의 연필, 지우개를 서슴없이 훔쳐 자기의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남의 집앞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고 밤 11 시, 12 시까지 돌아다니곤했다.

때로는 할머니의 돈지갑에서 돈까지 꺼내어 그 돈으로 파자나 꿀물을 사먹기도 했다.

그런 자식을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타일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부모는 유식이 아직 유치원도 가기전에 이국땅에서 한많은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이렇게 나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모르고 자란 유식은 성장함에 따라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성격이 점점 이그러져갔던것이다.

그런 유식을 보고 철성은 어린 마음에도 (그가 이처럼 생활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혹시 불량배로 되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던 중급부 3 학년때의 어느날, 그해의 첫눈이 유난히도 많이 내린 날이었다.

하루종화가 끝나자 선생님이 유식을 앞에 불렀다. 그다음 선생님은 유식이 래일 조국으로 귀국하게 된다는것과 여기서의 생활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는것을 이야기했다.

절을 하고 교실을 나서는 유식은 아무말도 하지않았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철성은 불시에 일어난 일에 놀랐고 또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으로 갑자기 입술이 굳어져 뭐라고 말할수 없었다....

이런 추억들을 더듬던 철성은 다시 시계를 보았다. 시계의 바늘은 3 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웬일인가? 약속한 시간이 벌써 1 시간이나 지났는데...) 철성은 조국에 귀국한 유식의 성격이 이미 몰라보게 달라졌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있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켜 지나가자 그 믿음이 조금씩 무너져내리는듯한 감을 느꼈다.

(유식은 언제서 방급전에 그렇게도 철석같이 약속하고 오지 않는가? 혹시 귀국해서도 아직 일본에 있을 때의 그 성격을 고치지 못했는가? 아니, 그럴수 없어. 절대로 그럴수 없어!)

철성은 애써 이렇게 믿으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은 복잡해졌다. 약속한 시간은 벌써 두시간이나 지나갔다.

그러자 실망한 철성은 하는수 없이 단념하고 쏘파에서 일어나 서글픈 기분으로 호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혹시 이제라도 오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러관문밖으로 나가보았으나 밖은 세찬 바람과 눈보라뿐이고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채 생각에 잠겨 호실로 들어온 철성은 그냥 침대에 누워 천정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문득 철성의 머리속으로 중급부 2 학년시절의 어느날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우리 말 100 프로의 날이었는데 학습에서 우리 말 100 프로를 못한것은 오직 유식이 한명뿐이었다.

그날 하루종화시간에 유식은 래일은 꼭 우리 말 100 프로로 생활하겠다고 결의했다. 그의 총화를 듣고있던 학급동무들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모두 킁킁 소리내어 웃었다.

그다음날, 유식이 교실에 들어서자 학급동무들의 눈은 일시에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식은 아무 말도 없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일체 침묵하고 결상에 앉아있었다.

그는 갑자기 병어리가 된듯 온종일 말한마디 안했다. 그러던 그는 하루종화가 시작되자 드디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유식 우리 말 100 프로!》

유식은 저도 모르게 일본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온종일 일체 침묵했었다. 이처럼 엉뚱한 방법으로 유식은 자기가 한 결의를 《리행》했던것이다....

철성은 생생하게 떠오르는 오래전 소년시절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꼼짝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었다. 호실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울린 문두드리는 소리에 철성은 좀 놀랐으나 반동무가 놀러왔으려니 생각하고 무심히 응대했다.

《누구십니까?》 그러나 웬일인지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철성은 불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쪽으로 걸어갔다. 문밖에는 여전히 조용했으나 무엇인지 어렴풋한 인기척이 느껴져 조심히 문을 열어보았다.

문을 여는 순간 철성은 깜짝 놀랐다.

《?!》

어스레한 문앞에 누군가 정신없이 쓰러져있었던것이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분간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를 자세히 뚫어지게 살펴보면 철성은 그가 지금껏 기다리던 소꿉친구 유식임을 알아보았다.

《유식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철성은 황급히 그를 흔들며 놀란 목소리로 웨쳤다. 그러자 쓰러졌던 유식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유식의 온몸은 눈에 덮여있었고 머리털은 온통 얼음이 맺혀 팡팡 굳어져있었다.

철성은 재빨리 부축하듯 그의 손을 잡고 혼란한 호실안으로 이끌었다. 유식의 손은 얼음같이 차거웠고 피가 통하지 않는듯한 손의 피부는 몹시 희었다.

유식은 천천히 방안에 들어와 철성의 침대에

않았다.

《유식이, 이런 눈보라속을 걸어왔으니 고생이 많았지?》 철성은 이렇게 말하면서 유식에게 수건을 주었다.

그러자 유식은 알릴듯말듯 가볍게 미소하면서 퍼렇게 얼어든 입술을 간신히 눌러 나직하니 더듬더듬 말했다.

《철성아...무척...기다렸지? 내가 시간을...시간을 지키지 못해...미안하게 됐어!...》 그다음 유식은 기운이 빠진듯 의식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다.

《?!》

눈앞에서 또다시 유식이 쓰러지자 철성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며 유식의 몸을 흔들었다.

《유식이, 웬일인가? 정신을 가리라구!》 그러나 유식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당황한 철성은 덤벼치며 수건으로 유식의 얼굴과 머리를 닦아주었다. 그럴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빨간색 외투를 입은 30 대의 낯선 여인이 불쑥 방안으로 들어왔다. 뒤따라 흰 위생복차림의 처녀의사가 들어왔다.

빨간 외투를 입은 여성은 철성에게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곧바로 침대에 쓰러져있는 유식에게로 다가서며 처녀의사를 향해 빠른 어조로 말했다.

《의사선생, 빨리 이 학생을 진찰해주세요.》

처녀의사는 유식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의료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어 유식의 몸상태를 진찰했다.

《병원으로 후송해야겠어요.》 하고 진찰을 끝낸 처녀의사는 신중한 낯색을 지으며 말하고나서 곧 밖의 누군가를 불렀다.

그러자 밖에서 담가를 든 간호원이 들어왔다.

처녀의사와 간호원은 날렵한 동작으로 유식을 담가에 눕히고 밖으로 나갔다.

빨간 외투를 입은 여성도 그들을 뒤따라 방을 나갔다.

철성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몰라 몇순간 굳어진듯 서있었다. 마치 무슨 꿈을 꾸고있는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번쩍 정신을 차린 철성은 유식이 걱정되어 밖으로 뛰어나갔다.

려관앞에는 벌써 구급차가 발동을 걸고 대기하고있었다.

유식이와 몇사람을 태운 구급차는 세차게 몰려오는 눈보라를 뚫고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최속으로 달리던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 처녀의사는 엄격한 어조로 지시했다.

《빨리 구급실로!》

철성이라도 유식이 누운 담가뒤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담가가 치료실에 들어가자 처녀의사는 뒤따르는 철성을 막았다. 구급치료실에는 치료성원 외에는 들어갈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것이였다.

하는수 없이 철성은 치료실문앞을 초조히 왔다 갔다하였다.

(혹시 무슨 중한 병에라도 걸렸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철성은 더욱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누군가 조심히 철성의 어깨를 건드렸다. 돌아보니 빨간색 외투를 입은 그 여성이였다.

그 여성은 웬일인지 눈물을 머금고 목메인 소리로 철성에게 묻는것이였다.

《방금 담가에 실려 치료실로 들어간 학생과는 잘 아는 사인가요?》

《예, 그는 저의 오랜 소꿉친구입니다.》

《아, 그랬군요... 동무는 정말 훌륭한 친구를 가지고있어요!》

《아주머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몇시간전까지도 저와 유쾌히 웃으며 전화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까지...》 하고 철성은 불안과 초조를 감추지 못하면서 물었다.

《저 학생은 우리 애를 구원하느라고 이 추운 날씨에...》 하고 여인은 목이 메인듯 말을 잇지 못했다.

여인은 손수건으로 솟아오르는 눈물을 씻고 나서 감동된 음성으로 말을 계속했다.

《인민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들이가 대동강에서 썰매를 타다가 그만 얼음장이 깨지면서 강물에 빠졌됐어요. 그때 강변을 지나가던 저 학생이 서슴없이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구원했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뛰어와보니 우리 애를 구원한 저 학생은 강가의 눈우에 쓰러져있었어요. 전 너무도 당황하여 구급차를 부르려 했는데 글썽 저 학생은 간신히 일어서더니 오히려 구원된 제 아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고는 비청거리며 려관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를 따라가 붙잡고 거듭 사정하듯 말했어요. 이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그러나 저 학생은 일본에서 온 친구와 려관에서 만나기로 된 약속시간이 지났다면서 끝내 려관으로...》

여인은 종시 참아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없이 울었다.

순간 철성은 갑자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듯한 감을 느꼈다.

《그랬었구나!... 그런데 나는 약속을 못지킨 그를 순간이나마 어떻게 생각했던가?)

심한 자책과 회오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철성은 꼼짝않고 굳어진듯 서있었다.

바로 그때 치료실문이 열리더니 나이 듬직한 남자의사가 밖으로 나왔다.

철성은 성급히 그에게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지금 그의 몸이 어떻습니까?》

《생명에 위험은 없으니 너무 걱정할건 없소. 그러나 좀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철성은 그의 허락을 받고 즉시 건너뛰듯 치료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눈을 감고 침대에 잠잠히 누워있는 유식을 보자 불쑥 눈물이 솟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눈물은 아직까지 자신도 몰랐던 가슴속 밑바닥에서 솟구쳐오르는 류다른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유식이, 넌 정말 참된 인간으로 성장했어!)

소꿉친구인 유식에 대한 우애의 정과 런던의 정이 세찬 파도처럼 철성의 가슴에 찼다.

철성이가 다가온 기척을 느꼈던지 유식은 조용히 눈을 떴다.

《철성이, 왜 울고있어?》 유식은 미소를 띠고 철성을 쳐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철성은 유식에게 무엇이냐 따듯하고 정다운 말을 하고싶었으나 목이 꼭 메여올라 말할수 없었다.

《철성이, 랑해하라우. ...내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해 너를 오래동안 기다리게 했으니 정말 미안하게 됐어.》 하고 유식은 철성에게 사과하면서 힘겹게 일어나 침대에 기대여 엇비듬히 앉았다.

《아니, ...유식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네가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성장한것을 미처 모르고...》

철성은 울컥 눈물이 솟아올라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는 끊임없이 솟구쳐흐르는 눈물을 누를수 없었다.

《철성이, 너무 그러지 말라우, ...물론 일본땅에서 흘러간 나의 소년시절은 부끄러운것이였지, 부모의 사랑이란 뭇지 모르고 되는데로 생활하던 고아였으니까. 하지만 철성이, 조국에 귀국한 첫날부터 나는 자신이 부모없는 고아라는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 온 조국이, 온 집단이 나를 세심히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었거든, 그때부터 나는 뜨거운 조국사람들에게서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어!》 하고 유식은 나직

나직이, 그러나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의 참된 삶!)

철성은 묵묵히 생각에 잠겨 듣고있었다. 인간의 참된 삶이란 말을 처음 듣는것은 아니였지만 웬일인지 이상하게도 유식의 입에서 울린 이 말은 철성이를 깊은 생각에 잠기도록 했던것이다.

《철성이, 조국에 귀국하여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체험한 인간의 참된 삶이란...》 하고 유식은 여전히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조국과 사회를 위해, 집단과 남을 위해 자기 개인의 모든것을 바치며 사는것이이지. 철성이도 이번 조국강습 3개월기간에 많이 보고 들었겠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의 우리 조국에서는 지금 전설같은 공산주의 소행들이 수없이 전해지고있어...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참다운 우리 조국의 모습이고 우리 인민의 모습이지!》

생각에 잠겨있던 철성은 머리를 번쩍 들고 눈을 빛내이면서 침대에 엇비듬히 기대앉은 유식을 바라보았다.

놀랍게 성장한 소꿉친구, 인간의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유식이!

철성은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일생에 아직은 체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격동을 느꼈다.

《철성이, 난 이번에 실컷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어보려 했는데 아쉽게도 헤어져야 할 시간이 돼오누만.

철성이, 생각해보니 정말 미안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변변치는 못하지만 너에게 줄 기념품을 준비해가지고 떠났었는데 그만 강물에 띄워들다보니...》 하고 유식은 진심으로 미안해하였다.

《유식이, 아니야, 너는 오늘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었어! 그건 네가 인간의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나에게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바로 그것이야. 난 그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네가 나에게 준 그 귀중한 <선물>을 간직하고 너처럼 살겠다는것을 심장으로 맹세해!》

《철성이!》

《유식이!》

와락 끌어안은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심장이 하나로 합쳐지고있음을 느꼈다.

밖에서는 어느새 눈보라가 그치고 따스한 햇빛이 쌓였던 눈을 녹이기 시작했다.

작품의 새맛과 주인공의 형상과제

-단편소설 《〈행운〉에 대한 기대》를 읽고-

리주정

작품의 새맛은 어디서 오는가?

생활진리에 대한 발견에서 올수도 있고 성격이나 구성, 문체에서 올수도 있다.

리치는 명백하나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것이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작가의 노력과 열매가 있다.

단편소설 《〈행운〉에 대한 기대》(《조선문학》 1993년 10월호)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여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에서는 한 자재인수원이 출장길에서 체험하게 되는 생활계기를 통하여 행운을 레사로운것으로 되게 하여주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고마움에 대하여 뜨겁게 이야기하고있다. 주인공 《나》는 자기를 《행운아》로 믿는 사람이다.

어느날 그는 처가집 근처에 있는 기계공장에 추가자재를 받으러 출장을 가다가 열차에서 시주택배정지도원을 만난다. 언제부터 한번 꼭 만나려고 버르면서도 찾아못갔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것이다. 우정 찾아가도 만나기 힘든 주택배정지도원이 그앞을 《찾아온것》은 자기가 《행운아》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인공은 그와 안면을 익혀두려고 장인에게 가져가던 인삼술까지 꺼내준다.그런데 처가집에 도착하니 새집을 배정받았다는 안해의 전보가 그를 기다리고있다. 결국 행운이 차례지고 그는 행운아로 된다.

여기서 주인공은 깊이 느끼게 된다.

그는 배울 나이가 되면 돈 한푼 안들이고 학교에 가 희망을 꽃피우고 병이 날세라 무상으로 예방 및 치료를 받으며 소원하는것이면 무엇이냐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것이 자기가 《행운아》여서 저한테만 차례지는 《행운》이 아님을 알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난 첫날부터 행복과 사랑만을 안겨주는 우리 사회에서 행운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차례지는 필연적인것이다.

주인공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친아버지로 높이 모신 행운으로 하여 사회주의 내 나라 모든 사람 그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행복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한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아버지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공지로 하여 행운이 레사로운것으로 된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형상인것으로 하여 작품에는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생활진리의 발견이 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은 형상으로 꽃피운 자기식의 독특한 숨씨도 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주인공의 형상과제를 극적으로 설정하고 소설적으로 풀어나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의 형상과제는 종자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문제를 풀어나가며 작품의 구성을 엮는데서 매 인물이 맡아안은 몫이다. 어떤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성격의 면모와 그 형상의 높이가 결정된다.》

형상과제는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하여 매 인물이 받아안은 몫이므로 그것을 어떻게 제기하고 풀어나가는데에 따라 형상전반의 질이 결정된다. 그런데 작품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작가가 생활을 탐구하던 과정에 찾아온 사상적알맹이는 《행운이 레사로운것으로 된 우리 인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행운은 아무에게나 차례지는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좋은 운수》를 타고난 사람 즉 《행운아》에게만 차례진다고들 일러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주의제도에 와서 《행운》이 레사로운것으로 되었다니 될수 없는것이 되었다는 바로 여기에 심각한 극이 있으며 우리 생활의 진리가 있는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극적인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려면 형상과제 역시 극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작품에 심어져있는 종자의 미학적특성과 형상과제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주인공의 형상과제가 극적으로 설정되여야 하는것은 이 작품형상생리의 합법칙성이다.

그러면 작품에서는 종자에 기초하여 형상과제를 어떻게 극적으로 설정하고있는가?

작가는 우선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행복을 자기에게만 차례지는 《행운》으로 여기면서 일상적으로는 그 《행운》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일시적으로 《행운》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욕망에 따라 《의지적》행동을 하는 과정에 자기의 회극성과 행운이 레사로운것으로 된 우리

인민의 행복, 나아가서 그 행복을 마련하여주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의 행운에 대하여 깨달을 과제를 부여하였다. 일반적관념에서 볼 때 행운이 레사로운것으로된 우리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확증할 형상과제는 해외동포나 의거자, 외국인에게 부여하는것이 합당할것이고 그들중에서도 행운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여야 할것이다.

또 지금처럼 우리의 현실속에 살고있는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택한 경우에는 행운에 대한 기대를 변함없이 안고있는 인물로 택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의 안해가 행운을 믿지 않는 인물로 되어야 하며 결국 주인공과 안해가 《대결》 하게 될것이므로 《가정싸움》속에서 우리 인민의 행운에 대한 사상이 밝혀지게 될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반대의 경우를 택하였다.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행복을 자기에게만 차례지는 행운으로 알고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 잠시나마 행운에 대한 기대를 잊고 욕망에 따라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경희극적인물을 탐구하였다. 바로 여기에 형상과제를 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이 있으며 작품에서 나타나오는 새맛과 비결이 있다.

그가 안해의 동무인 안내원을 내세워 차표를 산다는것이 제정된 질서대로 줄을 서서 산 사람보다 늦게 받을뿐만아니라 헤덤비며 개찰구로 나가다가 처제같이 어린 처녀에게서 《떨떨한 손님》으로취급받으며 매달려오른 열차에서는 자리도 잡지 못해 자기보다 늦게 역에 도착했던 사람에게서 늑거리 동정을 받으면서 의자의 한 모퉁이에 겨우 비비고 엉치를 붙이는것, 1시간후에야 자리를 잡고 통성하는 과정에 그가 시주택배정처 지도원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무릎 떠는 버릇도 전혀 고약하게 느끼지 못하는것, 지어 그와 안면을 익히려고 《대평술》을 꺼낸다는것이 장인에게 가져가던 《인삼술》을 꺼내 주고는 아쉬해하다가 차라리 잘되었다고, 안해도 칭찬할것이라고 자체위안까지 하는것, 출장용무로 만나야 할 사람이 없자 처제의 인륜대사를 위한다면 처가집으로 가다가 산골비에 물에 빠진 생쥐 물골이 되는것, 그리하여 처제와 성사시키려던 총각의 사진을 짓이겨놓고 그로하여 처제에게서 (이미 로 동생활속에서 동지적우정으로 자기의 사랑을 찾은) 그 총각이 머저리같이 생겼다는 소리를 듣는것, 그 소리가 마치 자기를 머저리라고 비웃는것처럼 느끼는것, 길가의 까마귀와 동네의 소, 닭, 개들조차 자기를 비웃는것 같이 느끼는것, 또 집을 배정받았다는 안해의 전보, 무엇인가 못미더워서 동분서주한것은 모조리 허탕을 치고 조금이나마 기대를 가졌던 행운은 저절로 찾아오는것에 대찬 체험.

이 모든 형상들은 바로 종자에 맞는 주인공의 극적성격의 탐구와 형상과제의 극적인 설정에서 출발되었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작품에서는 설정한 극적과제를 소설적으로 잘 형상하고있다. 작가는 소설의 기본특징의 하나인 이야기적특성을 살리기 위해 1인칭을 택하고 시점을 주인공에게 부여함으로써 극을 안은 인물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되게 하였다.

주인공이 생활의 극을 심리의 2중성으로 체현하고있는 조건에서 객관적시점으로 그리게 되면 내면심리에 대한 개방과 묘사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설명조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1인칭을 택하여 시점을 주인공에게 부여한것은 그가 생활속에서 체험되는 심리세계, 그에 대한 개방과 묘사를 보다 진실하고 적극적으로, 구수하게 할수 있는 전제를 준것으로 된다.

비를 맞고난 뒤의 심리개방과 지긋게 따라다니는 개에 대한 묘사만 놓고보아도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

《젠장, 빌어먹을!》 하는 말이 걸음마다 튕겨나왔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화를 돋구었다. 우둔한 곰처럼 웅크린 바위며 싱겁게 우로만 자란 이 짙나무며 어데서 어데로 가는지 비에 젖은 물골로 달려가는 개며, 귀가 먹먹할만큼 소란을 피우는 시내물이며...

길복판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푸드득하고 전주대우에 날아 올라갔다. 그리고는 나를 의심쩍게 내려다보며 《까우, 까우》소리를 질렀다. 비소리와 시내물소리, 바람소리에 섞여 그 소리는 마치 《어데 까우? 어데 까우?》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놈은 대답을 들어야 의심을 풀겠다는듯 그냥 같은 소리를 끊임어댔다. 나는 화가 나서 발을 탕 굴렀으나 령리한 그놈은 끄떡도 않고 또 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그놈을 흘겨보며 투덜거렸다.

《처가집에 간다. 이놈아, 처제때문에 이렇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면서...》

그러자 그놈은 푸드득 날아올라 어서 가라는듯 《까우, 까우》 하고는 어데론지 날아가버렸다.

...삼짇문밖에까지 쫓아온 개 한마리가 (몹시 지긋은 성미를 가진놈이었다.) 그냥 월월월 하고 끊어지지 않는 목소리로 짖어대고있었다. 머리는 잔뜩 하늘로 쳐들고있어서 나를 보고 짖는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웃고있는것처럼 보였다.

《양천대소》라는 말이 부지중 떠올랐다. 까닭없이 나도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웃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지도원은 아직 그냥 기차에서 달리고 있을것이였다. 집배정은 나의 《외교》와는 사돈의 팔촌만큼한 인연도 없을것이 분명했다. 그러면?

《어끼! 이놈!》

장인의 큰 소리에 개는 저만치 달아나더니 또 하늘로 머리를 쳐들고 웃음을 터뜨리듯이 짖어댔다.

《저런놈 봤나? 소란스럽게.》

《놔두십시오. 실컷 웃으라지요.》...

읽을수록 젖어드는 생활체험의 진실한 묘사이다.

또한 기본이야기의 마디마디에 끼여있는 생활철학 (《넘어지는것보다 넘어질번하는것이 더 맥을 뽑는다》는것과 같은)의 서술이 이야기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구수한 맛을 돋구게 한것도 1인칭을 택하고 시점을 주인공에게 설정하는것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의 행운에

대한 주정토로도 바로 그러한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단편소설 《(행운)에 대한 기대》에서 새맛은 주인공의 형상과제의 극적인 설정과 그에 대한 소설적인 형상에 있다.

소설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주인공을 자재인수원으로 설정한것이다. 자재인수원은 팔방돌이로서 지금의 주인공과 같지 않을것이다. 차라리 사회생활과 일정하게 격리되어사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었더라면 그의 《경희극적조건성》이 타당성을 가졌을것이다.

또한 마지막에 독자들이 스스로 느낄수 있는것까지 작가가 다 말해버린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소설은 우리 시대의 본질에 대한 발견과 그에 대한 경희극적형상으로 하여 우리의 문단을 이채롭게 장식하였으며 독자들을 기쁘게 하고 창작가들에게 시사하는것이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본다.

연백벌의 5월은

김영근

연백벌의 5월은

웃음과 노래에 실려오던 계절
모내는 처녀들이 떠드는 소리에
물소리, 기계소리 귀멀던 계절

철...철... 봄을 적시며

레성강 단물이 흘러드는 이 벌에
봄비며 뚫으며
처녀들 기계물아 푸른 수를 놓아가건만
이 봄엔 어찌하여 들리지 않는가
그들의 노래소리, 들썩한 웃음소리

탓하지 말자

5월의 이 봄날
노래가 적어진 연백벌을 두고
웃음이 적어진 처녀들을 두고

연백벌에 찾아온 이해의 5월은
즐거운 웃음과 노래만이 차넘치던
기쁨의 계절만이 아님을
더 높아진 물소리 기계소리가
이 가슴 뜨겁게 속삭여주거니

이 벌에 오셨던
어버이수령님

희망으로 안고가신 정당 10톤이

이 봄엔 더욱 가슴에 실리어
포기포기 풍년모
맹세의 글발처럼 심어가는 처녀들

탓하지 말자

웃음이 적어진 이고장 처녀들을 두고
이 봄날 모내는 기계우에 더 높이 앉아
푸른 주단 펼쳐가는 저 맑은 눈동자들엔
그 못잇을 8월의 벼바다가
어리광을 부리고있게 않느냐!

아, 이해의 5월은

연백벌의 5월은
불타는 맹세에 실려온 계절
이고장의 딸들이
백리 옥야에 뜨거운 마음 새기는 계절

그날에 듣자

만풍년의 가을이 오면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의 미소가 비졌던 이 벌에
이삭의 금물결이 다 들려주리라
이 봄에 처녀들이 가슴에 묻고산
그 노래, 그 웃음을!...

말해다오 처녀야

김수철

어서 말을 이어다오
어찌보면 내 막내동생같은
허나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부모없는 두 아이의 《어머니》

크게 한일 없는 저에게
친애하는 그이께서 감사를 보내주셨다고
몇마디 말도 하기전에
눈물 글썽하여
다소곳이 머리 숙이는 가룩한 처녀여

말해다오 처녀야
너의 또래 처녀들이 떠들썩
회관으로 달려가던 그 저녁에도
아이들의 숙제공부 도와주며
랑랑한 글소리에 기쁨을 실어보던
남모르게 바친 하많은 밤의 그 사연

어서 들려다오
달빛 어린 강변에서
청춘들이 사랑을 속삭일 때
아이들의 덮어진 옷을
다심한 정으로 행구며
네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이나

아침저녁 불러왔히는
아이들의 밥상에 정성을 고이며
스치는 입속말조차 헤아리며
너는 고심도 많았으리라
처녀의 진정인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 못할가봐

어찌 다 헤아리랴
아이들을 구김살없이 키우며

한순간의 청높은 웃음을 위해서도
온 넋을 기울인 그 정성
그 어느 총각에게도 바쳐본적 없는
허나 짱그리
아이들에게 바친 그 사랑의 깨끗함을

머리 숙어진다
장난 세찬 모습이 더 좋더라고
한창나이의 동심에 그들이 비끼면
당에서 가슴아파할가봐 마음조였다며
부모앞에 못다한 어리광을
처녀의 가슴으로 한껏 안아준
그 고결한 마음에

긋은일 마른일 가렸으랴
젖은 손 땀을새 없는 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애젊은 그 나이에 말아안으며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너는 꽃나이지시절에 다 깨우치지 않았느냐

볼수록 돋보이누나
고운 모습 자랑하는
처녀들이 많아도
너보다 훌륭한
너보다 아름다운 처녀 또 있으랴

자랑하고싶구나
아 높이높이 자랑하고싶구나
내 나라 우리 당의 해빛아래서만
자라고 꽃필수 있는
꽃중의 꽃
온 나라가 다 보라고
온 세상이 다 보라고...

내 나라의 얼굴

권태여

어머니 품에 팔랭이 흔드는
저 아기의 캐득거리는 웃음을
돈주고 살수 있겠습니까

나비땡기 곱게 달고
학교 가는 저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그 무엇과 바꿀수 있겠습니까

나라없던 동요시절
울음으로 밥을 조르던 나에겐

웃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행복에 겨워 기쁨에 겨워
감사의 눈물에 웃음이 젖는 나라
흰머리 검어지는 세월입니다

살수도 꾸밈수도 없는 저 웃음
김정일장군님이 주신 무상의 복입니다
대포소리에도 흐리지 않을
사회주의 내 나라의 얼굴입니다

농장벌의 5월은 흥이더니

리종덕

농장원들 지원자들
한논판에 들어서서
해마다 모내기로 들끓던
농장벌의 5월은 흥이더니

기계소리 물소리
노래소리 웃음소리
하늘가득 한데 어울리던
모내기철은 참으로 멋이더니

이해의 5월은
맑기만하던 종다리노래도
구성지기만 하던 풍년새소리도
피타는듯

아서라
참고 이기기엔
너무도 큰 상실의 슬픔이지만
눈물을 깨물고 일떠선 이 봄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 뜻을 받들어
새해의 첫날부터
이 벌에 살던 너와 나 아니냐

피눈물 삼키며 자래운
이 풍년모 꽃아
당중앙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우리 생활 꽃피우는 이 봄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의
공격진지를 차지하는 병사의 자세로
땀을 쏟고 열정을 불태우는
이해의 모내기철

오, 기쁨과 환희로 부풀던
노래도 웃음도 가슴에 묻어두고
대지를 적시던 눈물을
맹세로 끓이는 이해의 5월이다